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혜문 스님
"문화재 환수 설득 과정은 수행과 같습니다"
16 · 17면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화살을 잘못 잡으면 손바닥을 상한다
바로 잡으면 손바닥을 상할 일이 없듯
수행자가 바르면 깨달음이 가까이 있다.
「법구경」

불기 2557년 단기 4346년(음력 12월 12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924호 2013년 1월 23일 수요일

학술진흥 탁상행정 위협받는 불교학계

교과부, 학술지 선호도 조사… 신빙성 의문

지난해 말 조사 완료된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 이하 교과부)의 국내 학술지 선호도 조사에 대한 신빙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12월 발표한 학술지 자율 평가 체제 정착을 위해 이뤄진 조사였지만 졸속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교과부 학술진흥정책 자문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자공학회 논문지〉를 비롯한 66개의 학술지가 한국 학자들이 선호하는 학술지로 꼽혔다. 이중 인문학 관련 학술지는 한국철학회의 〈철학〉 등 3곳에 불과했다. 종교 관련 학술지는 〈한국기독교신학논총〉이 유일하다.

표면적 결과를 놓고 보면 불교계 학술지는 한국 교수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부적인 면을 살펴보면 조사의 한계가 의심될 수 밖에 없다. 조사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등재된 연구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응답자 수는 12%에 불과한 20,294명에 그쳤다.

여기에 대표학술지 66개 중 회원 1만명 이상의 대형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26개로 39.4%에 달한다. 상대적으로 학자들이 몰려 있는 학회의 학술지가 인정을 받은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조사가 기초 자료 수집에 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조사를 당장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초 자료로 사용할 것"이라며 "대학과 연구기관에는 자료들을 송부했다. 다른 학술지의 장점들을 공유하고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교과부가 밝힌 대로 이번 조사는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하는 학술지 지원 개선 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학술지 지원 개선 제도는 현행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등재 제도를 학계의 자율적인 평가 체재로 전환하고 세계적 수준의 우수 학술지를 육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술지 등재 제도는 내년 12월 완전 폐지되며, 지난해부터는 등재지 신규 선정도 중단된다.

종교는 '기독논총'만 선정
응답률 12% 불과, 신뢰 없어
학술지 지원책 기초자료로
불교계 "소수학계는 고사"
인문학계 차원 대응 나서야

문제는 자율 평가를 통한 우수 학술지 선정이다. 교과부는 2012년 10개, 2013년 15개, 2014년 20개 내외의 우수학술지를 선정해 1억 5000만 원씩을 5년 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에는 결과적으로 5곳이 선정돼 각 7천만 원이 지원됐다.

지난해 선정에는 불교학연구회의 〈불교학 연구〉가 2배수 이상의 추천을 받아 최종 선발까지 올랐지만, 결과적으로는 대형학회인 한국영어영문학회의 〈영어영문학〉이 선정됐다. 우수 학술지 지원제도가 상대적으로 소수 학문인 불교학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여기 있다.

이번 선호도 조사에 대해 김종욱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장은 "이번 조사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 결과를 보고 일희일비할 필요도 없다"며 "학술지 지원 개선 정책 자체가 졸속행정"이라고 일축했다.

김성철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는 "인기투표로 우수 학술지를 선발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라며 "선호도를 놓고 학술지를 평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구자가 적은 불교학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기존 등재 제도를 보완해 등재지를 선정하고 미숙한 학술지는 등재를 취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내부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석길암 금강대 HK연구센터 교수는 "신학 연구자는 1800여 명이 넘지만 불교 전문 연구자는 200~300명 수준이다. 다양한 불교학 분야에 비하면 연구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는 "사실 박사들은 많이 양성되지만, 50%가 만학도"라며 "나머지 인원도 전업 연구자로 활동할 수 있지 않다. 불교계 종단들이 나서서 불교학 진흥을 위한 복안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중일 기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1월 15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종단 지도자들이 상호 간 신년 인사를 하고 있다.

"시대의 아픔 해결, 불교가 앞장서자"

종단협, 15일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

"사회 양극화, 인권 유린, 학교폭력 등 우리 사회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불교계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묘책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 이하 종단협)는 1월 15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하고 시대의 아픔과 함께 하는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법회에서 종단협 회장 자승스님(조계종 총무원장)은 법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는 현실을 반영하듯이 지난 한 해 가장 많이 언급됐던 말은 힐링이었다"며 "분열과 갈등에 휩싸인 사회에 동체대비를 역설하고 상처입고 고통 받는 마음에 치유의 손길을 보내는 것, 그것이 불교계에 요구는 작금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자들에게는 "욕심과 집착을 비워낼 때 비로소 이웃이 보이고, 내 것을 나눌 때 행복의 길이 열린다"고 당부했으며,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지도자들 신뢰할 것을 부탁했다.

이어진 기원사와 신년인사에서도 불교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종단협 부회장 도정 스님(천태종 총무원장)은 기원사에서 "천지는 한 뿌리이고 부처와 중생은 한몸이라 했으니 불교는 둘이 아닌 도리 속에서 일체 중생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부회장 혜정 정사(진각종 통리원장)도 신년 인사를 통해 "저다마의 자리에서 참회로 허물을 버리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을 부처님과 같은 수행으로 채워야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탐진치를 비우고 자비용(慈悲勇)을 채우며 상생의 나눔을 실천하는 불자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는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 부회장 인공 스님, 도정 스님, 혜정 정사, 향적 스님 등 협회 종단 관계자를 비롯해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흥길 특임 장관, 정갑윤 국회 정각회장, 박범훈 청와대 불자회장, 강봉석 종무실장,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글= 신중일 기자 · 사진= 박재완 기자

국보급 삼국유사 초기 판본 공개

기존 정덕본 누락 부분 발견… 높은 가치 가져

국보급으로 평가되는 〈삼국유사〉 조선 초기 판본이 공개됐다. 특히 이 〈삼국유사〉 판본은 판본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존형태가 완벽해 고대사 연구의 자료로서의 가치가 높다.

연세대는 1월 16일 故손보기 연세대 사학과 교수 유족들이 손 교수가 소장해온 '삼국유사' 1책(왕력, 권1, 권2)을 연세대 박물관에 기증했다고 밝히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삼국유사〉는 판본이 많지 않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1512년 경주부윤 이계복이 간행한 중종 임신본(국보 306-2호)이 유일한 판본이었다. 이후 조선초기 간행본이 밝혀졌으나 총 5권 중 2, 3, 4, 5권(현재 보물 419-2호, 국보 306-1호)만이 남아있었다.

연세대가 공개한 〈삼국유사〉 1책은 신라 · 고구려 · 백제 · 가야의 역대 왕의 족보를 간략하게 기술한 '왕력편'과 삼국시대 각종 기이한 이야기를 모은 '기이편(奇異篇)' 권1과 권2로 구성돼 있다.

손 교수 유족이 기증한 〈삼국유사〉 1책은 낙장 없이 완벽한 상태로 초기간행본 권2(보물 419-2호)와 대조한 결과 같은 판본임이 확인됐다.

특히 글자 탈락 · 오류가 많았던 '역대 왕조별 왕의 족보' 등이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는데 기존 정덕본에서 확인되지 않던 부분을 확인가능해 높은 가치를 지닌다.



연세대 박물관은 이번에 기증된 〈삼국유사〉 판본을 손보기 교수의 아호를 따 '파른본'이라고 부르고 국가문화재 지정과 관련 학술대회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연세대 박물관장을 역임한 손보기 교수는 공주 석장리를 발굴 등을 지휘한 선사학 권위자로 한국활자를 세계 학계에 소개한 한국 고활자 전문가이기도 하다. **노덕현 기자**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표어 공모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는 1월 16일 "불기2557년 부처님오신날 표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올해 표어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알리거나 자비나 눔을 실천하는 내용, 세상과 함께 희망을 만드는 것을 주제로 삼고 있다.

글자 수는 10자 내외며, 1인 최대 2개 씩 응모가 가능하다. 표어 접수는 1월 28일까지며, E-메일(kang@buddhism.or.kr)과 팩스((02)725-6643)로 응모하면 된다. 당선자에는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역대 봉축 표어로는 '가족을 부처님처럼', '우리도 부처님같이', '수행정진으로 세상을 향기롭게', '나눔으로 하나되는 세상',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세상' 등이 있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924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총무원장 신년기자회견
군종특별교구 2013 특성화 전략
통도사, 밀양케이블카대책 간담회
조계종 '종교인 과세' 논의
불교사회硏 호국불교사업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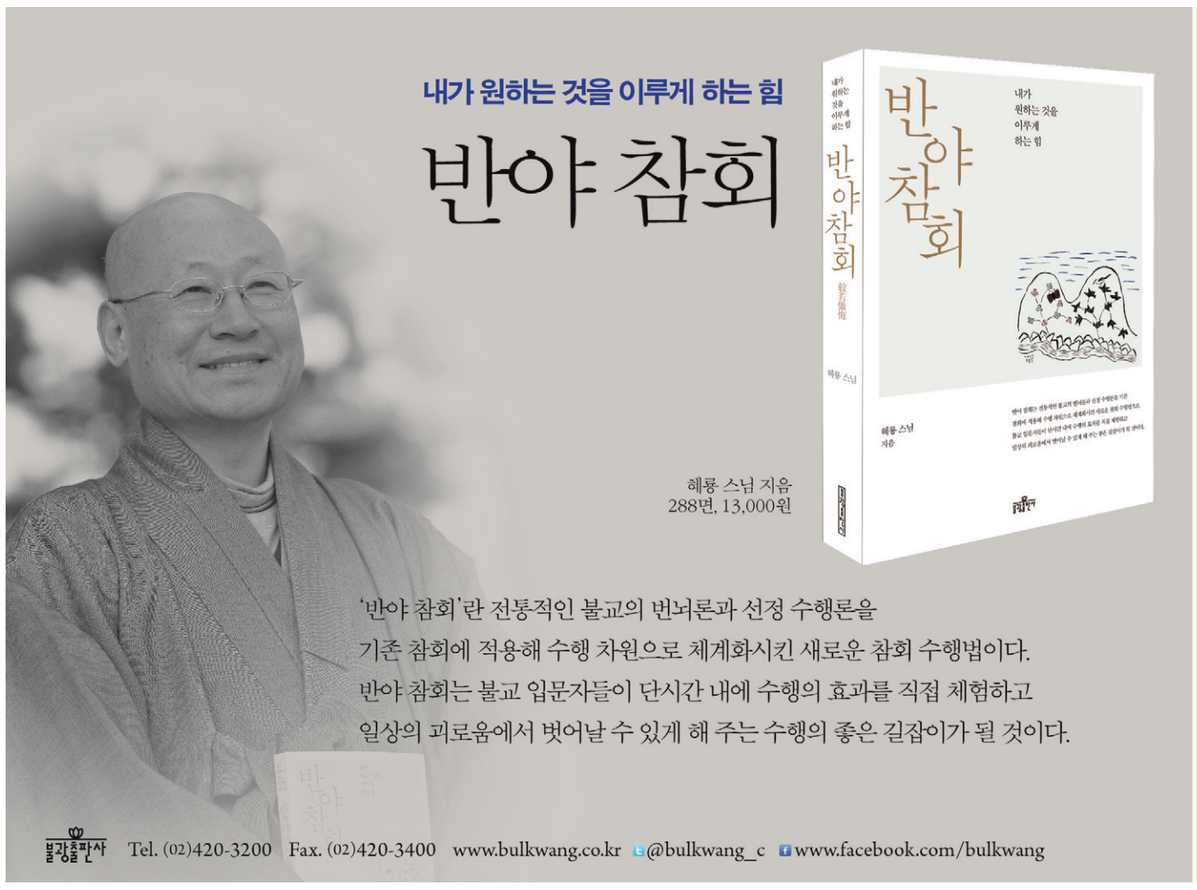
시방세계 5
6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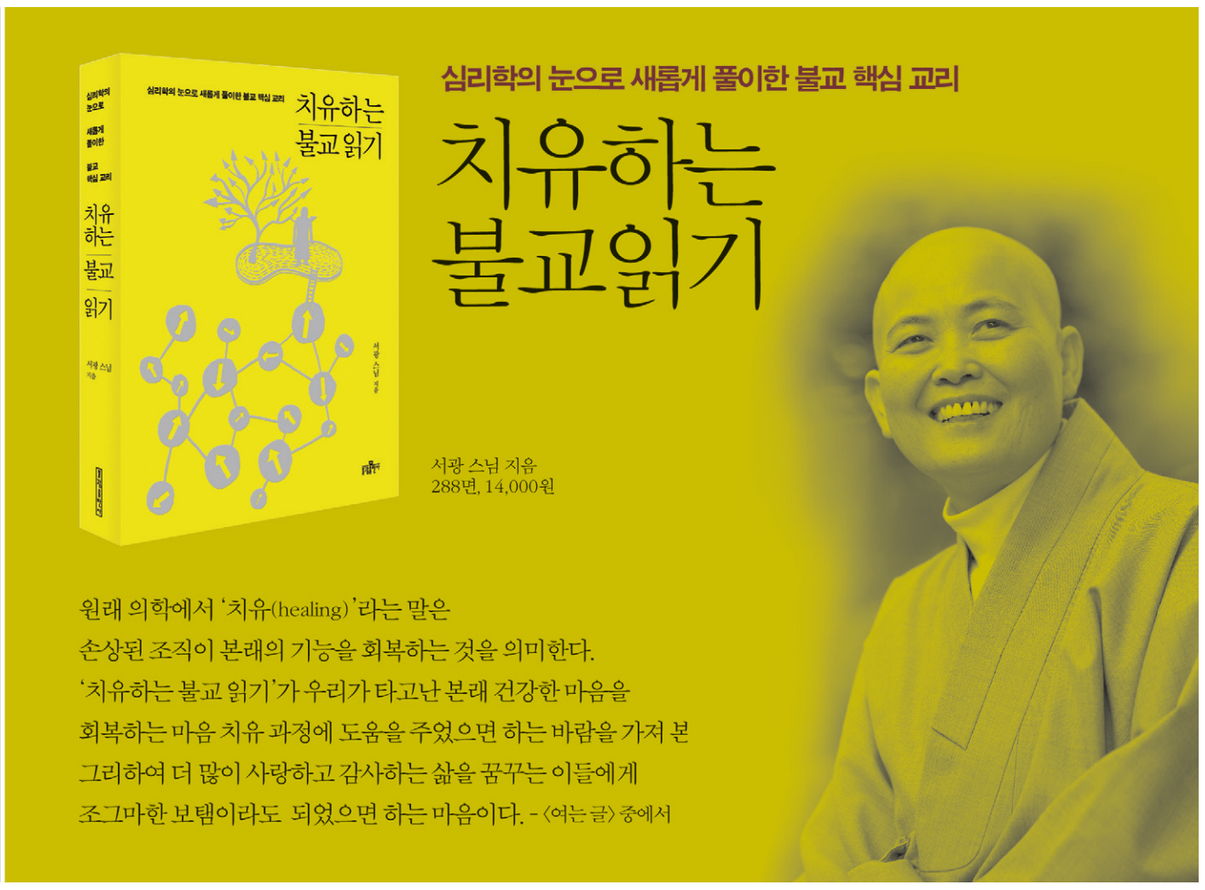
강의실 중계 8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티베트 스님의 50가지 지혜



부와 재산은 마술쇼와 같아
유혹과 속임수 뿐이니
탐욕의 매듭에 묶이지 말라.

어마어마한 재력, 최상의 옷과 맛있는 음식 등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만큼 모여 있건 축적된 것들은 때가 되면 필연적으로 언젠가 소진되고 맙니다. 모아 놓은 소유물이나 재산은 언젠간 모두 흩어집니다. 지위나 권력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라간 것은 반드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부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정직하게 모아서 좋은 목적을 위해 쓴다면 말이지요. 빈곤을 줄이기 위해 삼보에 공양 올리거나 승가를 후원하거나 또는 필요한 이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후원자들의 보시로 덕을 입는 자들은 자신이 받은 보시를 욕심없이 오직 수행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부' 라는 것은 궁극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보시한 공덕 또한 어떤 실재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여러분을 깨달음으로 이끌 수가 있고, 그 한 측면으로 현상에 대한 집착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한 번 탐욕에 사로잡히면, 두 손이 묶이고 마음은 닫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베푸는 능력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베푸는 행위마저 참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배고프고 목말라서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사는 아귀계에 환생할 조건을 만듭니다.

사랑과 비집착은 진정한 보시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관대해야 하며, 어려움이 처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베풀어야 합니다.

이 글은 민족사에서 펴낸 〈세상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티베트 스님의 100가지 지혜 중에서 발췌했습니다.

'나눔·전통·쇄신' 조계종 올해 키워드

총무원장 자승 스님, 16일 신년기자회견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종단 기조에 대해 발표했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는 종단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보존을 통해 가치를 널리 알리겠습니다. 지속적인 쇄신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조계종 33대 집행부가 불교의 대사회적 참여와 종단 쇄신을 올해 과제로 내세웠다. 이를 반영해 올해 종단 서원도 '세상과 함께 하며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로 정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6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신년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해 사업계획을 밝혔다.

먼저 자승 스님은 지난 4년 동안 △주지인사고과제도 도입 △사찰 토지처분금의 목적사업기금 적립 △승려노후복지제도 시행 △해외특별교구 설립 △승가교육제도 전면 개선 △종단의례 한글화 등을 33대 집행부의 성과로 꼽았다.

임기를 마무리하는 올해에는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승 스님은 "세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 국민의 삶도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종단은 고통의 바다에서 중생을 모두 건지겠다는 대승보살의 서원처럼 현재 실천해야 할 일을 찾아 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조계종은 △실직가장, 장애인 등 특화 템플스테이 △서울시와 사회대안은행 추진 △자살예방센터 활동 강화 △노동자 동사섭 법회 봉행, 심리치유센터 설치 △케냐지역에 학교 개설 등을 추진한다.

전통문화 보존과 활용을 위해서는 △연등회, 전통사찰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불교 전통의례의 한글화 △전통사찰 폐사지 활용방안 연구 등을 전개할 뜻을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종단 1차 쇄신과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업 점검과 시행을 통해 완성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불교의 사회적 역할 강조
특화 템플스테이, 대안은행
이웃과 함께하는 정책 추진
청규 등 쇄신과제 마무리

종교인 과세는 긍정적 입장
용산·쌍용차 사면 촉구해

자승 스님은 "사찰운영위원회, 사찰 재정 합리화를 위한 카드 사용, 영수증 발급, 전문 종무원 양성 등은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단 쇄신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승가 청규와 선거제도, 호법제도, 승려복지 등 2차 쇄신안이 완성되면 종도들의 의견을 모아 집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승 스님은 33대 집행부의 추진 사업들이 당장의 가시적 성과보다는 불교가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토대가 됐으면 하는 바람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스님은 "지역사회에 이바지는 불교가 되기 위해 교구행정 활성화와 종무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효과적인 전법을 위한 교구 획정 방안을 중앙종회와 함께 강구할 것"이라며 "주지인사고과제도 확산, 토지처분금의 신도시 포교 시설 건입 등 그동안의 성과를 더욱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인 과세와 용산참사, 쌍용차 관련 구속자 사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사회적 요구와 분위기를 이해하고 있다. 중앙종회, 교구본사 등과 협의 거쳐 종단적 입장을 내놀 것"이라며 "다만 수행자인 스님들에게는 임금 지급을 전제로 발생하는 고용 관계가 없다. 보시금을 어떻게 현대 새무 행정과 맞춰갈 지는 정부와 구체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산 참사, 쌍용차 구속자 사면에 대해서는 "금년 설에는 이들이 가족과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정부가 앞장서서 화합과 상생의 기운을 북돋아 주길 바란다.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도 사회 평등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촉구했다.

글=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진=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비구니 파송… 군포교 발전 원년으로"

군종특별교구, 행정 전산화 등 신년계획 밝혀

군종특별교구가 2013년 군포교 질적 향상을 위한 특성화 전략을 전개한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자광)는 1월 14일 국방부 호국 원광사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승 자질 강화 및 예비군승 심화교육 △교구 시스템 전산화 △노후 군사찰 개보수 불사 △군장병 불자 배가운동 전개 등 새해 주요사업계획을 밝혔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은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의 완공으로 군포교는 양적인 성장에 정점을 찍었다"며 "이제 질적인 포교를 위해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먼저 군종교구는 업무 전산화와 젊은 군세대에 맞는 포교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방침이다. 종단 통합행정 프로그램인 '가람지기2' 를 군체계에 맞도록 개선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현역 군승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 명상 상담, 뇌 과학 등을 연간 16명씩 위탁 교육할 예정이다.

현장 포교에서는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법회, 수계와 일선 교육부대의 연계 포교 시스템 구축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부족한 군승 자원의 충원을 위해 2014년 비구니 군승 파송을 추진한다. 2012년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군승 파송 협의를 마친 군종교구는 비구니회로부터 추천 받은 1~2명의 비구니 군승 후보에 대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그동안 불자와 군에 실망을 준 면이 있다. 군승의 수보다는 자질과 소양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구니 군승 파송에 대해서는 "복장, 두발 등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 교구에도 3~4명의 신청자가 접수돼 비구니회로 넘긴 상황"이라며 "2014년 비구니 군승 파송과 자질 향상이 군포교 승패를 가늠할 것"이라고 말했다.

군종교구는 이밖에 군의 협조를 통해 노후 군법당 개보수 불사에 나선다. 전체 450여개 군법당 중 20년 이상의 노후 군법당은 200여개에 달하는 상황. 군종교구는 군법당 표준설계안을 마련해 불사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확보를 통해 장기적인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자광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2년 130여억원이 투입돼 마련된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불사 회향에 대한 감회를 밝혔다.

올해 7월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자광 스님은 "임기동안의 최대 숙원 사업이었다"며 모연에 참여한 사부대중에게 거듭 감사 인사를 전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진각종 올해 예산 159억9천700만원

지난해 보다 1억여 원 증가

진각종이 올 예산을 159억9천700만원으로 확정했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혜명 정사)는 1월 17일 오후 2시 서울 하월곡동 진각문화전승관 4층 회의실서 제383회 임시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의했다.

이날 세부 예산을 보면 통리원 133억7천500만원, 교육원 6억9천100만원 등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1억1천100만원이 증가한 159억9천700만원이다.

진각종 올 예산은 통리원장 취임법회 등 행사비를 비롯해 교육예산은 증가했으나 인건비, 비품매입, 봉축행사, 장엄물 제작, 국제교류지원금, 역경출판 등의 예산은 감소됐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세계 침구 한의대학, 중국1위 중의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1. 모집요강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4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영문) · 입학신청서 1통 · 여권용 사진 10매
석사과정	3년	1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 경제, 경영, 무역, 식품, 금융, 신문, 영어학 등

2.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 제약공장, 교육병원12, 제약연구소 등 완비

＊ 특 징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한국식사 제공
· 군입대 연기가능
· 현지 생활 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관리

3.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4.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3년 1월 30일

5. 문의처
♣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 팩스 : 02) 511-2025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학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중국 남경

중·고생 조기유학

1. 입학대상
· 초등학교 5학년 - 고등학교 2학년

2. 제출서류
· 가족등본, 여권, 여권용 사진7매, 최종재학증명서

3. 제출기한
· 1월 30일까지

4. 유학생특전
· 호텔기숙사,한식제공, 3월 어학후 9월 입학, 고교졸업 후 대학입학 보장
1년내 신 HSK(중국어 수평고사 : 4, 5급 보장)

5. 출발일자
· 3월 8일

6.한국상담처
· 02) 511-2026,2027, 010-4552-5281

인터넷홈페이지 : **www.njsdfx.co.kr**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不法 온상' 밀양 케이블카 해결 모색

통도사, 官·民·社 대책 긴급 간담회

산림훼손과 불법건축으로 개통 2개월 만에 운행이 전면 중지된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의 문제해결을 위해 간담회가 열렸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1월 17일 경상남도, 한국화이바, 지역환경단체와 함께 향후 대책에 대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가지산도립공원 보전을 위해 '밀양케이블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임희자 사무국장, 이근선 경남도청정환경국장의 주제발표와 지정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근 불거진 문제에 해결점을 찾아 다양한 의견들을 주고받았다는데 의미가 컸다.

임희자 사무국장은 "밀양케이블카 사업의 불법행위는 주요시설인 하부정류장, 중간지주탑, 상부정류장, 케이블카 케빈으로 구성되는 모든 시설물이 불법으로 건축됐다. 전무후무한 불법시설을 밀양 대표기업이 추친하고 밀양시가 승인한 것은 밀양시 전체가 부패한 지역사회라는 인식을 부추기는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 사무국장은 케이블카 업체 한국화이바에 대해 △'상부승강장 높이조정 △하늘정원 철거 후 원상복구 및 훼손산림 복원 △가지산도립공원 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경상남북-울산간 종교 시민사회 참여협의회 추진 등을 요구했다.

이근선 경상남도 청정환경국장은 "가지산은 95%가 사유지이고 관리인원과 예산 부족, 보존에 대한 명확한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케이블카 위법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한 점이 있다"며 "가지산도립공원

시설물 불법 조성만 7건
건설업체 사실 일부 '수용'
"친환경 측면서 문제풀어야"

보전·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2013~2014년 공원계획 타당성 평가와 생태자원환경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통도사 사회국장 도안 스님은 "밀양케이블카의 부끄러운 사례가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의 노력 속에 자연보존과 친환경적 측면에서 잘 해결해야 한다"며 "신불산 케이블카 추진과 개발 역시 돈이 된다는 막연한 기대로 자연경관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으로 결사반대한다. 이를 위해 자연문화


통도사는 1월 17일 밀양 케이블카 불법시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는 통도사 일대를 자연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재희 한국화이바 총괄부회장은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에게 사죄의 일배를 올리며 "죄송하고 민망하다. 독자적으로 시행한 불법적 부분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가 나오는 대로 겸허하게 수용하고 전향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지만 상부승강장 높이 조정에 대해서만은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은 "가지산 도립공원에는 지역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영축산, 재약산, 신불산 등 영산과 통도사, 내원사, 표충사와 같은 천년고찰이 자리하고 있는 자연문화유산의 보고다. 돈을 벌기 위해 환경을 무차별 파괴하는 행위는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각성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밀양케이블카는 2009년 1월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돼 2012년 9월22일 운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시공사인 한국화이바는 상부승강장 높이를 8.9m로 허가받고는 14.8m로 시공했고, 완공단계에서 다시 16.34m로 불법 증축했다. 또한 불법산림훼손, 중간지주대 위치변경 등 7건의 자연공원법과 건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호국불교 재조명 사업 본격화 된다

불교사회연구소, 2013년 사업계획 발표

서산대제 제향의례의 국가제향화, 의승군 관련 자료수집 및 세미나 개최, 의승군 설화집 및 일제강점기 호국불교 자료집 발간 등 새해 호국불교 관련 사업이 본격화된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종회분과회의실에서 호국불교 자문회의를 열고 종단의 호국불교 사업 계획을 검토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 공개된 2013년 호국불교 사업은 △서산대제 제향의례 △조선후기 남북한산성과 의승군 △의승군 민담 및 설화 △의승군 의례 △일제강점기 호국불교 자료집 발간 등이다.

총 예산은 3억원으로 문광부 예산을 제외한 자부담 3000만원 중 2000만원은 불교사회연구소가, 1000만원은 대흥사가 부담한다.

세부적으로 서산대제 국가제향화 사업은 4월 해남 대흥사 서산대제, 9월 북한 묘향산 보현사 제향의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조선후기 남북한산성과 의승군 사업은 남북한산성 축조 및 방위를 담당한 승군 규모와 기능, 화엄사 역할과 위상, 남북한 산성의 군사적 기능과 역할 등에 대한 조사 연구와 세미나로 진행되며 연구결과는 논문집으로 발간된다. 의승군 민담 및 설화 관련 사업은 지역사찰 답사조사를 통해 관련 사적을 조사해 논문집으로 발간된다. 의승군 의례, 서산대사 등 승장 관련

서산대제·의승군 연구 등
국고 3억원 투입 사업 진행

사업은 당시 국가와 민간 차원의 의례 및 문헌 연구와 함께 사적 조사를 실시해 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연말 호국불교 사료집 발간을 위해 삼국, 고려시대, 대흥사 등 호국불교사료를 불교사회연구소 차원에서 수집하기로 했다. 2012년 발표된 논문집은 1월, 2012년 수집한 조선시대 호국불교 사료는 사료집으로 2월 말 경 출간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종단 전산화 발전에 기여"

봉은사, 동행에 전산화 기금 1억 원 쾌척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진화)는 1월 1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에 종단 전산화 기금 1억 원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동행 이사장 자승 스님(조계종 총무원장)는 "봉은사에서 나서서 종단 종무행정 전산화 발전을 위해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며 "종단 전산화 불사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은 "직영사찰 주지이면서 종단 전산화 정책 특보를 맡고 있는 만큼 남의 일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현재 보급된 '가람지기2' 도종도들의 호응이 좋다. 종단 전산화 불사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사서실장 심경, 아름다운 동행 사무처장 혜일, 기획국장 남전 스님이 참석했다.

신중일 기자



서울 강남 봉은사는 1월 17일 조계종 공익기부재단 아름다운 동행에 종단 전산화 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사진 왼쪽부터 아름다운동행 사무처장 혜일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 봉은사 주지 진화 스님

10.27법난위 현역 군인 철수

사무국 중심 조직 개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 스님)에 파견된 현역 군인들이 1월17일 전원 철수했다. 이로써 현역 군인으로 법난위에서 근무하던 직원 7명은 모두 복귀한 상태다.

조계종은 그동안 법난의 가해자인 군인 10.27법난위의 피해자를 심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중앙종회에서 결의문을 채택 철수를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현역 군인들의 복귀를 정부에 공식 요청한 바 있다.

10.27법난위원장 지현 스님은 "현역 군인 파견으로 업무상의 차질을 빚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향후 인사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측과 논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지원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원단장 보직은 사라지고 사무국장 중심의 사무국이 꾸려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구성원 쇄신으로 원활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혜숙 기자

"중앙 교역직 스님 月 보시금은 과세 대상"

조계종 중앙종회, '종교인 과세' 논의

새해 벽두 '뜨거운 감자'가 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조계종 중앙종회가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은 1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를 주제로 의장단, 분과위원장, 재정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한명로 세무법인 삼성 대표가 '사찰과 스님의 과세방안에 대한 고찰'이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진행했다. 현재 상황에 대해 한 대표는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문의한 결과 확정된 것은 없다는 의견이고, 설령 스님이 받은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한다 해도 근로 소득으로 볼 것인지 기타 소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도 "내부적인 검토는 이뤄지고 있는 만큼 과세 여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정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외국과 이웃종교 과세 사례에 대해서는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은 종교단체와 종교인에게 대체로 과세를 하고 있다. 한국의 가톨릭도 1994년부터 근로소득세를 자진 납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다.

한국 종교단체 과세에 대해 한 대표는 "사찰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라며 "하지만 수익사업을 영위하게 되면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돼 있는 만큼 영리 사업은 비과세 대상이

'수행=근로' 인식엔 난색
과세시 종단 부담 91억 원

아니다. 모든 사찰의 사업이 면세가 된다는 인식은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 대표는 단순 활동비가 아닌 개인이 받는 보시금은 소득임을 분명히 했다.

한 대표는 "교역자 스님에게 지급된 인건비는 사실상 소득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활동비 성격의 보시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다만 활동비는 사중에서 지급되는 재화인만큼 영수증 등을 첨부해 장부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가족이나 소유주택이 없기 때문에 면세점 이하라도 적용이 안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근로소득세 도입 이후 종단 스님들에게 부과될 과세 금액 규모에 대한 예상 수치도 발표됐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중앙종무기관 교역직과 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70여 명이 월 200만원, 전국 본말사 소임자 2880여 명이 월 150만원 정도의 보시금을 받고 있고 가정하면, 연간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는 3억여 원"이라며 "4대 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 부담금이 91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종교인 과세에 대한 종도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세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종회 차원의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어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조실
대원큰스님 참선 안심법회

禪定의 힘으로 삶의 뜻을 밝히자!
참선 안심 법회는 영원한 생명, 무한한 능력, 찬란한 광명이신 부처님 말씀을
부산 롯데호텔 대연회장에서 3일동안 무료로 공부합니다.
불자 여러분! 영생해탈과 운수대통은 자성에 있습니다. 성불하십시요.
법 회 일 : 2013년 양력1월29일 ~ 31일까지(3일간)
법회시간 : 매일 오후 7시
법회장소 : 부산 롯데호텔 대 연회장
주 최 : 대한불교 조계종 학림사 오등선원 부산불자 모임
연 락 처 : 051-553-5258 / 042-825-1724

일 주 문



인드라망 정기총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은 2월 23일 신정동 교육도량에서 인드라망 2013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02)576-1890



계사년 정초 산림기도

순천 송광사 주지 무상 스님은 2월 12일 송광사 응진당에서 계사년 정초 산림기도를 봉행한다.



새해소원 10만 연등불사

대구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은 2월 24일 까지 새해소원등 10만연등불사를 진행한다. (053)982-0101



겨울 마음자라기 캠프

예산 수덕사 주지 지운 스님은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마음자라기 캠프를 개최한다. (041)330-7700



행원문화재단 이사회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1월 11일 재단 이사회를 열고 기본재산 2억 1천5백만원 증자를 의결했다.

국제선센터 주지 탄웅 스님 임명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1월 14일 한국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서울 국제선센터 주지에 탄웅 스님〈사진〉을 임명했다. 탄웅 스님은 자승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사미계를 받았으며, 1999년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2005~2011년까지 관음사, 한산사, 극락사, 대덕사 주지를 역임했다. **신중일 기자**

동국대 서울캠퍼스 인사 단행

동국대 서울캠퍼스(총장 김희옥)가 1월 17일자로 대학원장 · 대학장과 기관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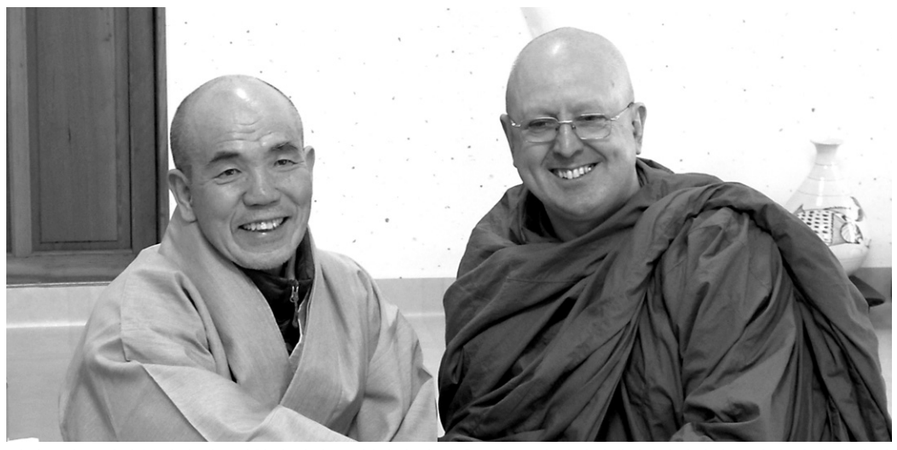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에는 정승석 불교학부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불교대학원장이었던 계환 스님은 중앙도서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평생교육원장 겸 원격평생교육원장에는 중앙도서관장이었던 박경준 불교학부 교수가 임명됐다.

△불교대학원장 겸 불교대학장 정승석 △문과대학장 오태석 △공과대학장 신재호 △영상대학원장 이종대 △문화예술대학원장 겸 예술대학장 신영섭 △약학대학장 조정숙 △전략기획본부장 이학노 △사업개발본부장 김계현 △운영지원본부장 박상관 △미래인재개발원장 윤성이 △중앙도서관장 계환 스님 △평생교육원장 겸 원격평생교육원장 박경준 △교양교육원장 박선형 △동국미디어센터장 김관규

"가는 길 다르지만 깨달음 향한 열망 같아"

초기불교와 간화선의 만남…
아잔브람 VS 적명 스님 좌담

참불선원 주최 1월 16일 봉암사서



아잔브람 스님과 봉암사 태고선원장 적명 스님〈사진 왼쪽〉은 1월 16일 봉암사에서 '간화선과 초기불교'에 대해 좌담회를 펼쳤다.

참불선원 아잔브람명상센터(선원장 각산)가 주최하는 '초기 불교와 간화선의 만남'이 1월 16일 봉암사 선열당에서 열렸다. 세계적 명상가 아잔브람 스님과 봉암사 태고선원장 적명 스님은 4시간 동안 한국 불교와 남방 불교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논하는 좌담을 펼쳤다. 좌담회는 두 스님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패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는 원담 스님, 참불선원장 각산 스님, 전현수 정신과 전문의 등이 참여했다.

적명 스님은 기조 법문을 통해 "간화선이란 화두를 참구하는 수행법이다. 화두라는 것은 보통 말이 아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말이고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기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황금과도 같은 말이다. 이렇게 의심이 일어나면 계속 반복해서 의심을 따라가면서 의심을 반복해 가는 것이다. 처음에는 생각을 따라가지만 이후에는 순수한 의심 상태가 되고 수행이 깊어지면 수면상태에까지 화두가 지속된다"며 간화선과 화두를 설명했다.

이어 적명 스님은 좌담회의 의미에 대해서도 덧붙여 설명했다 "오늘 이 자리가 서로의 다름 점을 배우고 특색을 배우는 정도 밖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가고 있는 요즘 특별한 불교 사상만을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다. 모든 사상 체계가 그러했듯이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해서 융화되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잔 브람 스님은 자신이 수행을 시작한 계기는 의심을 통한 화두 참구 보다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가 젊은 불자였을 때 어리석음이든 깨달음이든 아무런 구분이 없었다. 한번 의심을 해봐라 참구해봐라 이런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미 내 삶에는 의심이 너무 많아서 그 해결 방식만 찾고 싶었다. 그렇다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한국 선전통을 기만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히 다른 방식으로도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다. 처음 명상을 할 때 깨달음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것은 너무 위에 있었다.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원했다"며 자신이 불교를 접한 계기를 설명했다.

적명 "간화선은 화두를 지속시키는 상태"
아잔 브람 "행복해지기 위해 명상 시작"

이어 스님은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것이 불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불서를 봤을 때 부처님은 이에 대해 매우 단순하게 말씀하셨다. 그것은 고통을 멸하는 것이었다. 만약 한국 사람들에게 고통을 멸하는 방법을 얘기해 준다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결혼 자녀 건강 직장 등의 문제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많이 봤다. 의심하지 말고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권해봐라"고 전했다.

물리학을 전공한 아잔브람 스님과 과학 잡지를 즐겨 읽는다는 적명 스님은 뇌와 마음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적명 스님은 "내가 이해하는 바로는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이 마음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사성제가 가장 기초적인 가르침이다. 12연기도 마음에 대한 법문이다. 마음을 제외한다면 부처님의 어떤 법문도 성립하지 않는다. 마음은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잔 브람 스님은 "초기불전에는 두 가지 깨달음이 있다. 하나는 아라한과로 탐진치를 멸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반열반으로 완전한 소멸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아 있는 게 없는 상태를 말한다. 마음이 멸한다는 것은 본성까지 사라지는 것이다. 뇌가 마음속에 존재한다는 부처님 말씀은 현대과학으로 증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깨침의 길에 선정은 필수일까? 적명 스님은 "끊어지지 않는 삼매라야 진정한 깨달음이 될 수 있다. 화두 수행중에도 선정에 드는 수가 있다. 몇시간 며칠씩 선정에 드는 스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을 권하지는 않는다. 결국 선불교에서는 저절로 선정에 들기는 하나 그것을 목표로 닦는 일은 없다"고 얘기했다.

아잔 브람 스님은 "초기 경전에서 선정이라는 것은 다섯 감각을 놓아버리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선정의 목적은 모든 사물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평범한 상태가 아니라 초인적인 상태 수승한 분의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선정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스님은 "영어에서는 사마띠를 집중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나는 이를 고요함이라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명상을 잘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것이다. 우리가 점점 더 많이 내려놓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점점 놓아버리다 보면 선정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명상 수행도 중요하지 않다. 계속해서 놓아버리고 지배하려 하지 않고 원하는 마음을 그칠 때 언젠가 선정이 온다"며 선정의 상태를 얘기했다.

두 스님은 4시간의 좌담 끝에 결국 어떤 방법을 택하든 깨달음으로 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잔 브람 스님은 "이 좌담회를 통해 두 불교 사이에 차이점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했지만 친절과 자비를 느낄 수 있었다. 초기불교와 대승 사이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적명 스님은 "종교는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2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수행을 해왔고 오늘과 같은 각각의 결과를 낳았다. 그러니 가볍게 어느 것이 진실이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앞으로 이와 같은 견해차가 계속 될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 둘이 융화가 되어야 한다. 그 일을 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는 말로 좌담회를 마무리했다.

문경 봉암사=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뒤늦게 알려진 '재소자들 어머니' 영면

구랍 12월 8일 별세… 1월 25일 49재



'재소자들의 어머니'라고 불리 웠던 교정포교의 산증인 안청정행(본명 안효진) 보살의 별세가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안청정행 보살은 구랍 12월 8일 9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1919년 출생한 안 보살은 1970년 군부대를 비롯한 각 교도소에 위문품을 전달하다 1972년 본격적으로 재소자 교화활동에 나섰다. 이에 김영삼 ·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다.

방 한칸 없는 어려운 노년 생활을 하면서도 안 보살은 더 빈궁한 어르신들에게 항상 보시했다. 실제 그는 생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항상 사람은 자비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며 "봉사는 돈이 전부가 아니다. 진정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진실된 마음과 자비심을 가져야 봉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본지 907호〉

안 보살의 49재는 오는 1월 25일 제적사찰이었던 서울 잠실 불광사에서 열린다. 이날 49재에는 회주 지홍 스님도 참석할 예정이다.

평소 함께 봉사를 다녔던 불광사 신도 김용숙 씨는 "평생 바라밀 행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안 보살의 자비행은 불자들의 사표"라며 "불광사 신도들도 남은 생애 동안 그렇게 살 것을 약속한다. 안 보살의 왕생극락을 기원한다"고 애도했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군장성들, 신년 맞아 군포교 진흥 발원

1월 14일 국군불교 신년법회 봉행



국군불교총신도회(회장 원태호)는 1월 14일 서울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장성불자와 국군불교후원회 임원진과 함께 신년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과 부교구장 선일 · 심산 스님, 종책의장 정범 스님, 육해공군 현역 선임법사, 원태호 국군불교총신도회 회장, 손수태 예비역불자회 회장, 민병덕 국군불교후원회 회장, 송영근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태영 前국방부장관, 임충빈 前육군참모총장, 김상기 前육군참모총장, 김병관 예비역 대장, 박정이 예비역 대장과 현역 및 예비역 장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은 "군포교는 불교만을 위한 불사가 아닌 군과 나라에 기여하는 참 불사가 돼야 한다"며 "장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마음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할 때, 진정 강한 군과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날 예비역 장성불자와 국군불교후원회 임원진은 매월 108산사 순례활동, 봉사활동 등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법회에 이은 축하무대에서는 정률 스님과 군불교 문예단인 관무용단(단장 이영빈), 성악가 임형주 등의 공연이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봉행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 축하 국민 대 통합 기도회

귀의 삼보하옵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에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금번 범종교통합기도회추진위원회는 2013년 1월 25일 일산 킨텍스에서
제 18대 대통령 박근혜 당선을 축하하며 불교, 천주교 및 기독교, 민족종단,
문화계 등이 연합하여 국민대통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국민대통합 기도회"를 주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뜻 깊은 자리에 참석해주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증명법사단 : 대법주 : 영공도성 큰스님,
증명대법주 : 만옹도일 큰스님,
증명대법사 : 경우 큰스님, 증명법사 : 정각 큰스님, 흥교 큰스님,
대통합위원장 조연 큰스님,
대통합명예위원 : 범종단 각종정예하 및 총무원장 큰스님
불교공동대표 : 보광 큰스님, 보각 큰스님, 영월 큰스님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봉행위원장 석 능 인 **합장**
범종교통합기도회추진위원회 이 사 장 송 진 호

■ 일 시 : 2013년 1월 25일 오전 9시 – 오후 7시 (불교행사 오후 2시 부터)
■ 장 소 : 경기도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 4룸
■ 주 최 : 범종교 통합기도회 추진위원회 / 사)한국청소년영상예술진흥원 /
사)국제할레루야드 / 사)한민족세계선교원 / 재)세계불교법왕청평화재단
■ 주 관 : 세계불교문화올림픽조직위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54번지 7층 701호 www.budapic.org)
■ 후 원 : (예정사항)문화관광체육부, 외교통상부, 서울시, 경기도, KBS, YTN, 미라클시티건설사업단 등
■ 문 의 : 전화 02) 706- 0074 / 팩스 02) 706-0154 / 010-6302-4514
E-mail : sliris@naver.com sambo111@hanmail.net

* 참석 희망하시는 분이 많으실 경우 저희 버스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세계불교문화올림픽 조직 위원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시는 길
◆ KINTEX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600 / 전화 031)810-8114, 팩스 031) 810-8083
◆ 지하철 : 3호선 대화역 1,2번 출구 도보 10분
◆ 버 스 : 9700, 76-1, 77, 77-2, 9708, 9707, 87, 87-3, 3000, 3300, 150
◆ 자가용 : 강변북로 → 자유로 → 미산포IC → KINTEX서문















제6회 영문자가타 암송대회는 전국에서 82명의 어린이가 참가해 예선을 거쳐 25개팀 29명이 본선에 올랐다. 이날 자리는 실력의 고하를 떠나 모두가 부처님 전생담을 얘기하며 웃고 즐긴 어울림 한마당이었다.

부처님 전생담을 영어로… 동심 한마당

1월 12일, 제6회 영문자타카 암송대회… 대상에 수원 용주사 장수정 학생

"once upon a time(원스 어폰어 타임), the lion and wolf…"

화려한 꽃으로 장엄한 무대 위에 오른 천진불들 입에서는 연신 부처님 전생 이야기가 쏟아져 나왔다. '옛날 옛적에…' 로 시작하는 전생담은 아이들 입을 통해 영어로 구연됐다. 수많은 관중 앞에 선 어린이들은 그동안 열심히 닦은 실력을 뽐내 탄성을 자아내기도 하고, 외운 부분을 잊어버리기도 해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다.

1월 1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제 6회 영문자가타 암송대회 본선 모습이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주최하고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가 주관한 이날 무대에 오른 이들은 총 25개 팀에 29명. 예선에는 서울 조계사, 봉은사, 대구 한국불교대학, 부산 홍법사 등 전국 22개 사찰서 87개 팀 82명의 어린이가 참여했다.

무대에서 어린이들은 각자 준비한 인형 장갑 등 소품으로 전생담 구연을 재미있게 풀어냈다. 일부 어린이들은 아예 동물, 왕 등으로 의상을 맞춰 입고 직접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용주사 김맑은(12), 김고은(10) 학생은 언니가 늑대 역을 동생이 사자 역을 맡아 동물 옷을 입고 직접 장면을 연출했다. 또한 봉은사서 온 지유진(11) 학생은 요정 옷을 입고 춤을 추기도 해 객석에 높은 호응을 받았다. 비로자나국제선원 한서연(13) 학생은 호랑이, 늑대 등 여러 동물의 얼굴을 입체 종이로 만들어 마치 경극 하듯 구연했다.

어린이들에게 다소 어렵게 느껴질 영어임에도 또박 또박 최선을 다한 어린이들 모습에 지도 선생님과 사찰 동료들은 손에 땀을 쥐고 응원했다. 어렵게 암송한 자타카 내용을 잊어 우물쭈물하면 객석에서 다음 문장을 입으로 함께 말하며 분위기를 이끌었다. 중간 중간 생각나지 않아 스스로 실망하는 아이들에게는 박수로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외국인 교수들은 아이들의 입에서 유창한 영어가 나올 때 마다 놀란 표정과 함께 관심을 보였다.

봉은사와 비로자나국제선원, 홍법사 등에서는 피켓을 들고와 응원전을 펼쳤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자우 스님은 "참가한 어린이들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영어 구연을 하며 자신감과 성취감을 얻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그 자신감이 영어실력을 늘게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일까. 영문자카타 암송대회에는 매년 꾸준히 참가자가 늘고 있다. 사실 아이들의 암기력 만으로는 영어 구연에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 한편의 이야기가 짧은 자타카는 영문 암송대회 소재로 제격이다.

이날 심사를 한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어린이들이 영어를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재미있게 배우며, 국제화 시대에 맞는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삶의 지혜를 얻는 좋은 계기"라고 말했다.

'태어나다', '태어난 사람' 이라는 산스크리트 어 의미를 지닌 자타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까지 과거 생을 설화로 표현한 자타카를 암송하며 어떤 점을 느꼈을까.

부산 홍법사 김보현 학생(15)은 "본선에 올라오니 많은 사람들 앞이어서 조금 떨렸다"며 "응원하는 박수소리가 힘이 됐다.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대상은 수원 용주사 장수정(12) 학생이, 최우수상은 서울 봉은사 지유진(11), 구도은(11) 학생이 수상했다. 참가학생들은 서로 격려하고 즐긴 어울림 한마당이었다.

또 사찰 응원을 열정적으로 진행한 국제선센터, 봉은사, 홍법사, 대구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도 사찰별 단체참가상이 수여돼 대회에 온 스님과 사찰신도들에게도 기쁨을 선사했다. 대회가 끝난 뒤 서로 손을 잡고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한국불교의 밝은 미래가 비춰졌다. **노덕현 기자**

"아이들 인생에 등대역할 할 것"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회장



"영문암송대회는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표현력과 자신감 성취 등 자라나는 아이들 인생에 등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외우며 공부한 아이들이 사회의 동량으로 자라나길 바랍니다."

권영구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이날 대회에 참가한 모든 아이들이 대상감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국제포교사회가 주관하고 있는 영문자타카암송대회는 2008년 1월 첫 대회를 시작한 이래 어린이포교에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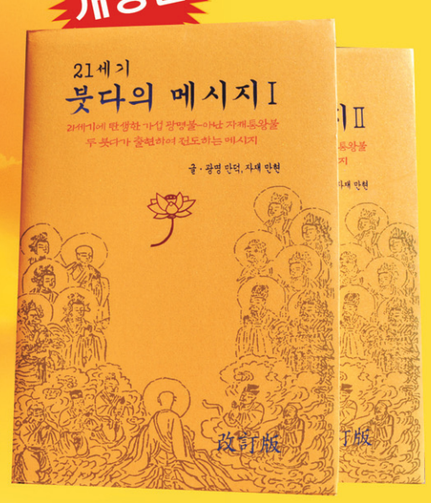
지난 5회 대회에는 서울, 대구, 부산 등 18개 사찰에서 70개 팀 78명의 어린이가 참여한데 이어 이번 대회 까지 매년 학생들의 참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심사에서도 스캇 스캐터굿 아주대 교수 등 외국인 대학 교수 3명을 포함해 심사위원의 폭이 늘어나 보다 엄정한 심사가 진행됐다.

권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자타카의 한편 한편에는 정직과 인내, 배움의 중요성과 자비 등 반드시 알고 익혀야 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며 "준비하는 동안 다니는 사찰에 대한 애정이 더욱 생기고 가족 간 화합이 돈독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대상 1팀, 인기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4팀, 장려상 6팀, 심사위원상 11팀이 선정돼 모든 아이들에게 상이 돌아갔다.

권 회장은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며 모두에게 대상을 주고 싶다. 지도해주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권 회장은 "국제포교사 활동 강화, 영어법회 지원 등으로 세계화 시대에 앞서 나갈 수 있는 불자들을 양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12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연속 7주 베스트셀러 1위
각박한 세태의 현대인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영혼 길잡이
수행인의 양심으로 말하는 윤회와 사후세계의 진실
개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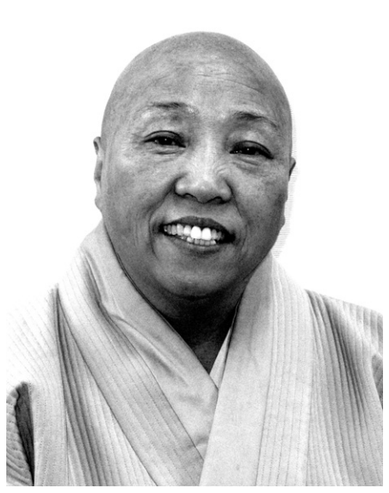


"나는 염불삼매 속에서 이와 같이 보고 들었다"
선량하게 산 사람들이 가는 하늘세계도 있고
악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가는 지옥도 있으며
성자들이 가는 해탈열반의 세계도 있습니다
춘천본사 T.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인가? 인간의 탄생 –
우주 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만고의 비밀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철학·종교서!


붓다의 가르침에 따른
세계종교 비교
감수·자재 만현 큰스님
글·법장 김중섭
720쪽 | 값 25,000원
▶ 달라이 라마Dalai-Lama XIV의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
이 시대 인류가 읽어야할 양서!
※ 전국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강사은행제 실시…전문상담사 배출”

불교상담개발원 신년계획 발표
원장에 도현 스님 취임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불교상담대학원 · 대학교를 불교상담을 대표하는 전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한다. 사진은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학생들의 모습. 사진왼쪽은 제5대 불교상담개발원장으로 취임한 도현 스님.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제5대 원장으로 도현 스님(서울 정혜사 주지)을 임명하고 불교상담대학원 · 대학교를 불교상담을 대표하는 전문대학으로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상담대학원대학을 세우기 위해 설립된 불교상담개발원인 만큼 전문성을 갖춘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중심지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상담개발원(이하 개발원)은 △불교상담연합회 구성 △강사은행제도 실시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회 구성 △명상프로그램 필수과목 실시 △대내외 홍보강화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계획했다.

현재 불교상담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동국대, 서울불교대학원, 동방불교대, 중앙승가대 등이 있으며 각 단위 사찰 불교교양대학에서도 불교상담학을 전공으로 강의하는 곳들이 있다. 개발원은 각 단위에서 수업을 듣고 심화과정을 원하는 이들에게 전문 자격증을 줄 계획이다.

도현 스님은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에 다니는 학생들만 시험에 응시해 조계종 포교원에서 인가한 불교상담사 자격증을 수여했다. 앞으로는 각 단위의 교육수료자들도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과 연계해 심화 및 보수교육을 받고 포교원 불교상담사 1 · 2급 자격증을 연계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발원은 포교원의 지원으로 민간자격증 인증하는 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며 조만간 허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현 스님은 “불교상담사가 민간자격증이 된다면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유관 시설과 연계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며 “불교계 복지기관에 전문 상담사들 가운데 타종교인이 많은데 불자 상담자로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발원은 강사은행제도를 도입해 불교상담교육을 전문화할 방침이다. 전문 강사진을 구성해 불교상담대학 · 대학원 수업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다.

개발원은 “불교와 상담론을 연구하는 교수들을 섭외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강사은행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내 · 외부 전문교수들을 한 곳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교수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개발원은 불교 상담분야 전문가인 조계종 승려와 신도 등 연구위원 15명을 위촉해 불교상담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자료 발간을 해 나간다.

연구위원은 불교상담심리전문가 선업스님(맘행복치유터장), 상담개발원 이사 광용 스님(성림사 주지), 혜타 스님(수원지방법원 상담원), 김재성 교수(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 명상의 집 대표), 이규미 교수(아주대 교육대학원), 전현수 원장(전현수신경정신과의원), 최훈동 한별 정신병원장, 김준형 서울사진치료연구소장, 황수경 교수(동국대 선학과), 이경애 소장(이경애심리상담소), 박남수 소장(한국마인트코칭연구소) 등으로 구성됐다.

도현 스님은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매월 연구위원들이 모여 토론회도 갖고 포럼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명상 프로그램을 불교상담사 1급 과정의 필수과목으로 채택했다. 도현 스님은 “불교의진수인 명상 프로그램을 반드시 도입해 현장에서 상담가들이 명상치료도 도입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인적 · 물적자원이 부족했던 개발원은 방송과 신문, 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후원금 모집에도 나선다. 또 분기별로 세미나를 개최해 불교상담개발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정립하고 ‘자살’ ‘우울증’ 등 사회적 이슈를 불교와 상담을 접목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도현 스님은 “불교상담개발원의 계획이 차근히 진행돼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불교상담대학 · 대학교가 되길 바란다”며 “포교원, 중앙신도회 등 개발원에 관심을 가져주는 교계 단체 및 불자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제5대 신임불교상담개발원장 도현 스님은 법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89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상담개발원 이사와 자비의전화 이사를 역임했으며, 1997년부터 2005년까지 불교방송 ‘거룩한 만남’을 진행했다. 스님은 현재 영등포교도소 교화위원이자 수원지방법원 가사상담위원으로 있으며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1월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교상담개발원 원장 이 · 취임식과 기념세미나를 개최한다. 1부에서는 제4대 원장 담교 스님에 이은 제5대 원장 도현 스님의 취임식과 담교 스님에 대한 포교원장 공로패 수여, 신임 이사 및 연구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된다.

2부 기념세미나에서는 ‘불교상담의 근거와 임상적 적용’을 주제로 전현수 신경정신과 원장이 ‘불교상담의 임상적 사례를 중심으로’를, 박찬욱 밝은사람들 연구소장이 ‘불교상담의 성찰,소통,명상을 통한 이고득락’을, 자비의 전화 이사 선업 스님이 ‘불교상담개발원 활동 현황’을 발표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스키도 타고 친목도 다져요

파라미타 1월 27~29일 겨울수련회 실시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회장 정여)는 1월 27~29일 강원 횡성 웰리힐리파크 유스호스텔에서 ‘제3회 사찰 청소년 겨울수련회’를 실시한다.

수련회는 중 · 고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스키강습과 수준별 스키타기, 안전교육 등을 비롯해 회원간 친교를 다지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청소년법회 회원과 지도자라면 누구나 참여가능하며 파라미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7236165@hanmail.net)로 신청하면 된다. (02)723-6165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청소년들이 흥미와 재미를 갖는 겨울스포츠를 통하여 신심을 단련하고 파라미타 회원들 간의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정념)는 1월 11~13일 양양 낙산사에서 동계캠프 및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재의 소중함과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학생들간의 친목을 다지기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캠프에는 강원파라미타 분회인 21개 초중고교 121명의 학생이 참여해 노래배우기와 입재식, 문화재 UCC 영상편집 특강, 걷기명상 등을 진행했다.

이나은 기자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는 스키타기 등을 주요프로그램으로 한 사찰 청소년 겨울수련회를 1월 27~29일 횡성 웰리힐리파크에서 개최한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금강대, 무료 티베트어 전문 강좌 개설

1월 28일부터 10일간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 연구센터는 1월 28일~2월 7일까지 무료로 티베트어 전문강좌를 진행한다.

이번 좌는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차상엽 · 김성철 금강대HK교수가 각각 초급반과 원전강독반을 맡아 강의한다.

지난 해 산스크리트어 전문강좌를 개설해 운영한 금강대는 “수강생 수준에 맞춰 단기간 집중 강좌로 초급부터 원전강독에 이르기까지 티벳어를 습득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좌에 참석을 희망하는 이들은 2월6일까지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로 접수하면 된다. (기숙사와 식비, 교재비 별도)

(041)731-3629 이나은 기자

포교원, 어린이 · 청소년 심성개발 지침 보급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어린이, 청소년의 심성개발 지침서를 발간해 보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지침서는 〈어린이 마음거울 108 지침서〉와 〈청소년 심성개발 프로그램 지침서-청소년 10분 집중명상, 아하! 청소년 명상캠프〉, 〈월호 스님의 청소년 힐링캠프 가이드북〉이다.

2012년 포교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용 포교 애플리케이션 ‘어린이 마음거울 108’ 및 ‘청소년 마음거울 108’을 개발 보급한 바 있다. 이번 지침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지도방법 등을 담은 교사용 지침서 및 교육보조교재다.

〈청소년 심성개발 프로그램 지침서〉는 2012년 3월에 발족한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인 혜거 스님과 인경 스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있다.

〈월호 스님의 청소년 힐링캠프 가이드북〉은 포교원에서 시행한 청소년심성프로그램 공모전에서 청소년심성프로그램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포교원 인증 프로그램이다.

노덕현 기자

금강경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진흥원, 신년대법회 봉행

〈금강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 자리가 열린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은 1월 28일~2월 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대법당 다보원에서 ‘〈금강경〉의 현대적 조명’을 주제로 2013년 계사년 신년대법회를 봉행한다.

법회 첫 날인 28일 서울 금강선원장 혜거 스님을 시작으로 29일 동국대 명예교수 현각 스님, 30일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의 저자 김윤수 전 판사, 31일 불교방송 ‘행복의 길’ 진행자인 법안 스님, 2월1일 경기도 광주 각화사 주지 혜담 스님 등 5차례 걸쳐 매회 1시간30분씩 법석을 연다.

대한불교진흥원 “신년을 맞아 한국의 대표적 경전인 〈금강경〉을 소재로 출재가 법사를 초청해 5일간 연속법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상향적 삶의 정의를 규명하고, 나아가 아집과 독선으로 오염된 우리 사회의 가치관을 회복하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나은 기자

조계종 중앙신도회 신년하례회 개최

1월 26일 대구 동화사서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이기흥)는 1월 26일 오후2시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한다.

이날 신년하례회는 종정 진제 스님의 법어, 동화사 신도회장의 신년발원문, 중앙신도회장 인사말, 포교원장 치사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신년하례회는 서울 조계사에서 진행되던 신년하례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교구신도회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신년하례회 이후 지역협의회 회장 선임 및 신도제도개선특위 구성도 발표된다.

노덕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羊寺

고불총림 백양사 포교사 전문 강원 학인 모집

불교대학 졸업과 포교사고시 합격이후 포교사들의
불교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포교사로서의 보다
높은 자질 향상을 위해 2013년 고불총림 백양사에서는
2년 4학기 포교사 전문 강원 학인을 모집합니다.

■ 입학 자격
· 출가승려 : 모든 불교종단의 비구 비구니 중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
· 포 교 사 : 대한불교조계종의 포교사 자격을 갖춘 우바새 우바이

■ 입학 정원
1) 상주형 대중 : 비구 3명, 우바새 20명
2) 통학형 대중 : 50명(비구·비구니·우바새·우바이 통합수업)

■ 제출 서류 1) 입방원서(본원의 소정 양식)
2) 포교사고시 합격증 사본 또는 승려증 사본
3) 건강진단서(종합병원 발급/상주형 대중의 경우)
4) 사진 3장(증명사진)

■ 원서 및 서류의 제출 시기 및 장소
1) 원서 및 서류의 제출 시기 : **2월 1일(金) ~ 2월 14일(木)**
2) 제출 장소 :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약수리 26번지
고불총림 백양사 포교사 전문 강원 교무처(종무소)
전화 : 061)392-7502 팩스 : 061)392-2081

■ 선발 시기 및 방법
1) 입학시험 : 2013년 2월 17일 오후 2시(백양사 교육관)
2) 논술시험 : (논제 - 연기법과 사성제)
3) 면접시험
4) 합격자 발표 : 2013년 2월 19일 백양사 홈페이지에 공고

※ 포교사 전문 강원의 입학전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양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불총림 백양사 포교사 전문 강원 강주 우 궁

“아동의 건강과 인성 우리가 지킬 것”

아름다운동행, 저소득가정 지원 프로그램 8곳 선정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러브몽실이의 누리보기’ 프로그램. 참여 아동들은 인문학·독서프로그램을 통해 가치관을 정립시키고 올바른 먹거리교육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기르게 된다.

소림사…건강권 위해 생활개선실시
삼전복지관…인문학 프로그램 강화
영축 평생교육원…미디어 다이어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2012년 NGO단체 공모사업 ‘저소득가정 지원프로그램’을 선정하고 1월 15일 NGO단체와 복지관에 지원금전달식을 개최했다.

선정된 기관은 소림사 아리담문화원, 삼전종합사회복지관, 가산종합사회복지관, 길벗지역아동센터,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신사종합사회복지관, 영축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 중앙사회복지관이다. 이날 아름다운동행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접견실에서 아리담문화원과 삼전종합사회복지관에 1000만원을, 나머지 기관들에 500만원의 지원금과 선정 증서를 전달했다.

아름다운동행은 자비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NGO단체를 대상으로 2011년부터 ‘저소득 가정 지원 프로그램’ NGO단체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로 3회째를 맞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저소득가정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으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사회문화 체험활동 및 교육활동 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2012년 11월 6일 공모를 시작으로 12월 14일까지 56개의 단체가 응모했다.

심사에는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최영신 교수, 동국대전산원 사회복지학과 임해영 교수, 현장전문가 등 5명의 심사위원이 사업계획의 적합성, 타당성, 창의성, 지속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파급효과, 지역사회공헌 등을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

최영신 교수는 “청소년의 의지를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평가했다. 비(非)불교단체를 포함해 선정했으며 서울에 집중되지 않도록 여러 지역의 단체들을 골고루 선정했다. 아동인문학 프로그램, 건강권확립을 위한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들이 참신했다”며 “올해 모집된 단체들 중 대형 복지시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지역 공부방 및 아동센터들이 실현가능성 있고 참신한 프로그램을 계획·지원해 사업에 선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대한불교조계종 소림사 아리담문화원은 저소득아동들의 건강권 확립을 위한 생활습관개선프로젝트 ‘3W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3W프로젝트’는 심리·신체적으로 보호체계가 취약한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건강권 회복을 위해 스스로의 심신(心身) 상태를 파악하고 건강한 습관 형성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생각을 돌보다 △몸을 돌보다 △관계를 돌보다 등 3가지로 진행된다. 우선 참여아동들은 명상의 시간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씻어내 스스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자아상으로 전환하게 된다. 이후 아동들은 다양한 색깔의 식재료로 직접 요리해 먹고, 108 절운동, 전래놀이활동 등 운동을 생활화해 건강한 생활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특히 눈여겨볼 것은 ‘관계를 돌보다’ 시간이다. 아동들은 버려진 텃밭을 농장활동을 통해 꾸미고 가꿔 수확물은 주변 이웃에 나눠주며 자연과 나눔에 대해 배우게 된다.

정원희 아리담문화원 3W프로그램 담당자는 “기존에 소림사 인근 지역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오던 것을 아름다운동행의 공모사업 모집을 보고 지원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성했다”며 “앞으로 서울 홍지동 저소득 아동들의 건강을 지키고 인성을 확립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러브몽실이의 누리보기(세상알기·이하 러브몽실이)’를 2006년부터 진행해왔다. 참여 아동들은 미술, 음악, 미디어 등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해 인문학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다양한 책읽기와 독후감 발표 및 독서토론 등 통합독서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감을 기르고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 조아라 사회복지사는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통합적 인문학 프로그램을 진행해 세상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수립해 자기 자신을 이해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i길벗 산하시설인 길벗지역아동센터는 ‘아따맘마’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간다. 아따맘마는 학교급식과 지역복지단체 급식지원에 의존하는 편부모 및 조손 가정 아동들을 위한 식습관개선 프로그램이다. 센터는 매월 2회에 걸쳐 아동들이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요리를 소개하고, 바른 식생활 지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요리 책자를 발간한다.

2012년 12월에 설립인가를 받은 영축 마인드케어평생교육원은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다이어트캠프’를 실시한다. 미디어에 중독된 저소득 청소년에게 치유기회를 제공하고, 명상과 선체조, 아트케어 등을 통해 내면을 성찰하고 자기관리 능력강화를 기르도록 돕는다.

이밖에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은 저소득 부자(父子) 가정의 교육·정서·신체 및 영양지원을 통해 가족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사부(사이좋은부자, 사랑하는부자)’를, 중앙사회복지관은 저소득아동이 사진촬영을 통해 사회성 및 자아존중감 향상을 할 수 있는 ‘나는 사진작가다’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8곳은 2013년 한 해 동안 사업을 실시하고 2014년 1월 사업결과 보고서를 아름다운동행에 제출해야 한다.

아름다운동행은 “이웃들을 위해 활동하는 NGO·사회복지단체들의 사업 활성화와 지원의 다각화를 위해 소외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공모사업을 지원한다”며 “지원금이 각 시설단체 프로그램에 유용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복지국가건설 주체로 당당하게 펼칠 것”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013년 신년교례회 봉행


행사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을 비롯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정관 스님,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상덕 스님 등 복지재단 산하 시설장 및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불교계 풍부한 인적·물적자원을 통해 자비나눔 실천현장에 든든한 지원군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신년교례회를 봉행하고 2012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소외이웃을 위해 나눔과 자비행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원경 스님을 비롯해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정관 스님, 옥수종합사회복지관 상덕 스님 등 복지재단 산하 시설장 및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말 복지재단 상임이사로 취임한 원경 스님은 신년사에서 “상임이사로 부임한 이후 한 달여 동안 그간의 업무파악과 현장순시를 통해, 우리 불교계의 자비실천을 위한 원력사업은 해를 거듭해오며 더욱 활기를 띠어 이제 복지국가건설의 당당한 주체로 성장해 왔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조계종 복지재단은 지난 한 해 동안 재단 창립 2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 △재단 조직 시스템 개편 △산하시설 집중관리 △청소년 의지나눔 사업 △해외저개발국가 구호 등 내적 역량 강화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불교계의 풍부한 인적, 물적자원이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자비나눔을 통해 필요한 곳곳에 잘 쓰여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신년사에 이어 복지재단은 2012년 사업보고 및 △라오스 아동보건 센터 건립 △ 제1금융권과 연계한 자비의 나눔 통장 및 카드 개설 모금 프로모션 전개’ 등 2013년 핵심사업 등을 소개했다.

이 밖에 대한불교소년소녀합창단, 창일어린이집 원아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나은 기자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3만명 달성

“캠페인통한 인식전환 결과”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가 조혈모세포기증 희망등록 3만명을 돌파한데 이어 장기기증희망등록자 모집도 누적 3만명을 넘겼다.

생명나눔실천본부는 “1994년 장기기증희망등록자 모집을 시작한 이래 2012년 한 해 장기기증희망등록자는 3,352명으로 총 인원 32,814명”이라고 밝혔다.

장기기증은 갑작스런 사고나 뇌질환으로 인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말기질환자에게 이식하여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뇌사시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희망등록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민간홍보대사 신청이다.

일면 스님은 “장기기증을 실제로 할 수 있는 경우가 희박하므로 기증의 의미보다는 뇌사시 장기기증을 알리는 희망등록신청만으로도 큰 보시행을 실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에서 죽음의 순간 타인에게 새로운 삶을 베풀고 떠난 뇌사자가 409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수는 2012년 11월말 기준으로 22,427명이다.

한편 생명나눔은 1월 17일 오후 2시 법인 회의실에서 환자 치료비 지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치료비 수혜자는 생명나눔 12월 선정환자인 여정호(28세)씨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위해 휴학해 일하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당했다.

생명나눔은 사지마비와 뇌내출혈, 전신 3도 화상을 입어 2년 넘게 병상에 있는 여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BBS ‘거룩한 만남’ 12월 선정환자인 故김춘희(50세) 환자의 전달식도 진행됐다. 환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인 쿠싱증후군으로 투병하다 숨져 자녀들에게 모금액 1002만 원을 전달했다. 이나은 기자

광진노인복지관, 카네이션학교 모집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2013년 3월~2014년 2월 진행하는 서울시 지정평생학습관 ‘카네이션학교’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카네이션학교’는 지역사회 내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초등학교 및 기초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 어르신들은 한글·산수·사회·과학·도덕·실과 등 초등교육과정을 학습하게 된다.

또한 연 4회 문화체험 및 특별행사를 진행하며 과정을 수료할 경우 명예졸업장을 받게 된다. (02)466-6242

함께 뛰어놀며 장애·비장애 허물자

강북장애인복지관,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


전시된 미술관에서는 재미난 추억들을 사진으로 남겼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진화)은 1월 10일 ‘친구야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 복지관 이용학생 21명과 함께 장흥아트파크 나들이 행사를 다녀왔다.

‘친구야 놀자’는 방학기간 중 늘어난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문화체험 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고, 장애·비장애 학생 간 상호 지지적인 또래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관이래 총 29회기에 걸쳐 꾸준히 진행되는 장수 인기 프로그램이다.

이번 장흥아트파크 체험학습에서 학생들은 큰 거미줄 모양의 오감각을 활용하는 ‘에어포켓’에서 미끄러지거나 튀어오르기도 하는 등 체험장 구석구석을 누비며, 장애·비장애 구분을 넘어 하나 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

학생들은 또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이 전시된 미술관에서는 재미난 추억들을 사진으로 남겼다.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은 “움츠려들기 쉬운 겨울 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기발하고 재밌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가득했던 장흥아트파크 체험전에서의 하루로 겨울 방학 내내 아이들의 감성도 일깨우고, 즐거운 추억도 가득 채워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02)989-4214 이나은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古佛叢林白羊寺

승가대학(강원) 신입생·편입생 모집 공고

고불총림 백양사승가대학은 전통적인 승려 교육기관으로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조계종의 종지를 받들어 불교를 중흥하고 종풍을 선양하며, 선지식을 양성하여 지혜와 자비의 실천행으로 중생을 교화해서 인류의 복락을 증진함에 정진하고 있습니다.

조선후기 불교법맥을 이어온 백양사 강원은 환응탄영, 석전영호, 만암종헌, 석산상현, 원조각성, 동성혜권 스님 그리고 지금의 강주스님에 이르기까지 기라성 같은 강백들께서 강맥을 지켜왔습니다.

이러한 전통속에 백양사 강원은 체계적인 강원운영과 다양한 특강으로 견문의 다양화를 실현하고, 미래사회 종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하여 외전으로 4년제 대학의 사회복지학과를 이수하고 있습니다.

백양사 강원에서는 새로운 도약과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갈 학인스님들의 입방을 공고하오니 큰 원력을 세우신 학인스님들은 반드시 입방하시길 기원합니다.

■ 모집학년 _ 치문 / 사집 / 사교
■ 모집기간 _ 불기2557년(2013년) 3월 25일(月)까지
■ 제출서류 _ ·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 은사스님 추천서 1부
· 건강진단서(종합병원) 1부
· 주민등록증 양면 사본 1부
· 승려증(행자교육필증,수계증명서) 사본 1부
· 사진(가사만의, 2×3규격) 4매
■ 준 비 물 _ 대가사 / 만의(사미) / 장삼 / 발우
■ 전 형 _ 서류심사 / 면접
■ 원서교부 및 접수 _ 승가대학 061)392-7324
종 무 소 061)392-7502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고불총림 백양사 승가대학장

연기적 상생의 길…국민 통합의 해답

정치발전과 불교의 기여

박세일(한반도 선진화재단 이사장)

복간된 〈불교평론〉이 그동안 중단한 열린논단을 재개했다. 불교평론은 1월 17일 서울 신사동 불교평론 세미나실에서 '정치발전과 불교의 기여' 를 주제로 첫 모임을 가졌다. 경희대 비폭력연구소와 공동으로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초청해 열린 이번 논단은 제 18대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발전을 위한 불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불자인 박세일 이사장은 서울대서 정치학을 가르쳤으며, 청와대와 국회서 정치개혁을 추진하기도 했고, 현재 한반도선진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치학 전문가이다.

박세일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원융과 불이를 주장하는 불교는 분명 대한민국 정치의 국민분열과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며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우리 정치는 양극화돼 있고 이를 줄여 나가는데 는 불교 사상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불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리=김주일 기자



박세일 이사장은 … 1948년 서울에서 태어난 박세일 이사장은 1970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75년 동경대 대학원 경제학부서 수학했다. 80년에는 미 코넬대 경제학부서 석, 박사학위를 받았다. 85년 한국개발연구원 수석 연구원, 94년 서울대 법대 교수, 98년 청와대 사회복지수석 비서관,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 석좌교수, 2004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이사장, 2005년 17대 국회의원, 여의도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으며, 2006년부터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2012 대선의 변화…정치인 내공 중요성 대두

이번 대선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가 보입니다.

첫째는 운동권 정치의 종식입니다. 더 이상 운동권정치로서는 정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보좌파의 과제는 어떻게 참된 진보, 즉 리버럴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이러한 합리적 정책적 진보를 만들기 위해 가장 급한 과제는 어떻게 종북을 이론적으로 정서적으로 극복하는가 입니다. 이 문제를 확실히 정리하는 지적 용기가 있어야, 우리나라 진보좌파 운동이 합리적 진보로 다시 태어 날 수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기존보수의 실패입니다. 선거에서는 보수우파가 이겼지만 사실은 진 싸움입니다. 대한민국역사의 주류를 자처 하는 보수우파가 운동권적 발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종북과의 관계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진보좌파에게 겨우 3% 정도를 이겼다는 것은 바로 그 자체가 사실은 크게 진 싸움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앞으로 철저한 보수혁신의 노력이 시대적 과제가 될 것입니다. '독점적 이익보수' 가 아니라 '통합적 가치보수' 로, 따뜻한 포용적 가치보수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번 정권도 성공하지 못하며 또한 정권 재창출도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는 정치와 정치인의 내공(content)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정치든 '구호' 와 '이미지' 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국민들은 좋은 정치를 원하지만 바쁜 국민들은 항상 구호나 이미지를 보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경향이 큽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정책준비나 인격수양 등 내공을 쌓기보다는 듣기 좋은 구호나 그럴듯한 이미지를 만드는데만 치중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국민 정치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SNS가 정보 확산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내공 없는 거품 붕괴를 빠르게 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승자 되려면…정직, 포용, 자주성 갖춰야

이상의 세 가지 변화를 보면서 앞으로 진보든 보수든 좌든 우든 우리나라 정치서 승자가 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덕목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합리성과 정직성입니다. 주장과 정책 내용이 합리적이고 정직해야 합니다. 시대에 안 맞는 주장이나 국민을 속이는 주장은 국민이 빠르게 알지요. 성철스님이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셨는데(不欺 自心), 솔직히 우리정치 현실은 자기를 속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본래 국민을 속이기 위해서는 자기부터 잘 속여야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둘째는 포용과 통합입니다. 분열과 증오의 정치로는 더 이상 성공적인 정치를 하지 못합니다. 국민통합이 필수적이고 진정한 국민통합은 국가관과 역사관 등 가치통합의 노력에서 시작돼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세계성과 자주성입니다. 이제는 국제적 안목과 경륜을 가진 글로벌 리더가 나와야 국가경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자립과 자주, 자강의 정신을 확실히 지켜 나가는 정치세력과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자리이타' 실천은 공존 공영의 길
방일에 빠져 시대책무 방기할까 우려
"불자들, 마음개조로 정치 개조하고
세대 · 지역 · 이념 갈등 해소 해야"

결론적으로 앞으로는 합리적이고 포용적이며, 정직하고 통합적이며, 자주적인 정치세력이어야지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원융과 불이(不二)…국민분열 없애는데 기여

원융과 불이를 주장하는 불교는 분명 대한민국 정치의 국민분열과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 우리 정치는 양극화돼 있고 이를 줄여 나가는데 는 불교 사상이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염두할 것은 북한의 독재주의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양자는 결코 원융이 될 수 없고 그래서 불이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 우리 불교계에서는 사고의 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융성이나 불이사상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역사적 정당성을 긍정하는 테두리에서만 가능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헌법과 조선공산당 규약 간에는 불이와 원융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의 테두리 안에서, 진보와 보수가 갖는 자유와 평등, 공동체와 약자보호, 세계주의와 민족주의에 대한 시각과 강조점의 차이 등은 원융의 눈으로 보는 것이 옳고 그것이 정견(正見)입니다. 좌의 가치와 우의 가치를 원융적으로 보아야 소위 양변의 고집을 버리고 중도를 취하는 진정한 대중도(大中道)가 나옵니다. 그러나 대 중도는 단순한 중간이 아닙니다. 처해진 장소와 시간에 맞게 옳은 것 즉 천하의 공의(公義)를 취하는 것이 진정한 대 중도입니다.

본래 자기 시각만 고집하거나 절대시하는 것은 불교의 정신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가 각자 자기를 상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각자가 자기주장을 확실하고 정직하게 하면서도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해 오히려 서로의 견해차이를 잘 활용하여 더 큰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러한 큰 시각을 가져야 그것이 대원융이고 대중도이며, 그러할 때 비로소 포용과 통합의 원리가 나오게 됩니다.

상호의존성 수용하면 갈등 줄일 수 있어

불교의 가르침은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이념 간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줄여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노동자와 사용자간, 환경과 발전간,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갈등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불교의 연기적 철학과 가르침이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가 남의 존재와 연기적으로 상생의 관계에 있다고 보면 자기를 독존적 존재로 고집할 수 없고, 결국 자리이타(自利利他)를 통해 함께 발전하는 길을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겸손하게 상호의존성을 수용하게 되고, 나의 이익과 발전뿐 아니라 상대의 이익과 발전을 함께 고려하면서 공존공영의 길을 찾아 나가게 되고, 그 과정서 모든 분열과 대립과 갈등은 줄어들게 됩니다.

종교인도 정치에 대해 발언과 행동해야

종교인도 정치에 대해 발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치인들도 최소한 종교지도자의 교육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관여해야 하지요.

문제는 행위자가 사심(邪心/ 私心)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종교인이 정치적 발언을 해도 사심으로 하면 종교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종교지도자교육에 정치가 관여해도 개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정책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심여부를 어떻게 구별할까요? 국민, 언론, 종단이 깨어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아직 우리의 종교와 정치가 거기까지 성숙돼지 않다면,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는 정교분리 원칙을 지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남북문제서 '마음의 통일' 이 가장 중요

한반도에 통일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점차 북한은 중국화(中國化)되고 동북아에서는 신 냉전(new cold war)이 시작되고, 한반도는 영구분단의 계곡으로 추락할 것입니다.

통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통일' 입니다. 이미 주장한대로 남과 북의 정치체제나 경제체제에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남과 북의 사회 문화 예술 역사 전통 등 비정치 분야에서는 융합과 통합의 여지가 클 뿐 아니라 반드시 그러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남과 북의 통일과정에서 우리 불교가 자기를 절대시 하지 않는 불이와 융합의 사고, 그리고 상대의 이익과 발전을 소중히 하는 연기적 사고 등이 민족통합에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역사를 보면 남과 북의 분단, 6.25 전쟁 등으로 고통과 아픔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통일과정에서 이들의 아픔과 한(恨)을 대대적으로 해원(解寃)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교가 이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적어도 선과 악, 천사와 악마라는 이원론에 기초한 서양종교보다, 불일이불이(不一而不二)를 주장하는 불교가 해원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불교가 지금부터 이 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교와 정치는 결코 둘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부처님이 오신다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생각하며 오늘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불자들이여 '마음개조(종교)' 하면서 그 원력으로 '세계개조(정치)' 를 하라. 그리고 같은 이야기이나 '세계개조' 하면서 그 원력으로 '마음개조' 하라"고 아마 가르치실 것 같습니다. 종교와 정치는 결코 둘이 아니라고 가르치시고 싶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지향하는 본마음은 '내성외왕(內聖外王)의 도리' 이기 때문입니다. 원리적으로 세법(世法)과 불법(佛法)은 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불교와 정치의 올바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불교를 내세워 정치를 멀리하거나 정치를 내세워 불교를 멀리하는 것은 진리는 아닙니다. 올바른 불교는 육조 혜능스님이 주장하듯이 '불이지교(不二之教)' 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정 이 시대의 문제는 우리 불자들이 마음개조도 세계개조도 모두 소홀히 하는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방일(放逸)의 병에 빠져 공동체에 대한 책무와 시대 역사에 대한 책무의 방기(放棄)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58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톤대학교 최면학 교수(전)
국제 임상최면전문가(ICHT)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한국 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 회원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평생교육원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외 각종 케이블방송에 300회 이상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 •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해결은 물론 타인을 도울 수 있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 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 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있는지, 원하는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한다.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사주속에 숨겨진 영가보는 법과 심리적인 것 까지 읽을 수 있는 법" 을 배우게 된다.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 오후 4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선화동 364-8(명상센터3층)
042)255-0734~5

“한류 이제는 전통문화가 이어가야 할 때”

이원태 한국문화관광硏 연구원, 한류전략연구포럼서

“세 정부는 불교 등 한국전통문화의 각 분야에서 전통문화 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에 나서야 합니다. 전통문화창조위원회 등을 구성하고 한류 3.0에 대비해 전통문화 콘텐츠 화에 앞장서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문광연)이 주관하는 ‘전통문화의 한류 동반진출 전략 연구포럼’이 1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통문화 세계화 정책 및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연구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포럼에서는 김창규 건국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박상미 한국외대 한국학과 교수, 윤중강 국악평론가, 이상현 안동대 민속학과 교수 등한지, 한식, 한복, 한옥 등 분야별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강연을 맡은 이원태 문광연 연구위원<사진>은 지난 20여 년간 전통문화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는 ‘전통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전통문화진흥법 입법 및 위원회 창설을 주장했다.

이원태 연구원은 “한류는 이제 한국전통문화를 알리는 3.0시대에 들어서고 있다”며 “정부도 한류 3.0을 모토로 전통문화의 현대적 해석과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전통문화계에도 많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특히 전통예술과 건축, 디자인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문화상품과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있어 전통문화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전통문화 활용 증대를 위해 전통문화 진흥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법안에는 △전통문화창조위원회 설치 △전통문화 창조 기본계획 수립 △전통문화의 날 지정 등이 담겨 있으며 TF팀 구성을 통해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과 무형문화유산법안, 공예산업진흥법안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문화의 다양성 및 사회 이슈의 복합화로 인해 정부부처 만으로는 그 흐름에 대처하기 힘들다”며 “종교와 시민단체 등을 활용한 거버넌스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의 불교와 같은 한국전통문화의 큰 부분을 차지 하는 분야에서 자문과 의견 수렴의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전통문화창조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갓바위 부처의 ‘갓’, 동일연대 조성



갓바위 부처님의 3D 정밀조사로 밝혀진 주변 석재의 원형 복원도(좌)와 갓부분 보상화 문양(우)

선본사 · 불교문화재연구소 3D 정밀조사서

그동안 갓 부분과 불상의 연대가 다를 수 있다는 갓바위 부처님(관봉석조여래좌상)의 연대 논란을 종식시키는 자료가 발견됐다.

경산 선본사(주지 덕문)와 불교문화재연구소(소장 각림)는 1월 15일 경산 선본사 성보문화재 정밀조사 결과 관봉석조여래좌상의 관(冠)에서 보상화(寶相華) 문양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머리에 쓴 갓의 모양이 대학학사모와 비슷하여 입시철 합격 등에 영험한 것으로 알려진 관봉석조여래좌상. 그동안 관봉석조여래좌상의 갓은 자연석을 단순 가공해 후대에 올려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왔다.

경산 선본사와 불교문화재연구소가 2012년 8월부터 실시한 3D 정밀 스캔 조사에서 나온 갓 윗면의 보상화 문양은 관봉석조여래좌상이 통일신라시대에 제작되며 함께 조성됐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다. 보상화 문양은 연꽃을 모체로 해 꽃잎들을 층층이 중첩시켜 화려한 색채와 장식성을 부가한 것으로,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 다방면에 걸쳐 사랑받았다.

이와 함께 이번 조사를 통해 불상 주변에 석재 중 일부가 불상 오른쪽에 부착해 본 결과 불상 무릎과 대좌 부분이었음이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선본사와 불교문화재연구소는 관봉석조여래좌상의 가상 복원도를 제작해 보존 · 관리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자료 발견이 2007년부터 경북도가 추진 중인 관봉석조여래좌상의 국보 승격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인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측은 “3~4월 경 세미나를 통해 이번 조사 결과의 학술 발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고려 팔만대장경, ‘남해 판각설’ 단서 나와

경남발전硏, 남해 고현면 일대 시굴조사 결과 발표

고려팔만대장경의 조성지가 강화 선원사와 남해 분사라는 이설이 팽팽한 가운데 남해 판각설을 입증하는 근거가 나왔다.

남해군(군수 정현태)은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원장 류창환) 주관으로 1월 11일 남해군청에서 팔만대장경 판각추정지 시굴조사 성과보고회의를 개최했다.

남해군은 2012년 11월 고려대장경 ‘종경록 27권’에 기록된 〈정미세분사남해대장도감개판(丁未歲分司南海大藏都監開版)〉에 기록된 ‘남해’ 지명에 대한 판각추정지를 설정하고 지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판각추정지는 남해군 고현면 일대 前관당성지와 前선원사지, 안타골유적과 前망덕사지 등 4개소다.

이날 조사결과 남해 고현면 일원에는 최소 3개 이상의 판각 관련 건물이 있었으며 이 건물들의 잔재에서 동일한 명문 타날판을 이용해 만든 기와가 출토돼 건물들이 상호 연관있는 건물임이 드러났다.

경남발전연구원 자문위원인 최연주 동의대 교수는 “남해 여러 곳에서 대장경 판각의 흔적이 보인다”며 “시굴조사에서 드러난 건물들이 판각장소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1년 불교서지학자인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은 ‘고려대장경 1000년 특별법회’에서 팔만대장경 제작시기가 1236년부터 1251년까지 조성했다는 기존 학설과 달리 1237년부터 1248년까지 12년 동안 판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팔만대장경 판각을 강화 선원사 대장도감과 남해의 분사 대장도감을 설치했지만 두 곳은 동일한 장소로 그 곳이 바로 남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정현태 남해군수는 “1990년대 초반부터 불교계 언론에서 제기된 이후 남해가 대장경 판각성지라는 견해를 입증하기 위해 향토사학자들과 수차례 토론 후 시굴조사를 실시했다”면서 “남해 일대 성역화로 동북아역사문화벨트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날 보고회에는 남해 화방사 주지 종호 스님과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 등이 불교계를 대표해 참석했다.

종호 스님은 “조사에서 명문기와, 건물지 발견으로 팔만대장경 조성위치를 확인하는 새 단서를 찾은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학술 · 문화재소식

조계종, 불복장 의식 현황조사서 발간



사리를 비롯한 다양한 성보를 불상의 복장 내에 넣는 의식인 ‘불복장 의식’ 현황조사 보고서가 최초로 발간됐다.

조계종 문화부와 불교문화재연구소는 불교무형문화유산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불복장 의식과 관련한 기초자료들을 모아 〈불복장 의식 현황조사 보고서〉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2012년 서울 청량사에서 진행된 불복장 의식의 전 과정이 모두 기록돼 있으며, 도성 스님 등 다섯명의 전승자 스님들에 대한 인터뷰도 함께 담겨 있다.

조계종 문화부는 “불복장 의식은 단순한 물체인 불상을 예배와 공경의 대상인 성보로 올리는 불교전통의 의식”이라며 “향후 학술연구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복장 의식은 그동안 기초자료가 희귀해 스님들 사이에서 〈조상경〉 등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전승돼왔다.

문화부가 기획하고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조사를 바탕으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불복장 의식의 설행과 전승 과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硏, ‘문사철’ 제31 · 32호 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문학/사학/철학〉 제31 · 32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보운 의통의 생애와 사상’, 구성희 숙명여대 연구교수의 ‘남자 황제보다 뛰어난 당나라 여황제 측천무후의 역사적 공적’, 권선향 동국대 박사의 ‘송대 이학의 본체론과 불교와의 관계’, 동국대 강의전담교수 자현 스님의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통해 본 한국문화의 재발견’, 권오민 경상대 교수의 ‘다양성과 유연성의 불교’ 등의 논문이 실렸다. 또 △강소연의 미술사기행(14): 존재의 근원 속으로-고려불화 ‘아미타여래도 △일본 최초의 불교설화집-‘일본영이기’ 등의 글도 눈길을 끈다.

노덕현 기자

불교사회문화硏, ‘도시불교와 건축’ 세미나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원장 유진)은 2월 1일 오후 1시 경주 동국대 100주년기념관 5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경주 · 시안 · 교토 불교세미나를 개최한다.

‘도시불교과 건축’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불교세미나에선 불교사회문화연구원장 유진 스님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3분야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문무왕 동국대 불교사회문화연구원 전임연구원의 ‘경주 도성과 불교 건축’, 하코자키 카즈히사 일본 나라문화재연구소 연구실장의 ‘7~8세기 일본의 도시사원’ 지에용치앙 중국 섬서사범대학 교수의 ‘당대 수도 장안성의 불교사원 건축’ 등 논문이 발표된다. (054)770-2597

노덕현 기자

원각불교사상硏, ‘천태학연구’ 15집 발간

천태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원장 권기종)은 최근 〈천태학연구〉 제15집을 펴냈다.

이번 〈천태학연구〉에는 △백도수 능인선원연구소 연구위원의 ‘초기교단의 계율과 성립 배경에 관한 연구’ △신성현 동국대 교수의 ‘대승불교시대 보살의 계율’ △권기종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원장의 ‘한국불교에 있어서 계율의 문제’ △창원 원흥사 주지 유정 스님의 ‘천태종 가사보존위원회 창립에 즈음하여’ △이봉춘 동국대 교수의 ‘가사의 인도적 원형과 중국적 변용’ △김경숙 조계종 의제실 무연구회 연구원의 ‘한국가사의 특징’ △강선정 화엄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원의 ‘조선시대 가사의 구성체계와 변천-조선 중기 이후를 중심으로’ △보광 스님의 ‘대각국사 금란가사의 특징과 천태종 가사 전승에 관한 연구’ △세운 스님의 ‘천태종 안거 100회, 수행전통과 나아갈 길-회고와 전망’ △황순일 동국대 교수의 ‘안거제도의 기원과 의미’ △차차석 박사의 ‘안거제도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적 모색’ △고우익 금강대 교수의 ‘천태종 안거제도의 특성과 수행-재가 신도 안거 수행을 중심으로’ 등 12편이 실렸다.

또 공모논문으론 △권동우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책임연구원의 ‘삼국유사’ 불교연기설화의 신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 △황상준 원각불교사상연구원 연구원의 ‘현대 재가불자의 관음신앙 유형에 대한 고찰-삼국유사의 관음설화를 토대로’ 등이 게재됐다.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2기 佛敎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3년 1월 중

◆ 개강일시 : 2012년 1월 개강.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 東 佛 敎 梵 音 大 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출강 및 통신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 모집

법사교육 신입생 모집

법사 되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22년 법사양성 연륜과 함께
불교지도자인 법사자격을
여법히 갖추고 포교활동을
희망하시는 불자님을 대상으로
2013학년도 제22기
법사학인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불교법사 자격과 기회
만족을 성취하여
보십시오.

① 공익법인 한국불교법사총연합회에서 법사자격 법위증이 주어집니다.
② 불교학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됩니다.
③ 불교를 쉽게 이해 정립되도록 지도교육 합니다.
④ 특성화 교육으로 실시됩니다.
⑤ 법사품수 후 사찰 · 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과정	· 법사과정 · 대법사과정 · 불학연구원과정 · 불교석학과정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교육수료 후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교육기간	· 법 사 과 정 = 1년(교과목 및 불교의식) · 대 법 사 과 정 = 2년(교과목 및 범음 · 범패) · 불학연구원과정 = 5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 불교석학과정 = 2년(교과목 및 참구수행)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 부산교육원 · 제주교육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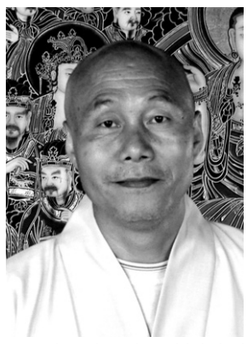
♣ 원서 교부 및 접수 : 2013년 2월 25일까지 (현재 접수중)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 본 대학 교무처(방문 · 우편 · 팩스 · 메일)
부산교육원(☎051-466-1959) · 제주교육원(☎064-751-1959)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집요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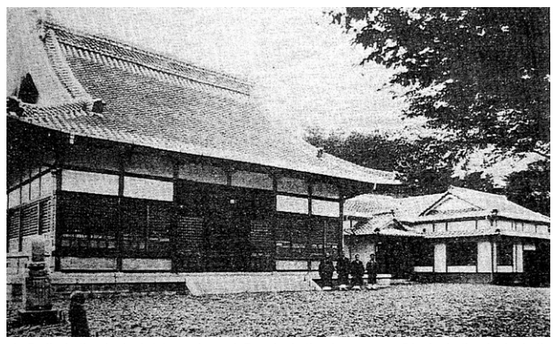
☎ 02)733-1959
720-18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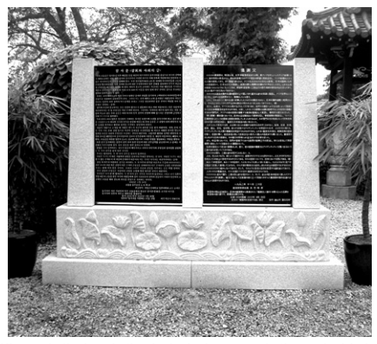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39번지(한선빌딩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동국사, 한중일 불교교류 가교 역할 나선다

일제 강점기 불교자료관 건립, 삼국 불교 교류 활성화







동국사 주지 종걸 스님〈사진 왼쪽〉은 "일제 강점기 불교자료관을 건립해 삼국 교류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일제 강점기인 1930년대 금강사(현재 동국사)〈사진 가운데〉. 1992년 일본 조동종이 발표했던 참사문이 비문으로 제작돼 9월 16일 동국사에 설치됐다.〈사진 오른쪽〉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인 군산 동국사가 한중일 동북아 3국 불교 교류의 가교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사(주지 종걸)는 일제 강점기동안 일본 불교의 한국침탈과 관련된 사료와 군산지역의 자료를 전시해 역사 교육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일제 강점기 불교자료관' 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중일 3국의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난징대학살 기념 '한중일 평화 대법회' 에 참여해 동북아 3국의 불교교류를 활성화 하고 동국사에서 '한일 불교심포지엄' 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4년 개관될 예정인 불교자료전시관은 그동안 일본의 이치노헤스님이 기증한 수백점의 일제 강점기 불교자료들과 군산지역의 자료를 전시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근현대 불교사 연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종걸 스님은 "역사 연구가는 물론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과거사를 통한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한국과 일본 불교를 비교할 수 있는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전시관은 한옥 형식으로 건축해 보물1718호 삼존불등 한국 중세불교문화재와 근대 문화재는 물론 한일 양국의 건축양식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산 교육장으로

8월 이치노헤 기증품 5백점 전시
정진실 · 도서관 설립 이용토록
9월 28일 한일불교학술대회 개최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불교자료관에는 불교대학과 개인 정진실, 작은 도서관도 함께 설립해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교육과 신행 포교의 장으로 활용된다.

동국사는 창건 기념일인 9월 28일 동국대 일본불교연구소(소장 김호성 교수) 및 동북아 불교평화협의회(회장 다이도인 大東仁 정토진종)와 공동으로 '한일불교학술대회' 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에서는 양국 불교학자들이 한 · 일간 실질적 교류방안과 식민지시대 한국불교에 미친 일본불교의 영향 등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광복절인 8월 15일에는 일본 이치노헤 스님으로부터 새롭게 기증받은 500여점의 불교유물과 일제 강점기 군산관련 사료 전시회를 개최한다.

종걸 스님은 "일제 강점기 일본 각 종단 지도자들의 친필 유묵과 휘호 24점을 전시해 당시 일본 불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포교에 임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전시된 사료들 중 일부는 서울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대여 전시 중에 있다.

또한 중국 난징대학살 기념 평화대법회에도 일본 불교계 인사들과 함께 동참해 동북아 3국의 불교교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종걸 스님은 "그동안 한중일 3국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선언적 노력만 했지 실질적 역할은 없었다. 오히려 현재는 치열한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다" 며 "동북아 3국은 일본의 진정한 과거사 반성과 상호이해와 존중, 상생협력을 통해불교가 3국의 화해와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역할을 하는 한편 불교를 매개로한 동북아 3국 불교계가 불교문화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일제 강점기 아픈 역사의 현장인 동국사가 동북아 평화를 위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국사 진입로인 '동국사 길' 이 문광부에서 선정하는 '2012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행 스님 한양대 행정학 박사학위

'함허 선사 〈현정론〉' 주제로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이 오는 2월 한양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다.

원행 스님〈사진〉은 '조선 초기 관료들의 성리학적 정치이념과 함허 선사의 〈현정론〉에 관한 연구 -정책 논증모형에 의한 접근을 중심으로' 를 주제 논문으로 행정학 박사 학위를 받게 된다.

원행 스님은 논문을 통해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삼았던 조선 초기 성리학의 수용과 행정개혁, 신진 정치 관료들이 주장하는 배불론(排佛論)의 형성 및 추이과정을 탐색하고 배불론의 영향과 호불론(護佛論)의 형성과 그 담론을 파악했다.

특히 호불론의 대표적인 인물인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선사의 〈현정론(顯正論)〉을 중심으로 당시의 정치 관료와 유학자들의 불교비판에 대한 반박담론과 그것이 조선 중기 백곡처능(白谷處能,1617~1680) 스님의 호불 사상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검토하고 호불 담론이 오늘날 우리 사회와 정치행정과 정책전반에 던져주는 메시지를 추적했다.

원행 스님은 "함허 스님은 〈현정론〉을 통해 불교에 대한 유교의 공격이 본질을 벗어나 오해와 왜곡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이러한 오해와 왜곡에서 벗어나 불교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본질을 현양(顯揚)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원행 스님에 따르면 함허 선사는 척불의 시대적 상황에서 〈현정론〉을 통해서 유교측의 일방적 비판과 공격에 맞서 배불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배불론자들의 편파성을 지적한 인물이다.

원행 스님은 "〈현정론〉과 〈유석질의론〉은 꺼져가는 불교의 법등을 다시 밝히고 호법의 의지를 보여준 한국불교사상사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 저서"라고 평가했다.

스님은 또한 함허 스님의 이러한 저술이 조선중기의 불교탄압정책의 분위기에 위기감을 느낀 백곡처능이 폐불의 부당성을 상소한 〈간폐석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원행 스님은 "함허의 호불론의 골자는 불교에도 임금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효가 존재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불교가 결코 반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점과 삼교회통을 통해 불교와 유교의 진리가 상통할 뿐만 아니라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유석질의론에서 도교까지 포함한 삼교일치를 주창해 한국사상에서 삼교회통이라는 사상사적 흐름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원행 스님은 이 논문의 말미에 "함허 선사가 〈현정론〉을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그 시절처럼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도 숱한 종교편향 정책을 비롯해 조직적인 훼불과 왜곡이 자행되고 있다. 소위 땅밟기를 하는 일부 개신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는 오직 척결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개탄하고 "어떤 형태로든 종교행정과 종교와 종교간은 엄정하고 바른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평등과 화합, 상생과 공존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교구본사 주지, 교구본사 주지협의회 회장, 나눔의 집 원장 등의 소임을 맡아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조선불교전서〉 등 원전과 42권의 단행본, 47개의 논문, 6개의 외국문헌을 참고해 이 논문을 완성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이주노동자 모국 학교 돕는다

광주외국인근로자센터, 네팔 희망 기금 협약식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와 광주 네팔공동체는 1월 15일 광주 광산구 하남에 위치한 센터에서 네팔 초등학교를 돕기 위한 '네팔 희망의 기금 협약식' 을 개최했다.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국의 초등학교 돕기에 나섰다.

불교계에서 운영하는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와 광주 네팔공동체는 1월 15일 광주 광산구 하남에 위치한 센터에서 네팔 초등학교를 돕기 위한 '네팔 희망의 기금 협약식' 을 개최했다.

이날 기금 협약식은 네팔공동체 회장 비스터 씨를 포함해 총무 비놋 등 외국인근로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매년 정기적 후원금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네팔 초등학교의 학교시설과 학용품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를 마련한 이주성 센터장은 "한국에 온 네팔근로자들이 한국인들에게 도움만 받아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했으면 좋을까를 문의해 와, 자신들의 고국을 돕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그들에게 제안해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회지 비스터 씨는 "네팔 근로자들이 고국을 떠나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우리도 고국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 한국인들의 고마움에 감사를 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스스로 고국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한국인 단체와 손을 잡고 기금 협약식이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주성 센터장은 "몇 해 전 부터 동남아 지역의 학교들에게 후원을 해 오고 있었지만, 근로자들이 스스로 돈을 모아 고국에 보내는 모습은 이채롭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생활을 하면서 받는 것에 익숙해진 모습이라, 향후 자신들의 기금을 통해 모국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 어려운 한국생활에서 큰 자긍심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네팔 희망의 기금' 은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매월 모금이 진행되며, 1년에 1~2회에 걸쳐 지원된다. 귀국한 후에도 자신이 후원한 학교와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광주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는 기금의 사용을 위해 네팔 근로자가 직접 오는 2월까지 학교선정과 지원물품에 대해 조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 단체들의 프로그램이 한국어 교육, 한국문화 이해 등에 치우쳐 있다면, 이번 기금사업은 한단계 진일보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수동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기금을 자신들이 선택한 학교에서 전달하고, 귀국 후 학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모국을 위한 기금사업은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특히 목적을 상실한 체 방향을 하는 근로자와 일하는 의미를 상실한 외국인근로자들에게 고국의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돕기사업은 좋은 노동의 가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단체의 소속감을 증대시킬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애정과 우정이 쌓고, 더 나아가 한국생활에 더 즐거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양행선광주전남지사장

'자연 치유 모험' 겨울캠프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겨울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방학 캠프를 개최했다.

참좋은우리절은 1월 4~6일, 1월 11~13일 각각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겨울캠프를 운영했다.

1월 4~6일에는 지역 내 다문화가정과 아동센터의 어린이들이 참여해 '자연, 치유, 모험' 을 주제로 불교습의와 한나무인성교육, 숲길명상, 숲속의 집 체험, 눈썰매 타기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1월 11~13일 진행된 마인드 케어 청소년캠프는 마음조절 및 두뇌계발 학습 프로그램을 더욱 체계화해 심리검사에 따른 모듬치료와 사띠수행 및 우뇌활성화를 위한 두뇌계발 등 총4단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회일 스님이 학생들에게 숲길명상과 사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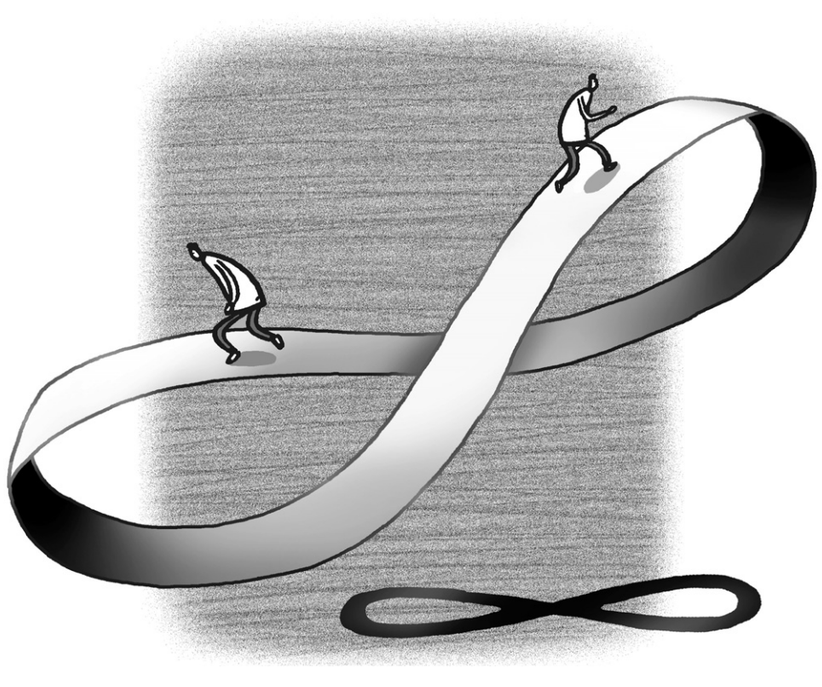
참좋은우리절은 "마인드케어 청소년캠프는 게임과 미디어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정서적 불안감과 산만함을 가지고 있거나 학업스트레스가 높은 청소년들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생활속의 불법수행 ❷

생활속의 불법수행은 현대불교신문 광고지면을 통해 부처님 법을 널리 홍포하는 지면입니다.
불자개인, 단체, 사찰 누구라도 소정의 정성금으로 부처님의 법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를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 광고부 02)2004-8213,4

좌천이냐 승진이냐



사람이 나고 죽는 걸 윤회라고 하지만 태어나서 늙는 것도 윤회이고, 사계절이 돌아드는 것도 윤회이다. 물방울이 돌고 돌면서 천차만별로 생명체를 먹여 살리는 것도 윤회이다. 별들의 생성과 소멸도 윤회이다. 일체 만물 만생이 다 그렇게 하면서 산다.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게 아니라 끝간 데 없이 돌아가고 있다. 그러한 윤회의 고리가 없다면 진리라는 말도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죽음과 탄생은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과 같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는데 헌 몸 벗고 새 몸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드물다.

구름이 모였다가 바람 불면 흩어지고, 다시 모였다가 빗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뭇 생명체의 몸 성분이 되었다가 또다시 수증기로 올라 구름이 되듯이 우리 모두는 이 집에서 한 철, 저 집에서 한 철 돌아가며 산다. 그러므로 같이 산다 해서 내 자식, 내 부모요, 따로 산다 해서 네 자식, 네 부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서로 뒤섞여가며 수억겁을 거쳐 왔으니 내 부모, 네 부모, 내 자식, 네 자식 가릴 게 없다.

돌고 도는 사이에 때로는 사람이 새가 되는 일도 있고 새가 사람되는 일도 있다. 마음 씀씀이에 따라 미물에서 고등 동물로, 식물에서 동물로 천차만별 층층으로 오르 내린다. 승진이냐 좌천이냐는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한철 살면서 죽음을 두려워할게 아니라 좌천을 두려워해야 한다. 승진의 길은 불법의 생활화에 있다.

협찬 FC붓다

“한자 교육으로 부처님 법 알려요”

관음종 송광정사, 토요스쿨 부산교육청 우수기관 지정


매주 토요일 무료 한자 교실을 운영하는 송광정사는 부산교육청의 우수기관으로 지정됐다.

동북아 시대에 꼭 필요한 언어 중 하나는 바로 ‘한자’다. 주요 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이 모두 한자문화권에 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자 교육은 동북아 시대를 이끌 인재에게는 꼭 필요하다.

부산 연제구 관음종 송광정사(주지 진각)의 학생들을 위한 한자 교실은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1월 17일에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이 발굴·시상하는 ‘2012 지역사회 토요스쿨 우수기관’에 지정됐다.

부산유스호스텔 아르피나에서 진행된

40개 우수기관 중 유일 사찰

매주 무료 한자교실 운영

2006년부터 시행…지역민 호평

이날 시상은 지난해부터 전면 자율 시행하고 있는 주5일 수업제와 관련, 지역사회 토요스쿨 활성화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평가는 프로그램 실적, 참여 현황, 프로그램 수준, 수행 능력, 운영 의지 등 총 5가지 항목으로 이뤄졌으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색 있는 토요스쿨을 운영한 40개 기관을 지정했다. 불교계 복지기관으로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두송종합사회복지관 등이 선정됐으며, 사찰은 송광정사가 유일하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지정된 송광정사의 ‘동북아시대 인재육성을 위한 한자교실’은 2006년부터 7년 동안 지역 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매회 15명 안팎의 어린이들이 자발적으로 한문교실에 동참하고 있으며 한자 전문 지도사 2명을 유급 강사로 채용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이번 토요스쿨 지정에 대해 주지 진각스님(관음종 부산종무원장)은 “불교의 교리를 많이 공부하고 한 가지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 보다는, 교리 공부가 부족해도 자비실천이 생활화 되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라며 “한자를 배우러 온 아이들이 한자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심이 피어나길 기원한 것이 이렇게 좋은 결과로 만들어졌다”고 소감을 밝혔다.

스님 역시 국가공인 한자 1급 자격증을 소지해 한자 교육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진각 스님은 “한자 교실에는 한글도 채 익히지 못한 미취학 아동들도 많지만, 이 아이들도 조금만 교육하면 곧잘 한자를 쓸 수 있게 됐다”며 “초기에는 산만해 좌정하지 못했던 한 학생은 국가공인한자 1급 자격증 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교육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051)867-8438

박경수 부산지사장

“정각 이룬 부처님 유지 이어받자”

조계종 부산연합회, 13일 성도재일 연합 법회


부산聯 성도재일 법회 장면

조계종 부산연합회(회장 수진)가 성도재일을 맞아 부산 벡스코에서 기념법회를 열고 시민 불자들과 함께 성도의 축하와 기쁨을 함께 했다.

1월 13일 봉행된 제2회 성도재일 기념법회에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보성 스님(송광사 방장), 수불 스님(부산불교연합회장·범어사 주지),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 혜총 스님(전 포교원장), 원택 스님(조계종부산연합회 고문),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해 사부대중 1,500여명이 참석했다.

수진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성도재일을 맞아 우리 모두가 전법사가 돼야 한다. 그것만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고, 부모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회에서는 2부 행사로 불교교리 퀴즈 대회인 ‘제2회 도전 범종을 울려라’가 진행됐으며, 퀴즈대회는 3인1조로 총 55개팀, 165명이 참가했다.

한편, 이날 법회 주최 측은 자비나눔 성금 1,000만원을 허남식 부산시장에게 전달해 그 의미를 더 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받은 만큼 이웃에게 돌려주고자”

용호복지관 어르신 재능기부 ‘훈훈’



용호복지관 어르신 재능기부 현장

1월 17일 부산용호복지관(관장 이춘성)에서는 뜻깊은 재능기부행렬이 이어졌다. 평소, 복지관의 도움을 받아오던 어르신들이 저체온증으로 죽어가는 빈곤국의 신생아들을 살리기 위해 재능기부를 했다.

이들은 노인자살, 노인우울증을 해결하기 위해 부산용호복지관에서 시행중인 ‘참된 삶’ 프로그램에 동참했다가 ‘재능기부’를 결심하게 됐다. 이번 재능기부에 동참한 노인들은 총 15명으로 37개의 모자를 손수 만들어 복지관에 직접 기부했다.

(051)628-6737 박경수 부산 지사장

고운사 청소년 문화탐방


고운사 문화탐방 실시

고운사(주지 호성 스님)는 경북 북부지역 저소득층 자녀 40명을 대상으로 1월 14일~16일까지 ‘제6회 장학금 전달식 및 서울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이들은 국회의사당과 KBS를 견학하고 KBS 열린음악회 관람 등 1박 2일 동안 문화탐방을 성료했다. 또 이들에게는 각각 30만원의 장학금도 지급됐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말고 나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 열심히 노력하라”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운불련 성승길 회장 취임

1월 14일 동화사서

한국운전자불자연합회대구지역회 제13대 성승길 회장 취임식이 1월 14일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열렸다.

이날 성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회원화합을 통해 대구 운불련을 세계 최고의 호출택시로 만들겠다”고 했다.

성승길 신임 회장은 지난해 9월, 13대 대구 운불련 회장에 당선됐으며, 올해 1월부터 3년 임기를 시작한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눈치우기’ 사찰도 적극 나서야

최근에 눈치우기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눈이 내린 올 겨울, 눈을 치우지 않아 도로가 빙판이 되는 바람에 차량사고는 물론 보행자들이 미끄러지면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들이 줄을 이었다고 한다.

눈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준 선물이었다. 어린 시절 밤새 내린 눈을 보고 마음이 들떠 아침밥도 먹지 않고 동네를 서성이던 추억, 동네 꼬마친구들과 눈사람을 만드느라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즐거워했던 추억, 눈 내리는 거리를 연인과 팔짱을 끼고 하염없이 걸었던 추억, 창밖으로 내리는 눈을 보며 친구나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쓰던 추억… 등등.

그러나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눈이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주는 선물이라기보다는 출근길을 걱정하게 만드는 원인이요, 잘못해서 낙상이라도 하게 되면 병원신세를 져야만 하는 두려운 존재가 되고 말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이 오면 자기 집 앞의 눈을 동네사람들이 힘을 모아 치우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눈이 내려 빙판이 되든 말든 관심을 가지지 않는 몰인정한 사회가 되어버렸다. 이런 세태를 반영이라도 하듯 서울시에서는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으름장이다.

산사에서 눈 내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그야말로 행복한 일이었다. 어떻게 산을 내려갈지 걱정하기 보다는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눈을 보며 환희심을 가졌던 기억이 아련하다. 스님이 쉬고 가라며 방을 내주면 염치없이 하룻밤을 지내는 호사를 누리기도 했다. 따뜻한 방에서 마당에 눈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사랑하는 이를 떠올려보는 것은 불자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산속 깊은 곳에도 차량통행이 많아지면서 산길 역시 눈을 치우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위험성이 늘어나게 되었다. 더구나 걸어서 산사에 가는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눈이 쌓여 빙판이 되면 걷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물론 도심사찰의 경우에는 불자들의 사찰출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이나 불편함은 산사에 비길 바가 아니다.

올 겨울 다른 해에 비해 눈이 많이 올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가 있었다. 사찰이라고 해서 눈치우기를 소홀히 하여 사찰에 오는 불자들을 힘들게 한다면 이타행을 실천하라는 부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일이 될 것이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산사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숲길도 눈을 치우지 않으면 위험한 길이 된다. 전라북도 ㄴ사찰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책임 시공합니다.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찬덕불교 www.chanduk.com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홍은사


윤장대 인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찬덕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 98원/1kwh



※ LED 전구 :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고해를 품은 관세음보살 남해를 바라보고…

〈苦海〉



② 해수관음도량…남해 보리암(菩提庵)

"관세음보살."

힘들어 고단할 때. 깊은 한숨과 함께 그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중생이 아니리라.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風磬)처럼 늘 중생의 입에 걸려 흔들리는 말, 관세음보살. 어둠에서 깨는 날까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날까지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상주리 금산 남쪽 봉우리엔 관세음보살의 도량이 있다. 푸른 남쪽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해수관음도량이다. 양양의 낙산사, 강화의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수관음도량이다.

보리암은

683년(신문왕 3) 원효 스님이 이곳에 초당을 짓고 수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 그때 암자의 이름을 보광사라고 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이곳에서 왕조를 열기 위해 백일기도를 올렸다. 태조는 원이 이루어진다면 산을 비단으로 감싸겠다고 서원했다. 조선의 임금이 된 태조는 약속을 지켜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해서 산의 이름은 금(錦)산으로 바꿨다고 한다. 태조는 조선왕조를 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1660년(현종 1) 절을 왕실의 원당으로 삼았고, 절 이름을 보리암으로 바꾸었다. 1901년과 1954년에 중수했고, 1969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국의 3대 기도처의 하나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보광전, 간성각, 산신각, 범종각 등이 있고, 문화재로는 보리암전 삼층석탑(경남유형문화재 74)이 있다.

보리암에 가려면

대중교통은 남해터미널까지 간 다음, 보리암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면 된다. 승용차는 보리암 제1주차장에 차를 놓고 보리암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셔틀)를 이용하거나 제2주차장까지 간 다음, 걸어가는 방법이 있다. 제1주차장에서 제2주차장까지는 약 3km 정도이고, 제2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는 약 1km이다. 제2주차장은 공간이 적어 일찍 올라가지 않으면 주차하기 어렵다. 제2주차장에서부터는 걸어야 한다. 약 15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걷고 싶은 길'로 선정된 '남해 금산길'이다.

보리암에 가면

보리암이 있는 금산과 보리암은 '남해 12경' 중 제1경이며, 금산 31경이다. 금산 산기슭 작은 벼랑 끝에 앉아 있는 보리암은 그 자체가 절경이다. 금산과 보리암을 바라보는 것도 절경이지만 해발 680m의 보리암에 올라 내려다보는 남해의 풍경 또한 절경 중의 절경이다. 보리암에 가면 무엇보다 평소에 볼 수 없는 절경에 취할 수 있다.

도량에 들어서면 '산'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보리암은 산기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끝에 있다. 해수관음상이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사바를 고해(苦海)라 했던가. 깊은 한숨과 함께 불렀던 관세음보살. 부처님을 알든 모르든 보리암에 오르면 모두 관음상 앞에 선다. 고해에서 온 우리가 고해를 품은 관세음보살 앞에 서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아도, 조용히 선채로 합장만 해도, 아니 그의 그림자 끝에 서서 그 이름만 불러도 보리암을 찾은 이유와 대가는 충분하고 남을 것이다.

보살님께 합장 한 뒤 뒤돌아서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한 눈에 들어온다. 효도, 애도, 밤섬, 해운산, 목섬, 삼여도 등 징검다리처럼 바다 위에 떠있는 섬들과 상주은모래해변, 천황산 등 육지에서 이어진 풍경들이 남해와 함께 절경을 이룬다.

해수관음상 앞엔 보리암전 3층 석탑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683년(신문왕 3)원효 스님이 절을 세웠을 때, 절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락국 수로왕비 허태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석재로 만든 탑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재 돌은 우리나라 화강암으로 밝혀져 있다. 탑 위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이 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놓는 곳에 따라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문화재 해설사가 설명과 시연을 해준다. 관세음보살 앞에서 '동서남북'은 부질없는 것이었다. 그저 같은 시방세계(十方世界)일 뿐이었다.

보광전과 예성당이 있고, 종각엔 경봉 스님의 글이 새겨진 범종이 있다. 경봉 스님의 글을 풀어본다. "금산의 끝 간 데 없는 경치에 / 하늘가 구름 밖 이 소리 퍼져가네 / 삼라만상이 모두 다를 것 아닐진대 / 한마음 나지 않아 여전히 미명일세"

도량을 둘러보고 나면 도량 위로 남해 금산길이 이어진다. 둘레길을 걷듯 천천히 금산 정상(해발 701m)을 다녀오는 것도 좋다.

해수관음도량이란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도량을 말한다. 특별히 해수관음이라 이름 붙인 것은 해수에다 비유해서 표현된 것으로 바다 중생들이 육지 못지않게 많기에 그 중생들을 항상 피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다를 관(觀)하고 계신 관세음보살을 뜻한다. 하지만 바다 중생만을 구하기 위한 것이란 뜻은 아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보살로서 관세음, 관세자재, 관세음자재 등으로 한역한다. 관세음이란 세간의 음성을 관(觀)하여 자비로써 구제한다는 뜻이다. 또한 중생에게 온갖 두려움이 없는 무외심(無畏心)을 베푼다는 뜻으로 '시무외자'라고도 한다. 세상을 교화함에 있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보문시현(普門示現)이라고 하며, 32가지의 몸(삼십이응신)을 나툰다. 〈법화경〉에서는 "무진의(無盡意) 보살이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냐고 묻자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만약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 갖가지 고뇌를 받고 있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한다."고 했다. **남해 보리암=박재완 기자**



남해12경 중 제1경이며 금산 31경인 보리암에 오르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도량에 들어서면 '산'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보리암 안과 밖 모두 절경이다.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이국적 주택의 독일마을



바람흔적미술관

주변보기

〈절〉

보리암과 함께 남해 3대 사찰로 불리는 화방사와 용문사가 있다.

-화방사(055-863-501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망운산. 쌍계사 말사. 신라 신문왕 때 원효 스님이 창건. 보리암에서 조금 멀다. 약 35km.

-용문사(055-862-442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 호구산. 쌍계사 말사. 신라 애장왕 때 창건. 보리암에서 약 25km.

〈둘러볼 만한 곳〉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055-867-7881)

1998년 개장한 휴양림은 숲속의 집, 잔디마당, 숲 탐방로 등을 갖추고 있다. 2007년부터 숲속수련장을 개장해 학교 단체수련이나 회사 워크숍도 가능하다.

-독일마을(055-867-7783)

1960년대 독일에 간호사나 광부로 갔던 교포들 중 황혼기를 고국에서 보내려는 이들을 위해 조성된 마을이다.

-나비생태공원(055-860-3778)

곤충과 식물 등의 자연생태를 테마로 한 자연학습장인 나비생태공원이다.

-해오름예술촌(055-867-0706)

폐교된 초등학교 교사를 개조해 만든 문화예술공간이다.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 작가들의 작업공간, 전통문화체험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바람흔적미술관(관람문의: 010-2912-1338)

설치미술가 최영호의 사립미술관이다.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입장료와 대관료도 무료다.

〈먹을 곳, 묵을 곳〉

▲묵을곳

남해편백자연휴양림(055-867-7881) 삼동면 금암로 658

힐튼남해골프&스파리조트(055-860-0100) 남면 덕월리 산35-5

스포츠파크가족호텔(055-862-8811) 서면 서상리 1182-9

남해배네치아리조트(055-867-8455) 미조면 송정리 837

남송가족관광호텔(055-867-4710) 삼동면 물건리 5-1

▲먹을곳

상주바다횟집(055-863-5226) 상주면 상주리 543-2

만복초밥(055-864-6801) 남해읍 남변리 370-1

동광장어(055861-2995) 남해읍 남변리 274

대청마루(055-867-0008) 삼동면 동천리 1025-3



희담석 稀潭石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력이며, 제오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만을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맥파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할 것입니다.

2인용 1인용

희담석 온열매트
●1인용 : 58만원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볼 (희담석 60% + 제오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계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크기
1인용 : 100㎝ × 200㎝
2인용 : 150㎝ × 200㎝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사용방법
좌선용, 학생 및 사무용 의자, 소파, 차량 등에 사용하십시오.
희담석 방석은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해야 하는 운전자, 학생, 사무원, 스님 등 수련하시는 분들께 매우 유익합니다.

고급신형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목의 뻐근함을 느끼시는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정 가 66,000원
↓
할인가 56,000원

합장주 35,000원 → 할인가 30,400원
염주목걸이+합장주 SET → 84,000원

숙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베개용 패드

사용방법
베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올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뒷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 아침에 일어나서도 개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25,000원 (황토색)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호 금구빌딩 B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114 서비스] 검색 →
114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생태사회와 불교

불교국가 부탄의 국민총행복 (GNH)

이제 발전 기준은 '생산' 아닌 '행복'





부탄 불교의 동자승들〈사진 왼쪽〉과 부탄 학생들〈사진 오른쪽〉. 불교 국가인 부탄은 경제 발전이 아닌 국민 행복 발전을 국가 목표로 정했다. 실제 부탄의 모든 학생 교복은 국가에서 무상 지급한다.

기독교 국가 잘살고, 불교국가 못산다?

국제사회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측정하는 기준이 뭘까? 그것은 대체로 GNP(Gross National Product)로 불리는 '국민총생산'이나 GDP(Gross Domestic Product)으로 불리는 '국내총생산'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2012년 한국의 GDP는 15위이며 1인당 GDP가 34위로 발표되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지표의 상위로 올라가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것이 곧 선진국이기 때문이다. 이 GNP와 GDP 평가기준의 공통점은 바로 '생산(Product)'을 중심으로 한다는 점이다. 잘살고 못살고, 앞서고(先) 뒷서는(後) 기준은 생산량이 많을수록 선진국인 것이다. 그래서 가난한 나라들도 생산량이 많은 미국, 영국, 스웨덴등의 나라를 닮으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과연 모든 나라가 그 나라처럼 사는 것이 가능할까?

한때 "기독교 국가는 잘 살고, 불교국가는 못산다. 그러니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로 공공연히 선교해온 개신교도 있었다.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다. 오늘 날의 위기는 바로 한정된 지구자원에서 무한정한 생산을 해 온 잘사는 선진국의 소비와 바로 그 생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위기와 절멸의 책임은 바로 선진국에게 더 많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자신들의 탐욕과 과소비의 죄로 인해 초래된 위기에 대해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들처럼 살라는 계몽은 정말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를 모르는 무지의 소치인 것이다. 불행히도 위기의 책임자들은 오히려 피해를 가장 늦게 받고 가난한 사람이 먼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한 세계질서인 셈이다. 사실 그 많은 인구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그 가난 덕분에 잘사는 나라의 과소비와 풍요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왜 모를까?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우선 자원이 무한하다는 잘못된 전제위에 만들어진 경제학의 기초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며, 동시에 생산(Product)중심의 기준과 척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득분배, 여가생활, 환경, 복지 등 삶의 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며 오히려 위기를 초래한 잘못된 기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생태 환경적 가치를 담은 녹색GNP의 개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한다.

불교국가 부탄, 세계의 희망이 되다

1972년 16세의 나이로 불교국가 부탄의 4대 국왕이 된 지그메 싱에 왕추크 국왕은 GNP가 물질적 탐욕을 조장하고 자원과 인간은 황폐화시키고 있음을 깨달았다. 정부와 국민들이 경제적 부를 얻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소수만이 편안한 삶을 살고 있고 반면 사회적 약자들은 고통과 빈곤, 소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돈을 위해 자원착취하면서 환경을 파괴하고 급기야 전쟁과 갈등 대립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회의 경제적인 발전과 개개인의 정서적, 영적 삶의 질을 조화롭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가 중요한 관심이었다.

그는 대안으로 GNH(Gross National Happiness 국민총행복도)를 제안하였다. 그래서 그는 2006년까지 34년간 일관되게 이를 기조로 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20년 전 까지만 해도 이 사례는 세계의 웃음거리였다. 히말라야 산맥 어딘가에 고립되어 세계적 흐름을 모르는 이상한 불교왕국의 정책정도로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세계의 어느 누구도 웃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웃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반성하고 있다. 자신들의 방식이 위기를 불렀고, 갈등과 분쟁을 초래한 것임을 깨닫고는 지금 전세계가 앞다투어 그들의 철학과 사회적 실천을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왕추크 국왕은 국민의 행복이 왕보다 중요하다고 하여 헌법에 기초한 의회민주주의를 도입키로 하고 왕권을 내놓아 평민으로 돌아가 더욱 감동을 주었다.

세계국가들은 '생산'이 척도이지만, 부탄은 '행복'을 척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5대국왕부터 이 정책은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 국민총행복을 위해 네 가지 기본 전략을 채택했다. ①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사회경제발전, ② 생태계의 보전과 회복, ③ 부탄의 전통과 정체성을 실현하는 문화의 보전과 증진, ④ 앞의 세 가지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거버넌스 (協治)가 그것이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의 총체적인 행복과 후생수준을 구성하는 9개의 규범적인 영역을 정했다. ① 심리적 웰빙 ② 건강 ③ 교육 ④ 시간 활용 및 균형 ⑤ 공동체의 활력 ⑥전통과 문화의 다양성 ⑦ 생태다양성 및 복원력 ⑧ 생활수준 ⑨ 좋은 거버넌스가 그것이다. 그리고 72개의 국민총행복 지표를 개발하여 2008년부터 매 2년마다 국민총행복지수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브라질 리우+20 등서 적극 제안된 GNH

부탄 GNP 2012달러로 세계 112위
무상의료와 교육 등으로 빈부 격차 없어
국가별 행복도 조사서 8위 차지
행복 척도…녹색 GNP기준 전환 필요

한국의 1인당 GNP가 23,679달러로 세계 34위인데 비해 부탄은 겨우 2,012달러로 112위 국가로 세계에서 최빈국에 속한다. 그러나 무상의료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왕까지 숲의 나무집에서 살 정도로 빈부의 차이가 없다. 84~98년 14년 동안 평균수명은 19년 늘어나 66세를 기록했고 교사 순환 근무를 통한 평등한 교육기회가 이뤄졌으며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말하는 국가이다.

재미있는 것은 영국 레스터 대학에서 국가별 행복도를 조사했을 때 부탄은 세계 8위를 차지했다. 1, 2위는 덴마크와 스위스, 미국은 23위였고, 재미있게 한국은 102위였다. 한국과 부탄이 뒤바뀐 것이다. 더욱이 재미있는 것은 국토의 60%를 차지하는 숲 보호를 위해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매년 수 천명 선으로 제한한다는 점이다.

2012년 브라질 리우에서 열렸던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 (CSD, 리우 +20)에서 이 국민총행복지수 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였다. 이제 더 이상 GDP개념을 사용하는 세계경제에 희망이 없다는 국제적합의였다. 그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경제적 소득과 실제 삶의 만족도와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프랑스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컬럼비아대학의 조지프 스티글리츠 교수를 의장으로 하는 '경제성과 및 사회적 진보 측정위원회'를 설립, 총체적인 경제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 중이며 캐나다와 영국도 행복지수나 국민행복도를 조사 발표하고 있다.

오래된 미래의 '행복 경제학'

스웨덴의 생태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르 호지 여사가 작은 티벳이라고 불리는 라다크에서 생활하면서 쓴 〈오래된 미래(The Ancient Future) - 라다크에서 배운다〉에서, 산업화가 빼앗아 간 인간의 순결한 속살,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생태사회임을 강조했다. 그녀는 부탄의 GNH에 감동하여 이를 토대로 '행복의 경제학(Economic of Happiness)'을 제안하며 세계를 돌며 계몽하고 있다.

행복의 경제학은 우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로컬푸드 (Local Food)운동을 강조한다. 농업의 지역적 자립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생활협동조합운동(Co-operative : Co-op)이나 생산자협동조합운동(Worker's Collective)을 강력하게 장려한다. 일단 외부세계와 국제사회의 의존도를 줄여야만 폭력적 세계화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에너지도 현재와 같이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의존하는 에너지가 아니라 지역의 대안에너지를 강조한다. 실제 원자력이나 화석연료는 거대한 플랜트이며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방식으로 강력한 중앙 통치를 전체로 한 에너지공급 시스템이다. 풍력, 태양력, 파력, 조력 등의 대안 에너지는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한 에너지 공급방식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적인 사회시스템으로의 조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또한 소셜비즈니스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강조한다. 지역내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아니라 생태적 효율성, 복지와 완전고용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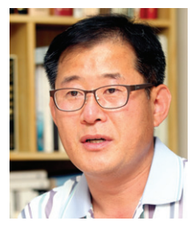
이를 위해 소액대출운동(Micro Credit)을 통한 사회적 기업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고, 지역공동체를 위한 '지역통화운동(Local Money)', '공정무역(Fair Trade)' 등도 강조하고 있다.

부탄의 국민총행복지수는 2년 단위로 조사해 국가정책에 반영한다.

그리고 2008년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립해 국가정책의 계획, 정책결정, 수행과정에 국민총행복(GNH)을 반영하고 모든 국가정책이 국민총행복에 적합한지 스크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금 박근혜 신정부의 인수위원회가 출범하여 활동하는 중이다.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도 이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모든 정책을 재편하여 미래의 희망과 생태적 대안사회의 단초를 만들어 볼 수 없을까.



유정길 (에코붓다 前 공동대표 생태사회 연구소 연구원)

스님과 함께 떠나는
하나투어(VIP여행사) 중국성지순례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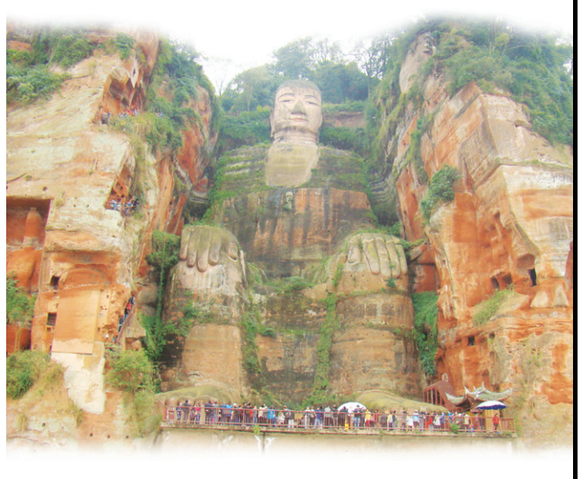
스님, 불자라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3월 29일 출발 : 북경 | 성도 | 아미산 | 낙산
부산 ⇨ 북경 ⇨ 성도(1박) ⇨ 낙산 ⇨ 아미산(2박) ⇨ 성도 ⇨ 북경(2박) ⇨ 부산

불자라면~ 평생 한번은 꼭 가봐야 하는 성지순례
세계 최대 마애불상 낙산대불!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성도의 최고 고찰 문수원!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관광까지....

주요일정 (전일정 현지최고호텔 및 전용버스)

1일(3/29, 금)	북경, 성도
2일(3/30, 토)	낙산 : 소각사, 대자사, 낙산대불, 대불선원
3일(3/31, 일)	보현보살 도량 아미산, 만년사, 금정사, 복호사
4일(4/ 1, 월)	성도 문수원, 아미산 보국사, 소열사, 금리시장, 북경
5일(4/ 2, 화)	만리장성, 천안문, 자금성, 이화원
6일(4/ 3, 수)	북경, 부산



■ 여행 경비 : 1,370,000원
■ 상기일정은 항공 및 현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하나투어)
■ 전화주시면 상세일정 안내 및 세부일정표 보내드립니다.
■ 여권사본팩스, 여행경비 입금 FAX : 055)867-8009

문의 및 접수 : 055)867-2259 / 진주 하나투어 VIP여행사 055)741-9999
후원 : 현대불교신문사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소원성취 인등 및 사리함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크리스탈 인등

A/S 법당 전선 10년 외곽 전선 5년
불제개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1-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 281-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SMD LED전구(정품) 220V용
▶고추전구, 방수전구(정품) (법당용, 외곽용)
▶ 반도체로 되어 화재와 전기소모가 거의 없고 반영구적이다.

공단연등(고리용)



▶연등규격 : 4", 6", 7", 8", 10.5", 13", 20", 30"

건전지 초(행사용) 탑돌이 방생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知行合一' 보궁서 마지 올리며 공부한 '수행자'



方山老의 無影樹 〈2〉

탄허 스님 탄신 100년 증언- 도원 스님

-스님은 탄허 스님과 인연이 제일 많은 스님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일제 말기(1941)에 파계사에 입산해서 은사인 고송 스님을 모시고 3년간 있다가, 글공부 하고 싶어서 간 곳이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그때 다른 곳의 강원은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상원사에는 승려수련소가 있어서 글을 배울 수가 있다고 해서 은사스님이 탄허 스님에게 보내는 추천장 받아서 가게 된 것이지. 우리 노장님은 상원사 한암 스님의 회상에서 탄허 스님과 같이 공부한 터라 탄허 스님을 잘 알고 있었거든. 그리고 은사스님은 한암 스님에게서 법도 받았어요.

- 탄허 스님이 중대에서 장자, 주역을 공부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탄허 스님이 중대로 올라가서 노장을 숙독했다고, 희찬 스님이 말하는 것을 들었지. 중대는 방이 세칸 집이었어. 한 칸은 부엌이고, 한 칸은 부처님을 모시고, 또 한 칸은 지대방이었는데 그 방에는 기도객이 오면 머물기도 했어. 탄허 스님은 보궁에 마지 올리면서 공부하셨지.

- 한암 스님이 탄허 스님을 애지중지 하였다는 말이 있어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와서 한암 스님에게 더러 글씨를 써 달라고 하거나, 서문을 지어달라고 하면은 "나보다 탄허에게 가서 받아 가거라."고 했어. 그래 사람들이 탄허 스님에게 글을 받아 가면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지. 내가 갔을 때에도 한암 스님이 절의 재정관리 같은 것도 직접 챙기다가 탄허 스님에게 넘겼어.

한번은 한암 스님이 법상에서 법문을 하시는데, 고인(古人)의 말을 인용하시면서 법문을 하셨어. 한암 스님은 고인은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고 하자 탄허 스님이 말없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시더니 법상의 한암 스님에게 가서는 '주십시오' 하는 자세를 취했어. 그러자 한암 스님이 당신의 주장자를 탄허 스님의 손에다 던지시더라구. 말이 필요 없는 장면이었지. 사람들이 그 때 일로 탄허 스님이 인가받았다는 말들을 했지.

- 스님은 6.25 이전에 탄허 스님과 함께 통도사로 가셨지요.

그것은 탄허 스님이 곧 전쟁이 날 것으로 보시고, 한암 스님을 모시고 남방인 통도사로 모시고 가려고 한 것에서 나온 것이지. 그러나 한암 스님은 끝내 안가시겠다고 해서 탄허 스님, 보경 스님, 나, 그리고 성도 스님 이렇게 넷이서 통도사로 갔지. 그때가 1949년 봄이었어. 통도사 큰절에 갔는데 절을 바로 안 줘서, 극락암으로 갔어. 나중에 백련암으로 옮겼지.

그렇게 해서 그 해(1949), 겨울부터 비로소 통도사 백련암에서 수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 공부한 대중이 11명이었어.

그때에는 아주 철저하게 공부 위주로 살았어. 밥은 아침에 한번만 하고, 그걸 갖고서 저녁까지 먹었어. 밥을 해서 방의 따뜻한 구들목에 묻어 넣었다가 먹게 했어. 마지는 따로 지어서 올렸어. 된장국을 끓이고, 김치만으로 공양을 했어. 그런데 그 지방 사람들 인심이며 신심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신도들이 쌀을 대두(大斗)로 한두 말씩 올려 주었는데, 그렇게 모인 쌀이 몇 가마가 되었어. 그래 식량은 문제가 없었지. 아침 먹고 공부하고 마지 올리고 공양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고 나서는 울력하고 저녁 먹고 그랬어.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지.

그런 공부를 2, 3년만 더 했으면 큰 성공을 했을 텐데. 나는 그때 탄허 스님에게 본격적인 공부를 처음으로 받은 셈이었지. 그때 탄허 스님에게 전부 강의를 들었어. 그렇게 공부하기를 두 달이 되었을 때에 한암 스님이 위독하시다는 연락이 왔어. 그래서 탄허 스님과 보경스님이 오대산으로 가게 됐지. 그런데 오대산에 올라가시더니 소식이 없었어.

-그럼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탄허 스님으로부터 소식은 없었고, 통도사에서는 소용돌이가 있었어. 경남에서 계엄령이 내렸지. 탄허 스님은 통도사로 오시지 않고, 고양의 도림사라는 절로 가셨어. 나는 통도사에서 나와서 범어사에 가서 비구계를 받았지. 그런데 탄허 스님으로부터 도림사로 오라는 연락이 왔어. 보따리를 싸서 도림사로 갔지.

그리고 얼마 후에 몇몇 스님들과 스님 모시고 흥국사로 갔어. 대처승인 흥국사 노장이 우리와 같이 살자고 해서 그리 갔지. 그런데 흥국사에서 6.25를 만났어. 인민군이 흥국사 일대를 접수하면서 매일 인민군 노래를 부르게 되고, 급기야는 인민군에 입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형편이었어. 같이 갔던 스님이 인민군에 들어가면 위험하니 여기에서 흩어지자고 했어. 탄허 스님은 안 된다고 하셨지만 우리는 흥국사를 나왔어. 그리고 오대산으로 갔어.

- 그러면 탄허스님은 그곳에 계속 계셨나요.



도원 스님(파계사 회주)

한암스님 설법 중 일어나 "주십시오"
스승이 던진 주장자 받으며 인가받아
본인이 손수 번역한 책으로 강의
늘 선정에 계셨던 철저한 수행자

탄허 스님은 그곳에 계시다가 도봉산 원통암으로 가셨어. 그러나 그곳에만 계시지는 않고, 왔다 갔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 나는 성도 스님과 함께 걸어서 오대산 상원사에 와서 한암 스님에게 인사를 드렸지. 상원사에서 하루를 자고는 나왔어. 그리고 태백산으로 떠났어. 그런데 가다가 월정사에서 와운 스님을 만나 그만 월정사에 붙들려 있게 되었지. 추석 때 한암 스님 뵈러 상원사에 갔는데 대중은 모두 중대에 올라가고 스님 혼자 계셨어. 그래서 중대에 올라갔더니 탄허 스님 계시더라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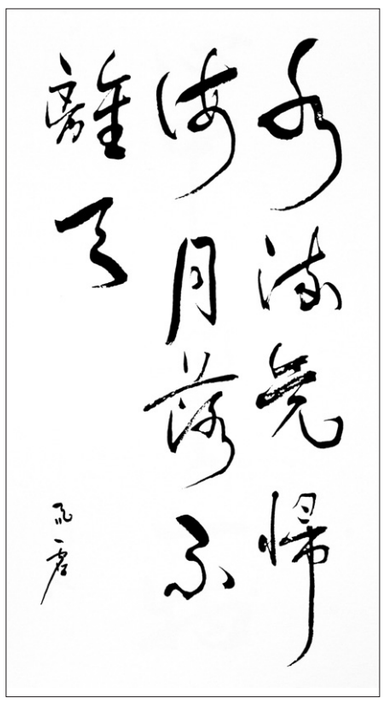
- 탄허 스님은 1956년부터 3년간 오대산수도원을 열었는데, 도원스님은 거기에 참가하지 못하였지요. 그 후 영은사에서 수도원을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영은사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영은사 시절 얘기 좀 해주세요.

3년 정도 공부했는데, 그때 탄허 스님은 교과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번역해 놓은 초발심 자경문 같은 것을 중심으로, 가르쳤어. 당신이 번역해 놓은 것에서 애매한 것은 강의를 듣는 대중들에게 의견을 물어 보시고 그랬어. 너는 이것이 어떤 뜻으로 들리느냐, 혹은 당신이 번역한 것이 어떠냐는 식으로 의견을 물으셨어. 그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보완을 하신 것이지.

스님은 평소에 사집에 〈영가집〉을 넣어서 오집으로 하자고 그랬고, 사교에는 〈법화경〉을 넣어서 오교라고 해야 한다고도 하셨어. 그리고 화엄경은 화엄론으로 하자고 하면서, 이런 것을 교본을 정해야 한다고 하셨지.

- 탄허 스님은 월정사 주지가 되셔서 1963년 가을에 월정사 오셨지요.

그때 희찬 스님이 탄허 스님을 모시려고 방산굴을 새로 지었어. 나는 방산굴을 짓는 것은 못 봤고, 나중에 방에 도배를 했지. 그때 들어갈 때가 겨울이어서 무척 추웠어. 그런데 그때 대처승들이 집달리를 앞세우고 쳐들어와서 난리를 피웠지.



海 歸 竟 流 水
해 귀 경 류 수
天 離 不 落 月
천 리 불 락 월

"물은 흘러 마침내 바다로 돌아가고
달은 떨어져도 하늘을 떠나지 않는다."

물의 본성은 바다이다. 그리고 달(月)은 하늘과 떨어져 있지만 항상 본성[天]을 떠나지 않는다. 물과 바다, 달과 하늘의 관계는 본성(體)과 작용(用)의 관계이다. 〈탄허 스님 친필〉

난리를 겪고 나서 1964년 봄에 나는 병이 나서 강릉의 병원에 입원을 했어. 나는 그때 폐병 말기였어.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공부를 하고, 소임을 보고 그랬던 것이지. 그 무렵에 대중들은 탄허 스님에게 능엄경 강의를 듣고 그랬지만, 나는 참석하지 못했어. 병원에서 8, 9개월을 치료받다가 나와서 오대산에 와 보니 강의가 중단되었어. 오대산 강원은 문을 닫은 것이지.

- 탄허 스님을 모신 스님으로서 탄허 스님의 정체성을 말씀해주세요.

탄허 스님에 대해서 당시 선방에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스님은 아직도 상투가 덜렁덜렁 한다고 그랬어. 그 말은 스님이 유교적이라는 말이지. 그래서 절집 강사도 어렵고, 선비 테를 못 벗었다고 그랬어.

그러나 내가 스님을 모셔본 견지에서 보면, 탄허 스님은 철저한 수행자셨어. 스님은 초저녁에 주무시면 밤 12시, 새벽에 일어나서 밤새도록 주무시지 않았어. 그리고 스님을 모시고 어디를 가면, 스님은 절대 방심하시는 것이 없어. 늘 선정(禪靜) 상태로 계셨지. 항상 선에 천착하셨어. 남들은 스님을 강사라고 하지만, 스님은 유불선을 통달한 학자였어. 경율론에 능통하셨잖아. 거기에 유교까지 겸비하였으니 호랑이가 뿔까지 단 격이지. 또한 노장도 얼마나 해박해. 노장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스님에게 와서는 절절 맸지. 관응 스님이 일본에 가서 노장을 배워 와서는 당신이 최고라고 여기다가, 탄허 스님을 만나보니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느꼈다는 그런 말이 있지.

탄허 스님은 일상에서도 글, 경전에 대한 것만을 말씀하셨어. 그리고 전적으로 종지(宗旨)를 갖고 하셨어. 스님은 유불(儒佛)이 다른 것이 아니다, 도(道)의 입장에서는 같다, 다만 교화 방법이 다르다고 하셨어. 다시 말하지만 내가 모셔서 아는 것으로는 그 당시 스님은 방심이 절대 없으셨고, 수행 중심으로 사셨어. 그리고 편벽한 분이 아니셨어. 스님은 두루 많은 것을 아시면서 그것에 대한 종지를 갖고 있었지. 하여간에 스님은 선교(禪敎)를 겸했어.

- 탄허 스님의 평소 어록을 소개하신다면.

스님은 말끝마다 하신 것이 경전, 종지입니다. 스님은 도를 벗어난 분이 절대 아닙니다. 스님은 항상 지행합일(知行合一)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어. 말과 행실이 일치되지 않으면 수행도 안 되고, 도를 닦을 수 없다고 하셨어. 어쨌거나 앞으로는 그런 스님(탄허)을 만날 수 없어. 스님은 유불선을 회통하셨고 스님의 속 살림살이는 조그마한 것에도 구애 받지 않으셨어. 사람들은 스님의 껍데기만을 보고 판단하기도 했지만 스님의 속을 알게 되면 스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어요.

- 탄허 스님은 명예 욕심이 있었나요.

탄허 스님은 간혹 강원도 종무원장, 오대산 수도원장, 월정사 조실 같은 이름을 가지셨지만 그것은 본의가 아니고, 그저 이름만 갖고 있었지 명리(名利)에 급급하시지 않았어.

다만 이런 에피소드는 있어. 스님이 평소 민족 통일, 국가 장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서 사람들이 "탄허 스님은 장관감이고 그중에서도 국방장관이야."라고 말하곤 했다는 것을 당신이 자랑삼아 이야기 하신 적은 있지.

- 스님들 교재의 전체를 현토, 역경, 출간한 것은 어떻게 보시나요.

나는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신 전 총무원장 지관스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 그 이상 잘된 것이 없다고 했지. 지관 스님은 탄허 스님의 현토는 전래 강원의 토를 전부 뒤집어서 새롭게 한 것이라고 했지. 영은사 시절에 그것으로 공부했지. 스님은 "안진호본에서는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문맥을 다듬고, 종지의 입장에서 뜻이 합일되는 것을 따지고 했지. 그때 스님과 우리들은 토론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한암스님의 금강경의 토도 많이 고쳤어요. 그것을 영은사에서 주로 하고, 그 이후에 월정사에 가서도 하셨어.

- 탄허 스님의 글씨를 신필(神筆)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스님의 글씨는 독특하고, 필체가 살아있지. 내가 스님에게 공부를 어떻게 하였냐고 물어보았어. 최면암의 직계 선생인 이극종을 만나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했다고 했어요.

스님은 매일 한문으로 시 한편을 짓고, 한문으로 일기를 썼다고 했어. 그리고 4서3경을 전부 한문으로 쓰다시피 하였는데 글씨가 늘지 않을 수가 없지. 당신은 글씨를 숭상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글씨가 좋을 수밖에 없었어.

- 탄허 스님의 정신, 학문이 계승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스님의 학풍, 가풍이 오대산 월정사에서 구현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최근에는 혜거 스님이 스님을 이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대담: 김광식 동국대 교수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

만사형통 소원성취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

부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내리신 영험의 비방이 옴마니반메훔 육자대명왕진언으로 항상 외우고 간직하면 모든 문제가 놀랍게 해결된다고 설하셨다. 옴마니반메훔은 부처님 영험으로 중생들의 갖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신속히 해결하고 승리하게 해주신 영험의 진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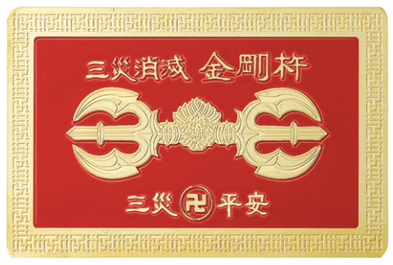
남성용 여성용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해결 된다는 옴마니반메훔을 마음속으로 흠모하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신통하게 묘한 일이 일어나 해결된다. 금장시계 앞면에 동서남북에서 복이 들어오며 만사형통하게 육자대명왕진언 "옴"자를 넣었고 고통과 역경이 와도 승리하며 소원성취하는 행운의 법구가 금장시계 뒷면에 부착되어 있다. 모든 일이 신통하게 잘 풀리는 육자대명왕진언 옴마니반메훔 금장시계는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며 고급무브먼트와 고급문자판을 사용하고 방수처리와 금장처리한 금장시계로 선물로도 품격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가 격 : 남성용 75,000원 / 여성용 7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전 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2013년 양띠 토끼띠 돼지띠 드는삼재 조심

삼재소멸과 닥쳐올 삼재화를 미리 쫓는 영험 삼재소멸 금강저



삼재무탈하게 축원불공마쳐
삼재화를 소멸 승리하는 비방

2013년 드는 삼재 2014년 묵는 삼재 2015년 나가는 삼재 양띠, 토끼띠, 돼지띠 중생들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삼재기간으로 각별히 조심하고, 공덕을 쌓으며, 자중 자애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좋다. 지난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기간 중에 삼재화로 건강으로 고통 받고 삼재관재수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며, 삼재액운으로 사업이 어려워지고 재산을 소진하며, 가정이 파탄되고 하는 일마다 뜻대로 되는 일이 없으며 갖가지 어려운 고통 속에 삼재화를 당하는 중생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아왔다.
양띠, 토끼띠, 돼지띠 생들은 드는 삼재가 제일 어려운 시기이므로 자만심을 버리고 비방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가에서는 삼재기간 중 삼재화와 삼재액란을 소멸하는 비방으로 불자들에게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또한 삼재기간 중 삼재소멸 비방을 잘하고 자중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중생들도 많이 있다. 금니로 제작된 삼재소멸금강저는 삼재기간 중 무사무탈하고 승리하게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마치고 전화로 신청하면 금강저를 보내 드리며 지갑 속에 평생 넣고 다니면 된다.
가 격 : 45,000원
전 화 : (02)741- 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이상하



남성용 반지갑

여성용 장지갑

※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

평생부자지갑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물연법을 중요시 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는 지갑은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복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소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잘 꾸며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금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장지갑 98,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예금주 : 이상하

마음을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해
〈3〉



한마음 깨치면 부처

황벽스님이 배휴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은 한마음일 뿐, 다른 어떤 법도 없다. 이 마음은 본래부터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푸르지도 않고, 누렇지도 않다. 형체도 없고, 모양도 없다. 있고 없음에 속하지도 않는다. 새롭다거나 낡았다고 헤아릴 수도 없다. 길거나 짧지도 않다. 크거나 작지도 않다. 모든 한계와 계량 그리고 이름과 언어를 넘어서 있다. 모든 자취와 상대성도 초월한다. 당체 그대로일 뿐, 한 생각이 일어나면 곧 어긋난다.

오직 한 마음일 뿐, 더 이상 다시는 다른 법이 없다! 이것이 바로 양변을 떠난 중도인 것이다. 양변이 있으면 중간도 있을 텐데, 양변을 떠나고 중간이라고 할 것도 없는 이것, 중도를 올바로 깨달으면 생사를 해탈하는 데도 걸림이 없다. 이 도리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중도의 이치를 밝혔다고 말할 수 있다. 황벽스님이 '이 마음은 본래부터 생긴 적도 없고, 없어진 적도 없다.' 고 한 부분도 역시 중도를 설명한 것이다.

생각이란 움직이면 곧 어긋나 버린다. 즉 '이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 확인하기 위해 한 생각 움직이면, 마음에 그림자가 일렁거려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만다는 뜻이다. 그러나 사실 마음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마음에 미혹의 그림자가 덮여서 무명에 떨어진 것뿐이다. 마음이란 무명에 덮였든 그렇지 않든, 깨달은 사람이나 깨닫지 못한 사람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똑같이 가지고 쓰는 것이다. 그러나 알고 쓰느냐 모르고 쓰느냐에 따라, 그 차이는 매우 크다.

한 생각 돌이켜 미혹의 그림자를 제거할 근거를 바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즐겁고 편안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근본 자리에서의 즐거움이란, 때때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세속적인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다. 마음을 알고 인연 따라 순리에 어긋나지 않는 입장에서 시간을 보내야지, 항상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 지낸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행동은 없을 것이다.

이것은 마치 허공과 같아서 끝이 없으며, 가히 재어볼 수도 없다.

사람의 마음이란 종잡을 수가 없어서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또 무엇이 마음인지 그 한계를 설명할 수가 없다. 무한정이라 할 수도 없고, 한계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음이란 어떤 것일까? 스스로 깨닫기 전에는 결코 알 수 없는 이 마음! 한 생각 돌이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치에만 머물고 집착하면서 스스로 마음을 안다고 착각하니, 이는 곧 자신을 속이는 바보 같은 행위다.

이 한마음 그대로 부처일 뿐, 부처와 중생이 새삼 다를 바가 없다.

'이 한 마음 그대로가 부처다.' 이 말은 이치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 자기의 마음자리가 불(佛)이라는 것을 깨닫는 돈오(頓悟)의 입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황벽스님이 이런 직언을 들려주는 배경에는 이미 배휴가 돈오를 체험한 입장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래서 근본당체를 그대로 드러내 보였다. 배휴는 규봉종밀과의 인연으로 이미 선법에 상당한 지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 깨달음을 체험하지 못하다가 황벽스님과의 첫 만남에서 안목이 바뀌었던 것이다. 결국 그는 황벽스님께 귀의하여 자신의 공부됨을 드러내고 가르침을 구했다. 우리는 황벽스님의 귀한 법문이 이런 상황에서 설해졌다는 것을 이해하고 읽어야 할 것이다.

중생은 다만 모양에 집착하여 밖으로 구하므로, 구할수록 더 잃는다. 부처로 하여금 부처를 찾게 하고 마음으로 마음을 붙잡는다면, 겁(劫)이 지나고 몸이 다할지라도 바라는 바를 얻을 수 없다.

대부분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형상에 집착하고 분별한다. 그 사람의 진실한 내면을 보지 못하고, 이러쿵저러쿵 작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어리석은 마음으로 사람에게 다가가면 갈수록, 진인(眞人)은 나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다. 부처를 찾는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한데 부처로 하여금 다시 부처를 구하려고 애쓰게 한다면, 이 어찌 허망한 일이 아닐 수 있겠나? 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찾는 어리석은 짓을 하면, 세월이 다하고 이 몸이 다해도 끝내 얻지 못할 것이다. **범어사 주지**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53



내 이제 무슨 물건으로 담무갈보살에게 공양해야 할까?

〈소품(小品) 반야바라밀경〉

돈을 금기시 하는 불교

돈과 성(性)! 결국 이것인가, 싶다. 서양의 현대를 공부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마르크스와 프로이트의 힘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을 파헤쳤고, 프로이트는 인간의 심리 안에 잠자고 있는 어두운 심연(深淵)을 해명해 냈다.

이 두 사람을 빼고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는 없게 되었다. 적어도 서양에서는 그렇다. 그런 그들이 내놓은 답이 '돈과 성' 이다. 마르크스는 돈을 제외하고서는 인간을 말할 수 없다 했고, 프로이트는 성을 제외하고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 없다 한 것이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공히 중시한 힌두교를 생각한다. 힌두교에서 설정한 인간 삶의 목표 네 가지 중



그림 · 박구원

에서 둘째에 성이 자리하고 있고, 셋째에 돈이 자리하고 있다.(첫째는 의무, 넷째는 해탈이다.) 힌두교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가치를 다 구현하는 것, 성과 돈에 대한 인간욕망을 다 이룩하는 시기를 가주기(家住期, 가정생활기)라 했다.

다 알다시피,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가주기를 건너뛰었다. 그것이 바로 출가이다. 그래서일까. 불교에서는 성과 돈이 다 터부(taboo)가 된다.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禁忌)인 것이다. 이 중에 성은 스님들이 독신을 지키고 있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돈은 왜 금기시하는 것일까? 왜 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조차 천박한 것으로 치부되는 것일까?

그 대신, 불교는 아주 '정신' 적인 것으로만 말해지는 감(感)이 없지 않다. 그럴까? 불교는 정신주의, 내지는 유심론인가? 유물론이라 주장하고 싶어서, 나는 이런 말을 시작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인간존재를 온전히 한 덩어리로 파악하지 않고서 '정신적인 것' 과 '물질적인 것' 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야말로 불교가 넘어서고자 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가치관이야말로 비불교적이라 말해야 한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사실 '이중적' 임을 면치 못하는 것 같다. 속으로는 돈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도, 겉으로는 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야 교양 있는 사람으로 대접받는 풍토(風土) 탓일까? 어차피 자본주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실상 어떤 경제체제가 되더라도, '돈' 이 중심이 되는 한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돈 이야기, 물질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 돈 이야기가 곧 탐욕이야기라 생각하는 것은 단견(短見)이다.

돈은 공양의 도구

여기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한 청춘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살타파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구도자였다. 경전은, 아예 보살이라 불렀다. 허공으로부터 날아온 목소리를 듣는다. 동쪽으로 가면 진리를 들려줄 스승을 만날 것이다. 그러니 동쪽으로 가라는 것이다. 좋다. 길을 떠나자. 그는 결심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빈털터리다. 동쪽에서 만나는 스승이 가르쳐줄 진리는 돈에 대한 것이 아니니까, 돈을 초월한 것일 터이니, 빈손으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 스승의 이름이 담무갈보살이다. 그 스승에게 무슨 물건으로 공양을 올려야 할 것인가, 그는 목하(目下) 고민 중이다. 마침내 내린 그의 결단은 '심장이라도 팔자, 골수라도 팔자' . 이것이 그의 신심이고, 그가 복을 짓는 방법이었다. 물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의 결심에 감동한 제석천이 돕고, 어떤 장자의 딸이 도왔다.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 혹시, 우리 스스로의 욕심을 채울 재물을 다 갈무리해 두고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정신적인 것"이니까, 부처님께 물건으로 올리는 공양은 생략해도 된다고,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과연 우리는 나를 위한 돈이 아니라, 부처님께 올릴 공양을 위하여 고민한 적이 있는가? 힘들어 하고 있는가?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주성원의
기초 교리 〈48〉

깨닫기 위한 필수 조건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
④ 오근(五根) · 오력(五力)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할 때, 혹은 사람을 고용해서 그 일을 시키고자 할 때에 흔히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자신, 혹은 피고용인이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질문제일 것이다. 예컨대 유치원선생님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주는 우선 지원자가 이 직업이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살피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는지를 먼저 볼 것이다. 그 다음 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초심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지, 매순간 집중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지, 상황에 맞게 적절한 판단력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할 것이다. 이러한 자질이야말로 훌륭한 유치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필수조건이기 때문이다. 불교의 목표인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의 자질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질도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다. 깨닫기 위한 필수조건으로서의 이 자질을 원시불교에서는 오근(五根)과 오력(五力)으로 설명한다.

오근(五根)이란 신근(信根) · 정진근(精進根) · 염근(念根) · 정근(定根) · 혜근(慧根)의 다섯 가지 수행능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근이란 이 다섯 종류의 수행을 해 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눈[眼] · 귀[耳] · 코[鼻] · 혀[舌] · 몸[身]의 감관능력인 안(眼)등의 오근과 구분해서 신(信)등의 오근이라고도 한다. 이 중에 신근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 것이다. 신근이 오근의 첫 번째에 위치한 것은 불교의 모든 실천 수행도가 이 믿음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정진근 또한 신근의 믿음에 기반 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염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 잊지 않는 것을 말하고 정근은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매사에 집중하는 것이다. 마지막의 혜근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혜로서 통찰하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 자질은 말하자면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수행의 자질이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미혹한 세간에서 깨달음의 출세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근을 처음 입문한 수학자의 수도법이라고도 한다.

오력(五力)은 오근이 다섯 가지 수행의 능력인 것에 비해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작용하는 다섯 가지 수행의 힘을 의미한다. 오근과 동일한 종류의 수행에 근 대신 력을 붙여서 오력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오력의 수행항목은 오근과 마찬가지로 신(信) · 정진(精進) · 염(念) · 정(定) · 혜(慧)의 다섯 가지이고 오근에서 더 나아간 수행도 라고도 할 수 있다. 오근과 오력의 관계는 원시경전에서 강의 상류와 하류로 비유된다. 방향에서 보면 상류와 하류는 강물의 도착지인 바다와의 거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지만 강물의 흐름의 입장에서 보면 상류든 하류든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동일한 강물일 뿐이다.

또한 오근이나 오력은 삼십칠보리분법(三十七菩提分法)의 다른 수행항목과 마찬가지로 서로 독립적인 수행도이다. 즉 다른 수행도와 관계없이 오근만으로도 부처님의 열반, 적어도 소승불교 수행의 최고 경지인 아라한과에는 다다를 수 있다. 삼십칠보리분법의 각 항목은 열반을 증득하기 위한 독립적인 수행도이지 단계적 수행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열반이라는 목표, 혹은 이상을 향한 지향능력이자 작용하는 힘인 오근 · 오력은 삼십칠보리분법의 다른 수행도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 오근 · 오력 중에 염과 혜는 마음에 되새기고 집중하는 사념처로 나아가고 정진은 사정근이라고 하는 향상하고자 하는 노력의 방법론으로 나아간다. 정은 향상하고자 하는 마음의 기반인 사신족으로 나아간다.

오근 · 오력이라고 하는 자질로서의 능력과 작용으로서의 힘이 사념처(四念處) · 사신족(四神足) · 사정근(四正勤)이라고 하는 실천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 목표가 세속적이든 종교적이든 기본자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日 용곡대 불교학석사 · 前 본지기자

본원종 부설 불교의식대학
범음범패 제 8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입 교 식 :** 2013년 3월 2일
▣ **수업일시 :** 주 1회 매주 목요일 오후 2시~6시
▣ **교육내용 :** 기초 도량석, 종성, 아침, 저녁, 예불, 거불, 복청게, 요잡바라, 도량게, 다게작법, 49재 및 천도재, 각단 불공 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불교의식에 관심있는 스님과 행자 재가불자.
▣ **교육장소 :** 서울 종로구 평창동 417-3 본원종 총무원
▣ **수 강 료 :** 월 일십만원 (100,000)

접수문의 : 02)391-4376. 010-9993-6340

※ 시간은 본교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사)한국불교 금강선원 학인모집 안내

-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
불교통신대학 · 대학원
◆학 장 : 서무선

발심을 하고도 시간상, 거리상 제약으로 부처님 공부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없는 불자들을 위해 통신과정을 마련하여 각자의 근기에 따라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통신교재가 준비되어 있다.

◇통신대학 :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각 6개월 과정 - 2년)
◇통신대학원 : 경, 율, 론, 선, 밀교 (대학원 - 각 1년 과정)
◇원서 접수 및 교부 : 수시접수

- 강원 교육 -
나란다삼장불교대학
◆학 장 : 성 덕

강원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심자를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모집학과 :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각 6개월 과정)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개 강 : 2013년 3월 5일 화요일
◇교 수 진 : 활안 한정섭스님, 호암스님, 서무선박사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외
◇출가수행, 사암,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출가 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완비
* 우수학인 장학금 지급

- 범패 · 작법무-
불 교 예 술 대 학
◆교 수 : 해 사

불교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교육하는 불교예술대학에서는 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해사스님을 교수로 초빙하여 불교예술의 진수를 배울 수 있다. 불교예술의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자하는 학인들의 좋은 기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강의내용 : 사물다루는 법 등 기초의식교육
◇원서교부 : 2013년 1월 15일부터
◇수업시간 :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6시
◇개 강 : 2013년 3월 8일 금요일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1동 51-14 www.kumgangnet.com 전화 02)969-2410, 969-4981 / 팩스 02)964-2433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초의의 금강산 유람에 도움 준 추사

초의스님의 금강산 유람은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1838년 봄, 유람 길에 오른 그가 제자 수홍과 함께 지은 〈유금강산시(遊金剛山詩)〉에는 장중한 금강산의 기세를 '첩첩이 산이요, 굽이 굽은 물길이라(山萬疊兮水萬重) 첩첩한 산, 굽이 흐르는 물, 황홀히 뵌 하늘을 가릴 듯(重重疊疊帶隱隱) 라고 노래했으며, '안개이슬 구름으로 옷을 만들고(霧露雲霞作衣裳), 서리 맞은 꽃잎으로 식량을 대신하리라(霜花雪葉充享糧)' 고 했다. 선경(仙境)을 유람하던 그가 추사에게 보낸 비경(秘境)의 감회는 남다른 의미를 지녔을 것이라 짐작되지만 애석하게도 초의의 편지는 한 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금강산 유람을 함께하지 못한 추사의 편지만이 그의 문집과 〈주상운타첩〉에 남아 있다. 〈(완당전집)〉·〈여초의〉9신에 수록된 편지는 이렇게 시작된다.



〈주상운타〉 추사의 친필편지

금剛瓶鍋粮飄颻借 甚可喜也 師之所到 此身亦到 師之不到 此身亦不到 欲以名相求我 何以見我也 歸心如矢 不可發也 尙以此身不知一金剛耶 雖大熱大寒不見此身決不可經歸 第須住定 住定勳念則三十棒耳 此來小童 不能勝二斗米 期間須更送一力 以爲運糧也 何以空喫廢惠也 都留不次即 勘具

금강산에 간 그대는 오래된 벚을 통째로 갉았으니 매우 기특할만 합니다. 그대가 (금강산)간 곳은 이 몸 또한 간 것이고, 그대 가지 않은 곳은 나도 가지 않은 것입니다. 名相(명상: 눈과 귀로 보고 듣는 것)으로 나를 찾고자 한다면 어떻게 나를 볼 수 있겠습니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화살처럼 빠르지만 떠날 수가 없으니 오히려 이 몸이 한번 금강산에 가는 것만 못할 겁니다. 설령 매우 덥거나 춥다해더라도 나를 보지 않고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또는 선정에 들었다가, 선정 중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삼십 방을 맞을 뿐입니다. 여기에 온 어린 동자는 쌀 두 말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 사이에 다시 인부를 보내서 식량을 운송토록 하세요. 어떻게 공(空)으로 남은 은덕을 먹겠습니까. 이만 줄입니다.

중국의 속언에 '중국인들은 고려국에 태어나 금강산을 직접 보는 것이 소원이다' 고 한 것을 통해 금강산의 명성은 조선뿐만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회자되었던 경승지였다. 조선시대 금강산 유람기는 정곤수(1538~1602)의 〈(금강록(金剛錄))〉와 이정구(1564~1635)의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김창협(1651~1708)의 〈(동유기(東遊記))〉가 있다.

특히 조선 후기 경화사족들 사이에서 초의의 금강산 유람은 상당한 화젯거리가 되었다. 그는 지금의 경기도 양평과 철원을 지나 강원도의 회양을 거쳐 내금강산으로 들어가, 비로봉과 구룡연, 만폭동을 유람했을 것이라 짐작된다. 그의 〈유금강산시(遊金剛山詩)〉에 '서로 만나서도 묘길상에게 절하지 않네(相逢不拜妙吉祥)' 고 한 점으로 보아 만폭동 계곡의 묘길상을 참배했음이 분명하다.

금강산의 아름다운 승경(勝景)을 벗과 함께하지 못했던 초의, 못내 아쉬워하는 그의 마음을 알아차렸던 추사였기에 '그대가 간곳은 이 몸 또한 간 것이고, 그대 가지 않은 곳은 나도 가지 않은 것이라' 고 하지 않았던가. 언제나 그대가 있는 곳엔 나도 함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부친을 여읜 죄인의 몸이었던 추사였으니 유람 길에 오른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은 화살처럼 빠르지만 떠날 수가 없는'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가 행간에 오롯이 나타난다. 더구나 초의의 금강산 유람은 몇 번이나 계획했던 일이었던가. 비로소 실현된 유람이었기에 '금강산에 간 그대는 오래된 벚을 통째로 갉았다' 고 축하한 것이다. 또 추사의 '설령 매우 덥거나 춥다하더라도 나를 보지 않고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고 한 엄포는 살가운 아들의 정회를 드러내기에 족하다.

한편 '여기에 온 어린 동자는 쌀 두 말을 감당할 수 없으니 그 사이에 다시 인부를 보내서 식량을 운송토록 하세요' 라고 한 추사의 증언이 눈에 띈다. 이는 바로 초의의 금강산 유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인물이 추사였음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문화재 환수 설득

혜문 스님(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

2011년 12월 6일 인천공항에서는 조선 전통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의전행사를 펼치고 있었다. 경술국치 100년을 맞아 조선왕실의궤가 고국으로 돌아온 것. 조선왕실의궤 환수는 조선시대 의궤 보관을 맡았던 평창 월정사를 비롯해 조계종 중앙신도회 등 불교계와 시민단체, 한 · 일 국회의원 등 수많은 이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한 중대한 일이었다.

이 사건의 중심에 바로 혜문 스님이 있었다. 2006년 조선왕실의궤환수위원회 출범에 산파역할을 하고 이후 사무처장으로 환수에 큰 역할을 한 혜문 스님. 스님은 도굴대를 상대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조선왕조실록' 을 찾아오고, 일본 왕궁에 직접 들어가 조선왕실의궤를 목격한 뒤 반환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후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으로 문화재 환수운동과 국내 문화재 오류 바로잡기 운동가로 분주히 활동하고 있는 혜문 스님을 1월 10일 서울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실에서 만났다.

스님을 만난 날은 스님의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사리 반환을 위한 미국 출장 전날이었다. 스님은 자리에 앉자마자 고소장을 내밀었다. 문화재제자리찾기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보스턴미술관 라마탑형 사리 구관련 결정처분 취소를 요구한 소장이었다.

환수를 앞두고 주관부처를 상대로 고소라니 의문이 들었다. 스님은 "문화재청이 사리장엄구와 함께 반환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아 사리 반환이 무산될 처지라 어쩐 소송을 제기한다" 고 설명했다.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은제 라마탑형 사리구는 13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돼 양주 회암사와 개성 화장사에 있었으나 알제강점기 일본 도굴꾼이 미국으로 밀반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리구에는 부처 진신사리와 지공 · 나옹 스님의 사리가 함께 모셔져 있다.

스님은 "사리구 전체 반환을 반대하는 보스턴 미술관을 종교 신물임을 들어 사리만 먼저 반환하는 것으로 설득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이 향후 사리구 반환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분리 반환을 반대해 반환 자체가 무산될 상황" 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문화재 환수에 있어 우호적 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하기에 정부를 대신해 시민 · 종교단체들이 나서는 것이 아니냐" 며 문화재청의 입장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문화재 환수는 구도의 길에 비유된다. 대부분의 국외소재 문화재는 도굴 등으로 인해 반출 된 것. 불법적인 경로가 아닌 이상 환수는 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달려있다. 돌려주려는 마음조차 없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은 끊임없는 노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저런 상황변화가 일기 때문에 환수 일을 벌이기가 쉽지 않겠다" 고 말을 건네자 "돈keun운동도 정부가 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결국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 며 크게 웃었다.

그렇다면 스님이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스님은 '환지본처' 라고 딸막하게 답했다.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기 까지 그 모든 과정이 수행의 과정과도 같기에 수행자로서 문화재 환수 일이 운명처럼 다가왔다는 말이었다.

"자기 자리를 잃어버린 중생에게 본래의 자리를 되찾아주는 것이 불교의 진리입니다. 저는 문화재 환수운동이 불교사상을 사회화하는 과정이며 또 다른 수행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님은 다시 문화재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털어놨다. 성균관대 사학과를 졸업한 스님은 흥선대원군에 관한 졸업논문을 썼다. 대학원에서는 고전문학을 전공했으며 사법시험 준비를 하다가 1998년 봉선사 철안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3년간 봉선사 조실인 월운 스님을 시봉했다. 대강사인 월운 스님에게서 배운 한문과 불교경전은 문화재 환수운동에 큰 도움이 됐다. 부산 해운정사 선방에서 안거에 드는 등 수행하던 스님을 2003년 은사인 철안스님이 불렀다.

"2003년 은사 스님인 철안 스님께서 남양주 봉선사 주지로 부임하셨습니다. 은사 스님은 불교문화재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은사 스님께서 봉선사 말사 중 27개 전통사찰에 대한 문화재 현황 파악을 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멸실된 문화재 상황이 드러나며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어요."

먼지가 가득쌓인 서류를 조사해가며 토지, 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에 스님은 문화재 관리에 나서야 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과정에서 현등사 3층석탑에 봉안되어 있던 사리구가 도난당한 뒤 삼성문화재단에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했다.

스님은 "현등사 사리구가 삼성미술관 리움에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며 "자연스럽게 그 유통경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흘어진 문화재를 제자리로 되돌리려는 '제자리 찾기' 운동이 시작됐다" 고 설명했다.

스님은 도난품임을 알고도 삼성이 구입했다면 범적 ·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옛 현등사와 지금 현등사는 다르다는 것이 이유로 패소했다.

스님은 이에 굴하지 않았다. 스님은 현등사가 한국전쟁 당시 불타지 않은 유일한 사찰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때마침 사리를 흡수했는 사람도 나타나자 삼성문화재단은 현등사 사리구를 조건없이 돌려주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현재 사리구는 현등사에 봉안돼 있다.

이후 스님은 국외에서는 문화재 환수, 국내에서는 문화재 제자리 찾기로 활동을 이어갔다.

본격적인 계기가 된 것은 2004년부터다. 스님은

2003년 은사 스님 도우며 문화재 관심
리움 소장 '현등사 사리구' 첫 성과

일본 유학서 우리 문화재 보며 울분 느껴
국민염원 '조선왕실의궤 환수' 중심 역할

50건 국내 문화재 오류 바로 잡고
미국, 일본, 중국서 문화재 찾아올 것



보스톤 미술관의 라마탑형 사리구 조사장면

수행과 같아"



혜문 스님은 … 1998년 남양주 봉선사에 철안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2001년 부산 해운정사 금모선원에서 진제 스님을 모시고 수선안거를 한 이래 봉선사에서 정진했다. 2004년 일본 교토 유학 중 '조선왕조실록' 이 도쿄대에 소장돼 있음을 확인한 후 '조선왕조실록환수위' 를 구성, 반환운동에 앞장섰다.
2006년 9월 '조선왕실의궤환수위' 를 조직해 4년에 걸친 운동을 전개, 일본 정부로부터 1205점의 문화재를 반환받게 했다. 그 외에도 6 · 25 전쟁 당시 미군 병사가 약탈했던 '표범카펫' 의 행방에 문제를 제기, 60년 동안 박물관수장고에 있던 것을 찾아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문화재제자리찾기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혜문 스님에게 향후 남은 과제가 무엇인지 물었다. 스님은 "50가지 오류를 바로잡아야 하는데 지금까지 10가지밖에 못했다" 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스님은 특히 일본에 있는 우리 문화재 중 도굴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종의 갑옷과 투구 반환이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스님은 "조선시대 대대로 내려오던 임금의 투구가 일본에 있다는 것은 나라의 군대가 싸울 때 적에게 깃발을 뺏긴 것과 같다. 나라의 위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도 고종의 갑옷과 투구는 꼭 반환돼야 한다" 고 강조했다.

스님은 국내의 문화재 제자리 찾기에 대해서는 청와대 내의 석등이 일본식으로 돼 있는 것을 바로잡고 광화문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이 중국 갑옷과 일본도를 차고 있는 문제도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조선왕실의궤도 원소장처인 오대산 제자리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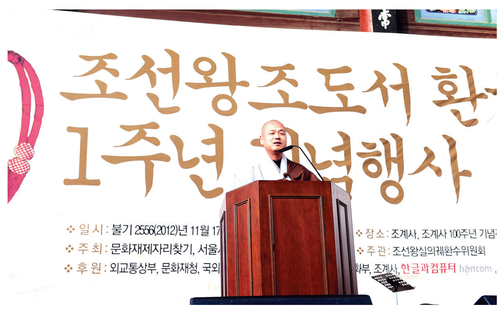
국의 환수는 앞서 말한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실 투구와 갑옷, 보스턴미술관의 라마탑형 사리장엄구, 중국 뤼순박물관의 금강산 장안사 고려범종 환수를 중심으로 활동할 것을 밝혔다.

일본, 중국, 미국을 넘나드는 활동에 그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까. 스님은 수행하는 마음으로 진행하다보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스님은 "시민단체 문화재제자리찾기도 회비 없이 자원봉사로 운영되고 있다" 며 "돗이 있고 행하는 바가 정당하면 일은 이뤄지기 마련" 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문화재 환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환수가 합법적이고 정당한가에 대한 것" 이라며 "정의에 대한 진정성을 상대방이 공감할 때 문화재는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하루하루 기도하는 마음으로 반환운동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저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믿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요."

글=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사진=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조선왕실의궤환수 1주년 기념행사에서 의의를 밝히는 혜문 스님

전법일기

"절에 다니면서 개과천선했어요"

불심이 불러온 변화

2012년 12월 31일 저녁, 부석사 해넘이해맞이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사람들이 다담(茶談)자리에 함께 했다. 찻물이 식기를 기다리면서 참가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기소개 및 참가동기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다.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던 우리 절 신도부부 차례였다. 부인이 먼저 간단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그 첫마디가 상당히 놀랍고 충격적인 말이었다.

"저는 부석사에 다니면서 개과천선했어요."

순간 참석자들이 당황스러워하며 약간의 동요가 있었다. '개과천선(改過遷善)' 단순하게 보면 지난날의 잘못을 고쳐 착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말을 쓸 때는 그 지난 잘못의 정도가 매우 심할 경우에 사용하고 보통의 경우 참회나 반성 정도의 말과 많이 달라졌다는 정도로 표현하곤 한다.

"하하, 표현이 너무 심하신 것 아닌가요?"

"아니에요, 개과천선 맞아요." 결에 있던 남편도 그 표현이 지나치지 않다고 동의를 했다.

사연을 들어보니 자신의 기대와 달랐던 결혼의 시작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지내왔고, 그로 인해 스스로와 가족들 모두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왔다고 했다. 그래서 화투도 치고 술도 마시며 바깥으로 다니며 가정에 사랑과 믿음을 주지 못했고, 남편과 딸들에게 착한 부인도 좋은 엄마도 아니었다. 오죽하면 남편이 교회라도 나가보라고 권하기도 해서 교회도 다녀보았지만 마음의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찾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그림 · 박구원

마음속 불만으로 외유한 어머니
기도 시작하며 가족에 기쁨 줘
딸도 본받아 지역봉사에 나서

부부싸움을 할 때면 부인이 하도 시시콜콜 따지곤 해서 남편이 비망록을 적어서 부부싸움에 대비하기도 했단다. 그런데 절에 다니면서부터 부인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절에 다녀오면 얼굴표정이 좋고 말도 따뜻해지고 태도도 부드러워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절에 기도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열성껏 다니고 신심이 있는지 가족들에게 큰 위안과 기쁨이 되었다고 했다. 다닫자리에 함께 한 사람들에게 잠시 당혹스러움을 주기도 했지만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즐거운 자리였다.

그렇게 해를 넘기고 2주가 지나서 그 불자님 가족들이 다함께 절에 왔다. 3년간 캐나다에서 유학을 마치고 막 귀국한 큰 딸을 스님께 인사시키려고 온 것이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유학을 마치고 왔다는 큰 딸과 치과에서 일을 하는 둘째딸은 둘 다 키도 크고 인물이 좋았다. 또한 성격들도 침착하고 밝아서 과거 어머니로 인한 어두운 그늘을 볼 수 없었다.

딸들도 절에 다니면서 찾아온 엄마의 변화에 놀라움과 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저희 엄마가 이렇게 변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너무 신기하고 기뻐요." "하하, 따님들이 이렇게 밝고 예쁜걸 보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보니 어머니가 변한게 아니라 본래의 모습을 찾았다고 봐야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머니가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었을까요."

큰 딸은 피아노 전공자이고 유학을 통해 영어실력까지 갖춰온 재원인데 외지로 가지않고 부모님과 함께 서산에 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지역의 청소년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에 시간을 낼 수 있겠냐고 권해보았더니 흔쾌히 그러겠다고 대답을 하였다. 불자님 부부도 기쁘기 짝을 때마다 절일을 돕고 봉사에 힘을 보태곤 했는데 착한 딸까지 합류를 하게 되어 부처이나 든든하였다. 이 가족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합니다.



주경 스님(서산 부석사주지)

WORLD BUDDHISM LEADER

나라와 종단 어느 승가를 불문하고
전 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들이 역시 그 분이라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는
불교의 최고 어른을 선정하여 모시고자 준비하는

세계 법왕 및 승왕 추대 추진위원회
세계 불교 지도자 500인 선정 발기 협의회
불교계 고승 및 원로 추대
(종사, 대종사 급만 동참 가능)
*법하께서도 추진위원회 발기인으로
활동하시겠습니까?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스님 누구나 동참 자격이 있습니다.

종단불문, 법납, 속납까지 불문하여
세계불교 고승 및 원로로 모시게 됩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승가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불교의 대 변화와 개혁을 이루는
초석이 되어 보십시요
한평생 부처님의 은덕으로 수행해온
큰스님들께서 앞장서 후학들에게
무언의 가르침을 행으로 보여 주신다면
불교사에 새로운 역사와 기운이
샘솟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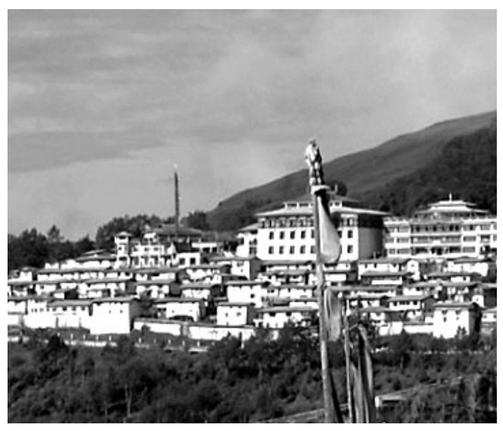
■ 서 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 소개서
■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 鐸 - 慧 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733-5671

삼환양초는 향료를 사용하지 않고
100%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com
자연의 향으로 을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강화사자밭약쑥양초
① 약쑥초 90cm×90cm
② 약쑥초 연봉 원기둥 7.0ℓ×34cm
③ 약쑥초 돈타래 5.6ℓ×27cm
④ 약쑥초 밀대 4.7ℓ×25cm
⑤ 약쑥초 1호 5.9ℓ×18cm
⑥ 약쑥초 2호 5.9ℓ×14cm
⑦ 약쑥초 3호 4.7ℓ×13cm
⑧ 약쑥초 4호 4.7ℓ×10cm
⑨ 약쑥초 4호 반아심경 4.7ℓ×10cm
⑩ 약쑥초 3호 반아심경 4.7ℓ×13cm
⑪ 약쑥초 2호 반아심경 5.9ℓ×14cm
⑫ 약쑥초 1호 반아심경 5.9ℓ×18cm
⑬ 약쑥초 밀대 전사지(반아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래 전사지(반아심경,연화,호랑이,용)
⑮ 약쑥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아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한봉밀납양초
① 밀납초 90cm×90cm
② 밀납초 연봉 원기둥 7.0ℓ×34cm
③ 밀납초 돈타래 5.6ℓ×27cm
④ 밀납초 밀대 4.7ℓ×25cm
⑤ 밀납초 1호 5.9ℓ×18cm
⑥ 밀납초 2호 5.9ℓ×14cm
⑦ 밀납초 3호 4.7ℓ×13cm
⑧ 밀납초 4호 4.7ℓ×10cm
⑨ 밀납초 4호 반아심경 4.7ℓ×10cm
⑩ 밀납초 3호 반아심경 4.7ℓ×13cm
⑪ 밀납초 2호 반아심경 5.9ℓ×14cm
⑫ 밀납초 1호 반아심경 5.9ℓ×18cm
⑬ 밀납초 밀대 전사지(반아심경, 연화)
⑭ 밀납초 돈타래 전사지(반아심경,연화,호랑이,용)
⑮ 밀납초 연봉 원기둥 전사지(반아심경,연화,금호랑이,금용)
새개념 크리스탈 받침, P.C컵 밀납초
삼성화재 생산물 화재 배상 책임보험 1억원 가입
• 도자기 인등
• 인등용 파라핀 오일 : 국내산 원액 / 제조 - 삼환양초
원기둥나비
New 꽃과 나비
3×6연꽃나비A
3×6연꽃나비B
노랑 연두 백색 핑크 환타 주황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전화 031)766-0242~3
팩스 031)766-0233
소비자무료전화 080-0766-8888

티베트계 인도스님들, 환경법회 열어

'티베트불교 뿌리' 타왕(Tawang) 보존하고자





인도 최대 사원인 타왕 사원의 전경(왼쪽 사진). 이곳에 댐이 건설되려 하자 타왕 사원 스님들이 환경 법회를 봉행하는 등 반대여론을 주도했다. 공사 현장 촬영에 나선 스님이 곤봉에 맞은 모습이다.

인도와 중국 간의 영토 분쟁으로 세간에 알려진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Arunachal Pradesh) 주(州)의 타왕(Tawang) 지역이 이번엔 '댐 건설 찬반 여론' 으로 세간의 이목을 붙잡고 있다.

특히 인도 최대 사원으로 알려진 타왕 사원의 스님들이 건설 현장에서 환경 법회를 봉행하는 등의 댐 건설 반대 여론을 주도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고 美 불교월간지 트라이시클(tricycle.com)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정부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거쳐 지난해 말 인도 굴지의 전력회사인 CESC(Calcutta Electric Supply Corporation)와 6100kwh 규모의 수력발전 시설을 구축할 계약을 체결하고, 타왕 지역의 브라마푸트라(Brahmaputra) 강에서 댐 건설에 들어갔다.

문제는 인도와 티베트 간의 불교전래 전초지였던 타왕 지역의 고대 불교유적이 댐의 완공과 함께 대부분 수몰 위기를 맞아야 하다는 점이다.

"타왕 지역은 인도불교의 정점이자 티베트불교의 뿌리"라고 전제한 롭상 갸쵸(Lobsang Gyatso · 타왕사원) 스님은 "타왕사원의 스님들은 인도와 티베트의 고대 불교 성지와 세간의 발길을 피하며 제 자리를 지켜온 불교유적이 무모한 개발로 훼손되고 사라지는 것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타왕 지역은 티베트에 불교를 전래한 티베트불교계의 성인 파드마삼바바(Padmasambhava) 스님의 오랜 주석처가 있고, 중국정부의 탄압의 표적이 되었던 6대 달라이 라마인 창양 갸쵸(Tsang Yang Gyatso)의 탄생지도 있다는 연유로, 매년 수많은 스님과 불자들이 순례하고 있다.

댐이 건설되면 이곳 모두 수몰될 전망이다. 이는 스님들이 환경 법회에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도 국립수력공사 NHPC(National Hydro Power Corporation)와 아루나찰 프라데시 주경찰의 반발이 거세다.

주경찰는 환경 법회를 불법 집회로 규정, 곤봉을 휘두르고 최루가스를 살포하는 등 무력 진압을 시도하고 있다. NHPC은 취업과 복지 혜택을 약속하며 타왕 지역주민의 환경법회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

"환경 법회는 주정부의 강경진압으로도 결코 중단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 롭상 갸쵸 스님은 "고대 티베트불교의 산실인 이곳 타왕의 지역주민 모두 독실한 불자"라고 강조했다.

5대 달라이 라마의 대규모 건축 불사와 적극적인 포교에 힘입어 불심을 키워온 타왕 지역의 주민들은 마을 곳곳에 산스크리트어로 부처님 가르침을 써놓은 깃발을 꽂고, 집에는 탕가를 걸러놓고 하루에 3번 기도를 할 정도로 돈독한 불심을 가졌다.

이곳의 중심은 타왕사원에는 300여명의 스님들이 공부하고 있다. 이 중에는 1~3년을 기한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동자승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타왕 주민들이 세 명의 아들을 낳으면, 막내는 무조건 사원으로 보내는 전통을 지금까지 지켜왔기 때문이다.

한편 불교환경단체인 SMRF(Save Mon Region Federation)은 최근 자료를 통해 "공사 현장 촬영에 나선 스님이 곤봉에 맞아 실신했고, 법회를 원천봉쇄하는 과정에서 10여 명이 연행됐다"며 타왕의 심각성을 알리며, 세간의 관심을 유도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유네스코가 주목하고 있는 타왕의 불교유적과 유네스코 지정 야생보호구역 마나스(Manas) 일대의 수몰 위기 상황이 유감스럽다"며 "이곳을 '위험 지구' 로 분류 ·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종욱 편집위원

"한국 불상의 아름다움에 반했어요"

대영박물관 한국실서 신라 불상 화판에 옮겨



대영박물관 한국관 입구에 있는 통일신라 불상을 런던대 미술학도인 에이리양이 진지하게 스케치하고있다.

"한국 불상은 다른 아시아 불상보다 조각성이 우수하고 아름다워 직접 그리며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세계 3대 박물관중 하나인 대영박물관 한국관에서 만난 에이리(런던대 미술학과 2년)는 구랍 12월 24일 2시간째 한 자리에 서서 불상을 스케치북에 열심히 담고 있었다. 표정도 자못 진지하다. "처음에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꾸 쳐다보며 그리다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면서 신비감이 들어요. 앞으로 대영박물관에서 좀 더 다양한 한국 불상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런던시 블룸스버리에 위치한 대영박물관은 세계적으로 희귀한 고고학 및 민속학 수집품들을 소장하고 있다. 3층 67번실에 자리한 한국관은 2000년 11월 한 · 영 양국간의 교류 200주년을 기념해 396.72㎡ 규모로 신설됐다. 한국관에는 불상과 탱화, 청자, 백자, 회화작품 등 통일신라부터 조선 후기까지의 미술품 250여 점을 전시중이다. 이외에도 전통기와집에 사랑방도 꾸며졌는데, 이는 고건축 전문가인 신영훈씨가 한국서 공수해 온 재료로 만든 것이다. 이 한국관은 한 독지가의 기부에 의해 시발점이 됐다. 1995년 독립 전시관 없이 한국의 유물 몇 점만 있는 대영박물관을 보고 충격 받은 한광호씨가 1997년 대영박물관에 100만 파운드(약 16억원)를 기부했다. 대영박물관 큐레이터 다니엘씨는 "예전보다 한국관을 찾는 관람객 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다양한 전시품이 없어 잠깐 머물고 가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신라시대 불상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머물며 특별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대영박물관=김주일 기자

우명주 박사의
암베드카르와 현대 인도불교 〈4〉



"사람을 짐승 취급하는 인도의 힌두교 어떻게 믿겠는가"

개종선언 이후의 반응과 새 종교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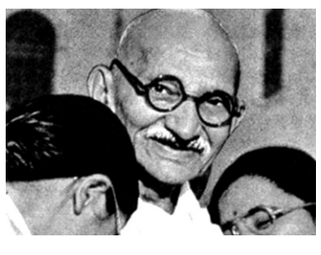
힌두교를 버리고 새 종교로 개종을 하겠다는 암베드카르의 발언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한 불가촉천민 단체는 암베드카르의 개종결심을 '위험한 움직임' 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암베드카르와 같은 카스트에 속하는 한 불가촉천민 운동가도 그의 의도가 수상쩍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마하트마 간디는 매우 격렬하게 개종에 반대했다. 암베드카르와 간디는 개종선언이 있기 전에 이미 만난 적이 있었다. 불가촉천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암베드카르는 불가촉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타당한 권리를 얻고 정치적인 힘을 얻는 것이라고 보았으나 간디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종교적 박해로부터의 보호라고 주장했다. 이런 간디의 온정주의적 태도에 실망한 암베드카르는 첫만남에서 "선생님, 저는 조국이 없습니다. 우리가 개나 고양이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고 마실 물도 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제가 나의 조국이라고 부르고 그런 나라의 종교를 나의 종교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라며 울분을 토했다.

간디는 불가촉천민들이 힌두교를 떠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못했다. 암베드카르가 주장한 불가촉천민만의 분리선거구를 반대했던 것도 그렇게 되면 불가촉천민들이 힌두교에서 분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런데다가 암베드카르의 개종선언까지 나오자 간디와 암베드카르 사이의 불화는 더욱 심해졌다.

암베드카르의 개종선언이 있은지 이틀 후 간디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 성명에서 간디는 "종교는 의지로 바꿀 수 있는 집이나 옷이 아니다. 그것은 육체보다는 정신의 필수불가결한 한 부분이다. 세상물정도 모르고 무지한 수많은 불가촉천민들은 좋든 나쁘든 자신들의 삶이 상위 힌두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암베드카르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며 개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또한 간디는 다른 자리에서 "불쌍한 불가촉천민들은 이성도 지성도 없으며 신과 신이 아닌 것의 차이점조차 모른다. 한 개인이 모든 불가촉천민들을 다 데리고 간다고 말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그들이 이 건물에서 저 건물로 옮겨질 수 있는 벽돌인가?"라며 암베드카르의 집단개종을 비난했다.

개종에 대한 이런 간디의 비난은 카스트 제도에 대한 그의 견해에서 나온 것이었다. 간디는 불가촉천민제도를 '인류에 대한 범죄' 또는 힌두교가 속죄해야 할 '죄' 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결코 카스트 제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카스트 제도를 바탕으로 했기에 인도 사회가 지금까지 존속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마하트마 간디

"불가촉천민 이성 · 지성도 없어"

VS



암베드카르

"카스트제도 자체가 문제의 근원"

간디는 카스트 제도에 따른 계급분류는 유지하되 그 안의 계급들이 서로를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불가촉천민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냉대를 몸소 겪은 암베드카르에게 그것은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보일 수 밖에 없었다. 그는 힌두교와 힌두교가 만들어낸 카스트 제도 자체가 문제의 근원이며 그 안에서는 불가촉천민들의 해방을 위한 어떤 길도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개종을 결심했다. 간디를 비롯한 상위 카스트 힌두들이 암베드카르의 개종계획에 반대하는 동안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며 암베드카르에게 접근해왔다. 그 의도는 당연히 암베드카르와 그의 지지자들을 자신들의 종교로 개종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슬림 지도자 고바는 그에게 전보를 보내 그와 불가촉천민들을 환영한다고 말하며 그들에게 종교적, 사회적 평등과 권리를 제공해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암베드카르는 이슬람교에 그리 호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는 인도의 이슬람교에 힌두교와 유사한 형태의 카스트 제도와 불가촉천민제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이슬람교에서 행해지던 여성차별은 힌두교의 사회악 못지않다고 생각했다.

암베드카르는 기독교에서도 같은 문제를 발견했다. 특히 남인도에서 일부 불가촉천민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들은 교회 안에서 불가촉천민들을 따로 앉히는 등 기존의 기독교인들에게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암베드카르는 외부에서 들어온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인도 내에서 발생한 종교 중 하나인 시크교에 큰 관심을 가졌다. 시크교 측에서도 큰 환영을 표하며 불가촉천민들에 대한 평등한 대우를 약속했다. 그는 조카와 아들을 시크교 사원으로 보내 시크교를 연구하도록 하고 시크교로 개종하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모색했다. 그러나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였던 시크교로의 개종도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는 개종절차와 새로 생길 조직의 통제권에 대한 이견 때문으로 보인다.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모집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3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작법(바라춤,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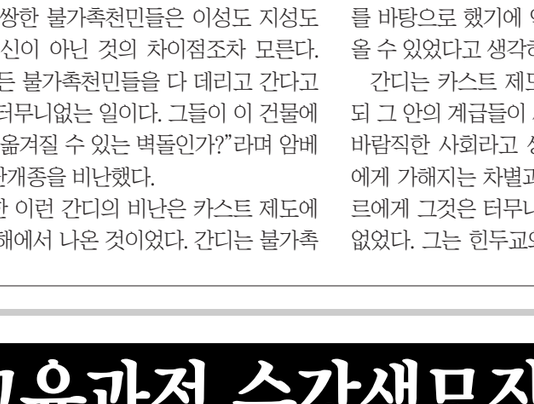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신중작법39위,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다. 강 주 : 석법운 스님, 월봉 스님

2.개강식 및 수업일시
■ 개 강 식 : 2013년 3월 4일 (월요일)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 5시
(사정에 따라 요일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신당동 1804-5번지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무원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1-544-26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2013
2013(불기 2557)학년도 서울 금강불교대학
신 입 생 모 집 안 내

본 대학은 한국 불교중흥과 불교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국내 최고의 교수진을 초빙하여 운영하는 불교교양대학입니다. 입학의 문은 신도뿐만 아니라 불교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과과정안내

과정		기간	교과목	요일	자격	시간	서류 및 전형방법	인원	수강료
불교학과	1학년	2년	불교입문, 부처님생애 대승불교, 불전개설	월	불교에 관심 있는 분은 누구나 응시 가능	· 1교시 : 18:30 ~ 19:50 · 2교시 : 20:10 ~ 21:30	· 입학원서1부 (5,000원) · 반명함판사진 2매 · 1차 서류, 2차 면접	약 200명	20만원 (1년 10만원씩)
	2학년		천태불교학 중국불교, 법화경 Ⅰ · Ⅱ	화	본교 초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법사과		1년	선사상, 유식사상천수경, 정토사상 화엄경, 포교방법론	수	본교 중급과정 수료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	· 1교시 : 18:00 ~ 19:20 · 2교시 : 19:30 ~ 20:50 · 3교시 : 21:00 ~ 22:20	· 지원서 1부 · 반명함판사진 2매 · 서류전형	약 100명	50만원 (한 학기25만원)

원서접수

원서교부				접수 및 면접 장소 · 일시	위치 및 교통
우면동 관문사 : 02.3460.5300		평 택 법장사 : 031.655.9090		• 접수 : 2012년 11월 19일(월) ~ 2013년 2월 15일(금) 18시까지 • 면접 : 2013년 2월 16일(토) 오후 16시 • 장소 : 관문사 2층 금강불교대학 ※ 합격자는 면접 후 개별통보	• 서초구 우면동 56번지 관문사 2층 서울 금강불교대학 → 전화) 02.576.6401 •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 → 마을버스 18번 • 2호선 강남역 8번 출구 → 지선버스 3412번 (LG연구소, 우면AP, 관문사에서 하차)
신 촌 성룡사 : 02.336.2052		수 원 용광사 : 031.255.4105			
봉천동 명락사 : 02.889.7272		구 리 금성사 : 031.563.9364			
구 로 명화사 : 02.854.0196		안 양 대안사 : 031.459.3666			
망우동 삼룡사 : 02.496.3803		안 산 월강사 : 031.419.5048			
성 남 화성사 : 031.745.1482		부 천 천화사 : 032.671.5353			
일 산 화성사 : 031.905.2912		군 포 상락사 : 031.392.0924			

서 울 金 剛 佛 敎 大 學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56 대한불교천태종 우면산 관문사 2층 TEL 02)576-6401 / FAX 02)574-1541

"차 한 잔 마신 뒤에 마신 걸 생각하고, 찻잔을 생각하겠는가. 주면 마시고 마셨으면 비워 놓는게 그대로 생활이다."

聖鐘社 SUNG JONG SA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聖鐘社

● 전시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a.co.kr / E-MAIL : sungjongsa@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 광 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버렸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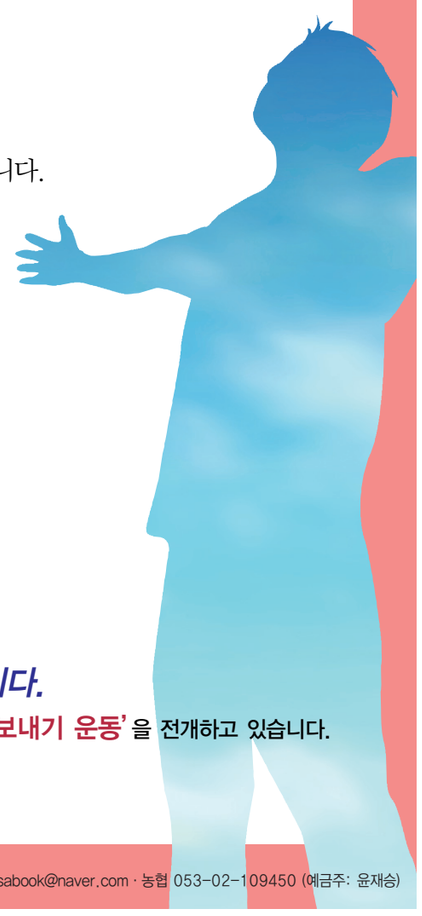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즐거운 병영 생활 마음수련 지침서!

어떻게 2년을 지내는 것이 현명할까?
나를 억압하는 시간이 될지, 나를 단련하는 시간이 될지 그것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은 부처님 말씀에 근거하여 즐거운 병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분들에게 꼭 읽어볼 것을 권합니다.

- 입영통지서를 받고 불안하고 초조한 청춘
- 군 생활이 힘들고 괴롭게 느껴지는 장병
- 군 생활 2년을 알차게 보내고 싶은 장병
- 장병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싶은 가족, 친구, 연인

군법당에 『군인과 함께하는 청춘 동행』을 보냅시다.

군법당은 모두 143개 입니다. 군 포교 활성화를 위해 '1법당 300권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다립니다.

고명석 글 | 176쪽 | 9,000원 | 사륙판(125×187mm)

민족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세상 끝에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나에게 행복을 주었다.

세상의 끝에서 만난 스님의 말씀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곳,
세상의 끝 히말라야에서 날아온 스님의 편지.
책장을 넘길 때마다 펼쳐지는
온전한 삶의 지혜가 답답한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것이다.

기막히게 아름다운 아침의 꽃이라도
해가지면 시드나니,
멍리 사람들이여,
당신의 육신에 너무 많은 희망을 걸지 말라.

The Hundred
Verses of Advice



파담빠 상게 · 딜고 켄체 린포체 지음, 고수연 옮김
256쪽 | 13,000원 | 사륙판

법륜스님의 즉문즉설, 그 해답의 기준은 금강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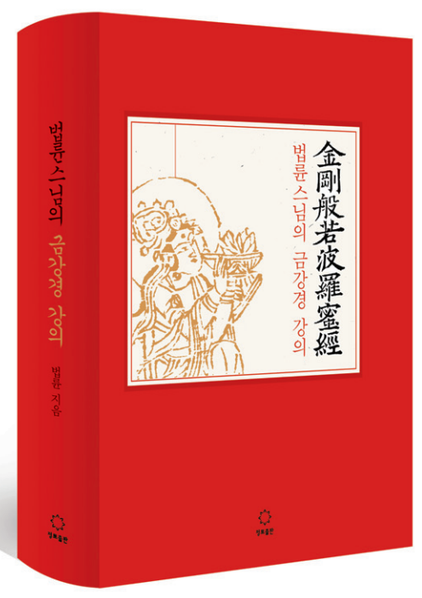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최상의 가르침

인생의 목표는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내 삶의 기쁨을 앗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금강경에서 부처님의 지금 이순간,
괴로움에서 벗어나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해탈의 길을 제시한다.

베스트셀러

법륜 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스님 지음 | 552쪽 | 27,000원 | 정토출판



정토출판 전화 02-587-8991 전송 02-6442-8993 이메일 book@jungto.org

국립중앙박물관 불상전시실 새 단장

1월 22일부터 관람객 찾아

국립중앙박물관(관장 김영나)이 불상 전시실을 새롭게 단장 1월 22일부터 관람객을 찾았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 10월 반가사유상실, 신라 금관실 개선에 이어 불교조각실의 대형 불상 전시 공간을 전면적으로 리노베이션해 관람객들이 유물 감상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로써 관람객들은 불교조각 대표 걸작인 감산사 미륵보살과 아미타불상,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리 철불 등 대형 전시품을 입체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신소연 씨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이 유물의 관람을 방해하는 역광 효과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전시실 전체에 암막스크린과 금속패널을 둘러 배경벽을 설치했고, 자연광을 차단하는 대신 간접조명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감산사 미륵보살

또한 전시실 실내의 바닥과 벽, 천정을 단일한 톤으로 전시실을 찾은 관람객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불상에 모아질 수 있도록 했다. 동시에 LED조명을 입체적으로 배치했다.

이번 불교조각실 개선을 끝으로 1년여 동안 (사)국립중앙박물관회 후원으로 진행된 대표 전시실 개선사업은 마무리됐다.

정혜숙 기자

비움과 채움 역설적 조화 보여줘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

아니쉬 카푸어 개인전이 1월 27일까지 삼성미술관 리움 기획전시장 및 야외정원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초기작인 피크먼트(Pigment) 작품부터 카푸어 작업의 핵심인 보이드(Void) 시리즈, 오토제너레이션(Auto-generation) 시리즈, 최근작인 대형 스테인리스 스틸 조각 등 핵심적이고 중요한 작품 18점을 선보인다.

아니쉬 카푸어는 인도 봄베이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미술 교육을 받았다. 작가는 1970년대 후반부터 동서양 사상과 문화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예술 개념과 정서를 바탕으로 아름답고 명상적인 작업을 선보여 왔다.

작가는 존재와 부재, 비움을 통한 채움 등 이질적이고 대립적인 요소들이 서로 수렴하고 소통하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삼성미술관 리움의 건축물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난도의 대규모 작품들이 설치돼 눈길을 끈다. 특히 바닥을 실제로 뚫는 보이드 시리즈 중 중요작 중 하나인 '땅(The Earth)'(1991)이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시된다. (02)2014-6900

정혜숙 기자

탄허 대종사 100주년 기념 달력 발간

한암 · 탄허 스님 선묵 유품과 행장 담아



탄허 대종사 100주년 기념 달력 표지

탄허대종사 100주년 기념사업회가 탄허 스님과 한암 스님의 서예 유품을 실은 달력을 내놓았다. 기념사업회가 은사 스님의 유적을 정리해 달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달력 첫 장에는 한암 · 탄허 스님의 행장과 사진을 넣었다. '부엌에다 불 붙이다 홀연히 눈이 밝았네/ 이로부터 옛길 따라 청정했네…' 로 시작하는 한암 스님의 오도송도 만날 수 있다.

이후 1월부터는 탄허 스님의 글씨 6점 한암 스님의 글씨 6점 등을 각각 번갈아 담았다. 구절구절마다 중생들에게 새로운 의미를 전해주는 글귀는 감동을 준다. 3월 달력에는 한암 스님이 홍천의 한서운 보살에게 보낸 편지가 실렸다. '화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화두'라는 내용의 편지다.

4월 달력에는 탄허 스님의 수류경귀해(水流景歸海) 월낙불리천(月落不離天)도 글씨가 실렸다.

정혜숙 기자

재능나눔 사랑방 오공카페 '화제'

단소 수업 등 200여 문화 프로그램 진행


불자 청년들이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는 오공카페의 재능나눔 프로그램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사진은 단소 수업 현장.

국립국악원 단원 공담연 씨는 수요일 저녁이면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오공카페로 향한다. 카페에서 진행되고 있는 단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오늘 수업은 '천년만세 中 계면가락 도드리'. 수강생들은 지난 1단계 수업을 통해 동요 가락을 익힌 후 중급 강연에 접어들면서 국악음악으로 한 단계 수준을 높였다. 단소수업 강사인 공담연 씨는 전문 국악인이지만 오공카페 강연에서는 수강료를 받지 않는다. 수강생들 역시 음료값 5천원 정도만 내고 저렴하게 수업을 듣고 있다. 이 모두가 오공카페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능나눔 프로그램이기에 가능한 일이다.

청년자립문화 프로젝트를 꿈꾸며 불자 청년들이 주축이 돼 지난 4월 문을 연 오공카페는 본지(884호 4월 18일자 게재)에 처음 소개된 이후 각종 매체에 소개되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재능과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대안문화를 만들고자 하는 오공카페의 문화 프로그램은 대중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오공카페에서는 단소수업, 스윙 댄스, 중국어 교실, 글쓰기 수업, 토속민요특강, 양모솜 공예품 만들기, 사진강좌, 영어강좌 등 다양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독서모임, 공감대화법 워크숍, 협동조합 모임, 심야식당, 프리마켓 등도 활발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이처럼 오공카페는 지난 10개월 동안 20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여기에 1천 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재능과 물질을 함께 나누며 대안문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오공카페의 기획취지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는 것이다. 오공카페 기획자이자 매니저인 조정훈 씨는 "불교를 공부하면서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능나눔 프로그램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사람은 누구나 재능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 이를 하나씩 내어 놓으면 비싼 돈을 들여서 굳이 학원을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각자의 재능 보시를 통해 더 풍성한 삶을 함께할 수 있다는 점이 재능나눔 프로그램을 기획한 취지"라고 설명한다.

무료 강좌라고 해서 어느 누구도 대충 가르치고 배우지는 않는다. 모든 강사들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최선을 다해 가르치며 보람을 얻는다.

불자 청년 주축으로 운영
재능 주고 받는 매개체 역할
동체대비 사상 바탕으로
청년 자립문화 확산 '목표'

단소 강사 국악인 공담연 씨는 "많은 국악기 중에서 단소를 택한 것은 가장 대중적이고 쉽기 때문이다. 다행히 수강생들도 흥미를 가지고 잘 따라오고 있다. 그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 내 목표는 여기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전문 강사로 성장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을 만드는 거다. 또한 전통음악 전공자로서 이런 계기를 통해 전통음악을 좀더 가볍게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다.

프리마켓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중고품 혹은 수제품들을 들고 나와 장을 펼치는 프리마켓은 지난 연말 처음 문을 열었다. 첫 마켓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1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프리마켓은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어 매달 개최를 결정했다. 심야식당 역시 오공카페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심야식당은 주제가 있는 식사 프로그램이다. 카페 회원 중 한 명이 주제 선정과 식사 메뉴를 정한 다음 참여자를 모집해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여기서는 연애에서부터 대한민국 정치까지 다양한 주제의 토론이 오가며 메뉴 역시 스파게티에서부터 덮밥까지 주최자가 자신 있게 내어놓을 수 있는 메뉴를 통해 대중들을 모으고 있다.

이 프로그램 역시 평소 혼자서 밥을 먹는 싱글족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정여진 씨는 "처음에는 낯선 사람과 밥 먹으면서 얘기를 나눈다는 것이 어색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의외로 더 큰 위안과 즐거움을 얻었다. 서로 공통 관심사를 얘기 나누다 보니 금방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것을 느꼈다. 혼자서 밥을 먹는 사람이 많아지는 요즘 이런 공간을 통해 친구도 사귀고 밥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며 소감을 전했다.

2012년 재능나눔 등을 통해 운영의 안정화를 꾀한 오공카페는 2013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공동주거 확대 등을 통해 나눔의 의미를 좀더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조정훈 씨는 "고물가 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젊은이들은 엄청난 노동을 하지만 그 노력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이는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직장을 열심히 다녀도 월세 내고 생활비로 쓰다 보면 자신의 힘으로 서울에서 집한 채 사기 힘들지 않은가? 오공카페는 이제 청년들의 자립구조를 확대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창구 역할을 마련하고자 한다. 나눔을 통해 공생의 장을 펼쳐나가는 사랑방 역할을 하고자 하는 곳이 바로 오공카페"라고 설명한다.

앞으로 오공카페는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은 물론 2호점 개설을 통해 나눔 문화를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다. (02)598-8804

정혜숙 기자

신의 멜로디로 마음의 '힐링'

나왕케촉 힐링뮤직 앨범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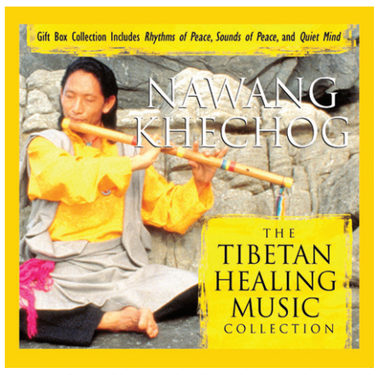
"산양들이 풀을 뜯다가 멈춰 서서 음악소리를 듣기 위해 고개를 돌린다. 그것은 마치 신의 소리 같은 멜로디가 산양들에게 경이로움으로 가득하게 만들었고 춤추고 싶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비폭력 저항운동가이자 가수인 조안 바에즈는 나왕케촉의 명상 음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나왕 케촉은 음악스승도 없고 작곡법을 공부한 일도 없이 혼자서 독학을 이룬 세계적인 명상음악가다. 살아 숨 쉬는 나왕의 힐링 명상곡은 그대로 시간이 멈춰버린 듯, 우리들 마음을 고요와 평화의 세계로 데려다 준다.

나왕 케촉의 티베트 힐링뮤직 컬렉션 앨범이 한국에서 발매됐다. 이번 앨범은 티베트 대나무 피리, 둥첸, 디저리두, 오카리나, 띨부 등 다양한 전통악기 연주로 구성됐다.

3장으로 구성된 앨범은 △CD1 'Quiet Mind'은 '티베트인의 삶과 영성이 숨쉬는 마음고요 명상곡 △CD2 Rhythms of Peace-대나무 피리 숨결에 실려오는 평화의 리듬 명상곡 △CD3 'Sounds of Peace'



나왕케촉의 힐링뮤직 앨범이 한국에서 발매됐다.

영혼의 울림으로 전해오는 평화의 소리 명상곡' 으로 대중들을 찾아간다.

정혜숙 기자

국립대구박물관 문화해설사 과정

국립대구박물관은 어린이 · 청소년으로 구성된 전통문화 해설사가 들려주는 박물관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1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기를 희망하는 어린이, 청소년은 국립대구박물관 전시실 입구 로비에서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회당 최대 3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오전 오후로 나누어 6회에 걸쳐 운영되며 수업은 국립대구박물관 상설전시실에서 갖는다. (053)760-8546

정혜숙 기자

(주)에스굿
마하연투어 성지순례
황금의 땅! 불탑의 나라! 미얀마
미얀마 성지순례 더 가깝게 만나보세요
● 양곤 | 바고 | 시리암 5일 8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1,39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1,549,000 ~ 부터
● 양곤 | 바간 | 헤호 | 짜익티오 6일 요금문의
※ 짜익티오 파고다 정상 짜익토호텔 숙박 – 파고다 철야기도 등 가능
차별화된 가격! 품질! 불교행사를 경험 해 보십시오. "미얀마 현지 여행사 운영업체"
▣ 대만 정통 성지순례 5일 | 129만원 (추가경비 일체 없습니다)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1일 요금문의
▣ 인도 완벽성지순례 (8대성지) 14일 요금문의
▣ 스리랑카 성지순례 7일 요금문의
▣ 라오스 직항 5일 135만원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02)365-7747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일깨워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천·연·향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에서 향이 좋은 생약을 엄선하여 제조한 한방방향제입니다. 생활공간에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천연향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가공 후 부산물로 나오는 찌꺼기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 정상 유통되는 정품약재를 사용하여 일일이 선별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므로 항상 깨끗하고 맑은 향으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평소 고마운 마음을 아름다운 향기로 선물하세요!
주는 이의 마음을 오래토록 기억할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구매 시 구매 수량별 추가로 드리는 덤 증정행사
(선물용으로 바로 쓰실 수 있게 쇼핑백포장까지 드립니다)
● 용 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거실, 장롱 등 실내 공간 비치용
● 규 격 : 복주머니 12*19cm (펼쳤을 때)
● 내용량 : 100g
제조원 : 수풀림 주문전화 : (062)385-9954 010-5607-3313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해운스님 2013년 영험한
소지용 氣달마도
영험(靈驗)한 소지용 기달마도를 직접 그려드립니다!
해운큰스님은 전국의 불자님에게 10만여장의 기달마도를 그려주신 분으로 유명합니다. 기달마도는 결혼/건강/회사원/운전/취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재수달마도는 자영업/주식/승진/사업/부동산을 하시는 분들께서 신청을 많이 합니다. 달마도를 받으신 분들이 효험을 보자 많은 분들의 신청이 쇄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달마도를 소지하시어 원하는 바를 이루어 보십시오. 달마도 보시가는 3만원이며 수익금 전액은 해운스님 달마복지관 건립불사에 사용되어 집니다.


해운스님 기달마도 신청하세요
☎(055)353-9925

“고려화불로 전통문화 맥 잇는다”

혜담 스님 ‘고려화불’ 초대전



“고려화불을 복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잊혀진 불교 역사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문양에도 상징하는 심오한 의미가 있으며 입체감은 보는 이의 위치에 따라 모양도 같이 변하죠. 이 모두가 우리 조상들이 빚어낸 위대한 문화유산이죠. 700년의 시간을 넘어 고려화불의 위대성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속초 계태사 고려화불연구소 이사장 혜담 스님이 ‘단절되어 잊혀진 위대한 문화유산 大 고려화불 초대전’을 개최한다. 2월 3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 6~7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에서 스님은 복원 작업을 거친 6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스님은 매일 하루에 16시간에서 18시간씩 작업을 하며 작품을 완성시켜 나갔다. 이런 작업을 통해 스님은 ‘500나한상’ ‘관경 16관 변상’ ‘수월관세음보살’ ‘열반상’ 등을 완성 대중들을 찾아간다.

특히 혜담 스님은 수월관세음보살은 3년의 작업을 통해 5m의 작품을 완성시켰다. “어느날인간 꿈속에서 관세음 보살 화현이 나타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작 해 3년을 걸려 작품을 완성했어요. 워낙 대작이어서 법당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가로로 눕혀서 작업을 하다보니 제대로 작품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다큐를 찍으러 와서야 작품을 세워서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섬세하게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라고 전했다.

오백나한상 역시 스님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작품이다. 이 작품은 오백나한과 공양발원 하는 100여 대중을 합하면 600여 명이 한 작품안에 들어간다. “그동안 오백나한도는 엄두가 나지 않아 부분도만 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크게 발심을 해서 오백나한도 전체를 그려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얼굴 표정도 몸짓도 다 다른 오백 나한도를 표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숫자를 다 헤아릴 수 없어 쌀 알 하나하나로 인물수를 세면서 작업했죠”

혜담 스님은 지난 40여년 동안 고려화불 복원 작업에 매진해 왔다. 그렇다면 왜 스님은 이 오랜 시간 고려화불에 매달려 온 것일까? 이에 대해 스님은 잊혀진 우리 문화유산을 세상에 알리고 싶어서라고 말한다.

5m 고려화불 3년 모사 완성
오백나한상 전체 복원에 ‘심혈’

“고려화불은 고려시대 찬란한 불교문화 유산이자 종교를 초월한 선조들의 예술혼이 깃든 작품입니다.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보다 앞서 시작된 고려문화 전성기에 조성된 화불은 세계미술사에서도 빛나는 세계적인 전통문화예술로 그 우수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 등으로 방치 되다가 결국은 해외로 160여 점이 유출되고 국내에는 20여 점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고려 불화를 복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스님은 국내 작품 외에도 다양한 불교국가의 불화도 함께 선보인다. 인도 서역 9세기 작품은 물론 중국 9~10 세기 작품 일본의 13세기 작품 등을 복원했다. 또한 올 4월에는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도 전시를 갖는다. (053)606-6114 **정혜숙 기자**



오백나한상



수월관세음보살상

한국미술의 틀린 용어 바로잡기 꽃병→만병 ㉦

만병에서 무한한 영기문 용솟음 친다

滿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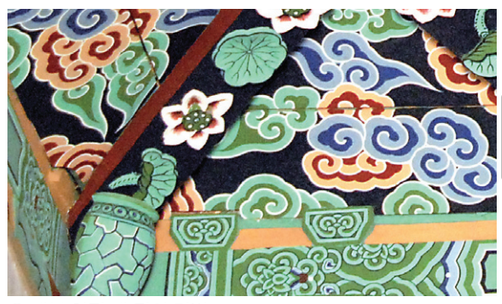
① 강화도 정수사의 어간문



② 만병1



③ 만병 2



④ 내부 천정 네 귀의 만병



만병에 중심축이 있고 사이사이에 영기꽃·영기잎 등 매듭의 기능을 넣어 사방으로 영기를 확산시키며 연이어 무한히 솟구쳐 올라가고 있다.

⑤ 두 가지 만병의 채색분석

대생명력이 가득 찬 만병의 도상은 만물생성의 근원을 상징하는 만큼, 실로 무한히 다양하게 이루어져서 몇 마디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 다양한 표현이야 말로 만병의 인식을 점점 깊게 만들면서 우리를 놀라게 한다. 만병에는 전형적인 추상적 영기문들이 발산하기도 하지만 현실에서 보이는 꽃들도 많다. 그 대표적 예들이 ‘연꽃’과 ‘모란’이다. 용과 마찬가지로 연꽃과 모란을 십년 가까이 공부하여 오는 동안, 조형미술에 표현된 연꽃과 모란이 실은 현실에서 보는 연꽃과 모란이 아니라는 진실을 여러 가지 표현방법을 분석하면서 확신하면서 환호한 적이 한 두 번이 아닌데 그 문제는 증명의 과정이 복잡하고 길므로 차차 알게 될 것이다. ‘조형미술에는 현실에서 보이는 사물은 하나도 없다’ 이 무슨 이상한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질 테지만 이 연재를 읽어가는 동안 점차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강화도에 가면 조선 전기(前期)의 아름다운 건축의 정수사(淨水寺)라는 고찰이 있다. 왜 정수사라고 했을까. ‘정수(淨水:정화된 물)로 세상을 정화시킨다는 뜻이 담겨있으니 절에 그와 관련된 도상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대웅보전의 꽃살문은 유명하여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중앙 어간(御間) 네 문짝에 항아리에서 끊임없이 긴 꽃들이 연이어 올라가고 있어서 누구나 꽃병이라 부른다. 최근에 새로 거칠게 단청을 하여 옛 맛이 없어졌으므로 그 이전의 사진을 싣는다.(그림 ①)

꽃살문을 자세히 보면 가운데 두 문짝은 병 자체에는 추상적 제2영기싹 영기문이 그려져 있고, 다른 병에는 연꽃모양 영기꽃에서는 제3영기싹 영기문이 사방으로 뻗어나가고 있으니 벌써 만병의 조형이 심상치 않다.(그림 ②, ③) 그 가운데 두 만병에서는 위에서 본 큼직한 영기꽃이 있는데 가운데에 씨방이 있다. 바로 생명의 근원인 씨앗들이 들어있는 씨방이 중요한 것이어서 정면으로 내세운 것이다. 이 만병에는 중심축이 있어서 연꽃 — 연잎 — 연꽃 — 연잎들이 교대하며 위로 뻗어 올라가고 그 연꽃과 연잎에서 여러 갈래의 영기문이 사방으로 확산하는 광경이다.(그림 ⑤) 줄기에 가시들이 있으므로 누구나 서슴치 않고 연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아니다! 연꽃이 연꽃이 아님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눈이 진실을 볼 수 있는 개안(開眼)을 성취하리라. 자세히 꽃살문의 그림을 뜯어가며 읽어보면, 그 전개과정이 생명생성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대한 영기문이며 우주목 혹은 생명수이며, 바로 이 생명수에서 만물이 탄생한다. 원래 새나 나비가 그 사이사이에 있어서 생명생성의 광경을 보여주나 여기에서는 생략한 것이다. 무슨 말인지는 조형언어를 배워가면서 차차 익히게 될 것이다. 이 연재에서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조형언어와 그 문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므로 여러분도 열심히 예습과 복습을 하여 영어를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연봉이나 연꽃에는 제3영기싹 꽃받침이 원래 없으니 제3영기싹 영기문에서 연꽃, 연봉, 연잎이 생겨나는 것인데 연꽃이 실제로 이렇게 영기문의 조형원리에 맞게 전개될 리 없다. 마찬가지로 양쪽의 두 문짝을 보면 모란꽃 줄기가 수직으로 위로 솟구치며 가지들을 치면서 수많은 모란꽃을 피우고 있다. 꽃잎이 봉긋봉긋하여 모두가 모란이라 부르지만 영화시킨 영기꽃이다. 이 영기꽃 또한 중심에 큰 줄기가 있어 우주목 혹은 생명수의 성격을 띤다. 나의 말을 확인하려면 오랜 인식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도상을 선묘(線描)하여 반드시 채색분석(彩色分析)해보아야 그 생명생성의 과정을 분명히 알 수 있다. 10년 동안 채색분석을 4000점 가까이 했으니 나의 분석방법을 믿어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법당에 들어가면 더욱 놀라운 만병을 빗천장에서 볼 수 있다. 빗천장 네 귀에도 각각 만병이 있고 만병으로부터 영기꽃 줄기가 길게 뻗쳐 나오고 있다.(그림 ④) 왜 이렇게 정수사에는 법당의 안팎에 그렇게 수많은 만병을 조각하여 놓았을까? 꽃살문은 어느 경우나 ‘영기꽃과 씨방’이 주제이다. 이제 절 이름을 ‘정수사(淨水寺)’라고 이름 지은 까닭은 알 것이다. 꽃병이라고 하면 절 이름과 아무 상관이 없어서 절 이름을 왜 정수사라고 지었는지 아무도 몰랐던 것이다.

그러면 만병이란 용어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만병이란 말은 purnaghata, 즉 ‘가득 찬 병’이란 범어를 직역한 것으로, 무엇이 가득 차 있는지 규정하거나 명시하고 있지 않다. 왜 분명히 규정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고대인의 지혜가 있다. 나의 연구에 따르면 만병 안에는 여러 가지 생명의 근원이라 할 모든 것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만병 안에는 ‘물’ ‘보주’ ‘산호’ ‘영기’ 등 만물생성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 갈 수 있다. 그런데 경전에 ‘만병’이외에 ‘현병(賢甁)’ ‘선병(善甁)’ ‘덕병(德甁)’ ‘만병(滿甁)’ ‘여의병(如意甁)’ ‘본낭가타(本囊伽咤)’ 등으로 번역하였으므로 문헌으로는 혼란스러워 그 범어 용어의 참뜻을 헤아리기 어려우며 만병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상상도 할 수 없다. 수실(Soothil)이 편찬한 〈중국불교용어사전〉에서 처음으로 범어 발음인 ‘푸루나가타’를 ‘본낭가타(本囊伽咤)’라고 번역하여 경전에도 쓰였음을 처음 알았다. 그러므로 문자언어로는 이 말의 뜻이 올바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조형언어로 이루어진 조형미술에서는 다양한 도상으로 역동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형언어를 읽지 못하고 해답을 문자언어에서 찾으려 했으므로, 지금까지 만병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꽃병이라 불러왔던 것이다. 만일 조형미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가 만병의 의미를 알았겠는가.



강우방 (일향 한국미술사 연구원장)

국 내 산

‘적하수오’ 판매

■ 적하수오, 적하수오 된장 필하신분 연락바랍니다.
(청도 불광사 사찰 內 재배)

• 적하수오 : 1 kg 3만원부터 • 적하수오 고추창 된장 : 1 kg부터

스님들께서는 사찰을 운영하시면서 적하수오 재배시 최고의 소득 작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으며, 또한 불자님들께서도 재배하실 수 있는 부지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하수오 된장, 간장 등 하수오를 사용하여 만드는 법도 전수는 물론, 농약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재배를 할 수 있는 노하우(방법)도 전수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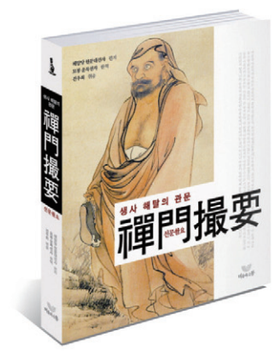


1. 우리 몸 최고의 보약인 적하수오 모종을 예약 분양합니다.
2. 묘목 재배시 판매가 불안하신 분에 한하여 계약재배 가능합니다.
3.3㎡(1평) 10만원 확정 매입 해 드립니다.

■ 서룡 농장 : 010-8442-4444 (상담)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1리 368 묘목 재배
계좌번호 : 농협 302-0332-7864-61 예금주 김남필

조사祖師의 문門 안에 들어
불조佛祖의 근본 체득하는 길!

“생사가 없는 줄 아는 것이 생사 없음을 체득하는 것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을 체득함이 생사 없음에 계합하는 것만 못하고,
생사가 없음에 계합함이 생사 없음을 활용하는 것만 못하니라.”



출간 즉시 2쇄 돌입!

생사해탈의 관문
《선문촬요禪門撮要》

묘봉 찬주 · 견우회 엮음
변형크라운판 | 흑백 | 452쪽
15,5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본래성품 깨달아 인간성 회복하는 핵심 선禪법문

《선문촬요》는 한국 선종의 중흥조인 경허(1849~1912)선사가 엮은 책으로, 중국과 한국불교 선문의 중요한 어록을 한 데 모은 대표적인 선어록. 혜암선사가 편역한 달마혈맥론(達磨血脈論), 달마관심론(達磨觀心論), 보조수심결(普照修心訣), 보조진심직설(普照眞心直說), 선경어(禪警語)의 한문 원문에 토를 달아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으며, 한자 마다 한글 음을 달아 독송하기에도 편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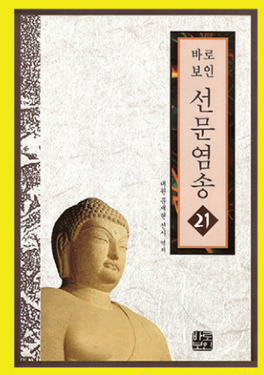
출판 및 법공양(특별할인) 문의 02-2632-8739
비움과소통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달마의 일할도 허락지 않는다
선문염송 21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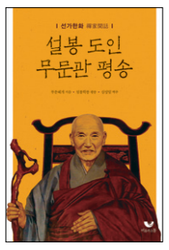
바른 신앙과 수행의 길잡이!
바른 불자가 됩시다

현대인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누구나 궁금한 33가지



031-534-3373

48공안 한 손에…책 가볍지만 한 쪽 한 쪽은 무거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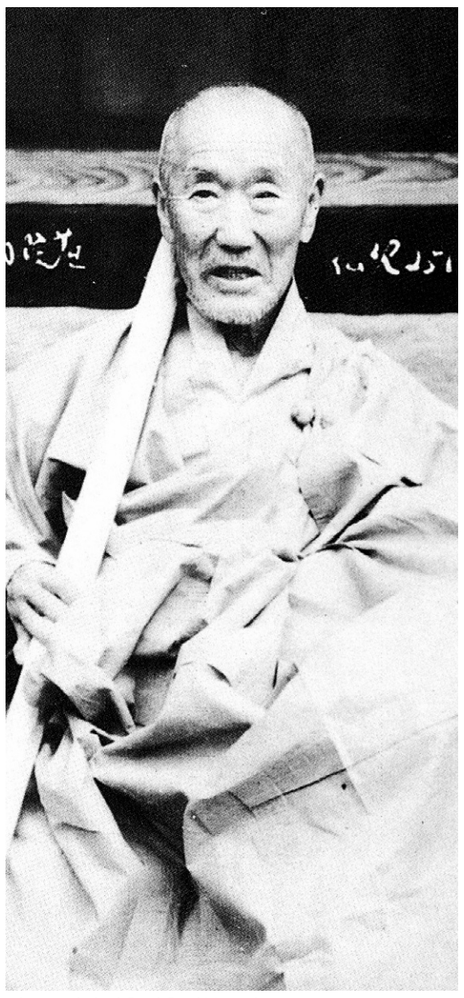
설봉 도인 무문관 평송
무문혜개 지음
설봉학몽 평송
심성일 역주
비움과 소통 펴냄
1만4천원

남송시대 무문 혜개(無門慧開, 1183~1260) 선사가 편찬한 공안집 〈무문관〉을 우리나라 근세의 선지식인 설봉 학몽 스님이 그의 평과 송을 붙여 다시 소개한다.

근래 들어 여러 〈무문관〉 번역서들이 출판되었는데, 대부분 원문에 대한 번역과 각칙 공안에 대한 해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역주자인 심성일이 설봉 학몽 선사의 법어집인 〈설봉대전〉에서 〈무문관〉에 평송을 붙인 것을 발견하여 출간에 이르게 됐다. 역주자는 기연이 될만한 설화들을 덧붙였다. 그리고 역주자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못한 설봉 스님과 그의 선풍을 되살려 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출간하게 됐다."고 출간의 취지를 밝혔다.

조주 화상에게 어떤 승려가 물었다. "개에게도 불성(佛性)이 있습니까?" 조주가 말했다. "무(無)!"

무문은 말한다.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의 관문(祖師關)을 꿰뚫어야 하고, 묘한 깨달음은 반드시 생각의 길(心路)이 끊어져야 한다. 조사의 관문을 꿰뚫지 못하고 생각의 길이 끊어지지 않았다면 모두가 풀과 나무에 빌붙어 사는 귀신일 뿐이다." 이를 다시 게송으로 이른다. "개의 불성, / 불법(正念)을 온전히 드러냈도다. / 조금이라도 '있다, 없다'에 걸리면 / 목숨을 잃으리라. 이에 설봉 스님의 평송이 이어진다.



만공 스님의 법을 이은 설봉 스님

"이 '무' 자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의 골수와 역대 조사들의 안목과 모든 중생의 본래면목을 한꺼번에 뭇사람들의 면전에 곧장 드러내 보였거늘, 어찌하여 꿰뚫어 보지 못하고 눈동자를 바꾸어 버리는가?" 설봉 스님이 게송으로 이른다.

"저울 머리를 쇳덩이처럼 굳게 짓밟으니 / 부처와 조사도 원래 모두 알지 못했네. / 두 마리 진흙소가 싸우며 바다에 들어가고 / 금 까마귀는 야밤에 하늘을 꿰뚫고 날아가도다. // 있다는 말, 없다는 말 모두가 옳지 않으니 / 백년 묵은 요괴가 헛되이 입을 열었다. / 우리 집엔 일 없어 논밭 한가운데 / 해가 서산에 지니 달이 동쪽에서 뜨네." 그리고 역주자의 기연설화가 이어진다. 이렇게 책은 무문의 공안과 게송, 그 공안에 설봉의 평과 송, 그리고 역주자의 기연 설화가 이어져서 하나의 공안을 공부한다.

조주의개(趙州狗子), 백장과 들여우(百丈野狐), 달마는 수염이 없다(胡子無鬚) 등 무문의 공안이 이어진다.

"부처의 가르침은 마음으로 근본을 삼고, 문이 없는 것으로 법으로 들어가는 문을 삼는 것인데, 이미 문이 없다면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무문 스님의 〈무문관〉은 무문 스님이 1228년 동가의 용상사에 있을 때, 납자들이 가르침을 청함에 옛 사람의 공안으로 가르쳤는데, 그것들을 간략히 기록해 둔 것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선종 최후의 공안집 '무문관'
〈설봉대전〉의 '무문관 평송' 소개
기연 설화 덧붙여 이해 도와

저자 무문 스님은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한 자루 칼을 지고 곧바로 뛰어든다면 여덟 개의 팔을 가진 힘센 귀신도 그를 가로막아 세우지 못할 것이고, 서천(인도)의 스물여덟 조사와 동토(중국)의 여섯 조사마저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저 목숨을 구걸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망설이며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창 너머로 말 달리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아서 눈 깜빡할 사이에 놓치게 될 것이다."고 서문에서 법을 구하는 이들에게 일갈하며 책을 연다. 48공안을 한 손에 들고 볼 수 있는 책이다. 하지만 책장 한 장 한 장은 넘길수록 점점 무거워진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평송자 설봉 학몽(雪峰鶴夢, 1890~1969) 스님은…
1890년 11월 25일 함북 부령(富寧)에서 태어났다. 1902년 한성중앙학교를 거쳐 공업전문학원에 들어가 신학문을 배우고, 1910년 스무 살 되던 해에 조선총독부 문관(文官)으로 취직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항일운동에 관련되어 검거되었다. 1915년 25세에 함경남도 안변의 석왕사(釋王寺)로 출가해 참선 공부에 전념한다. 1920년 만공(滿空) 스님 회상에 머물며 더욱 공부를 깊이 하고 만공 스님의 법을 이었다. 이어 1925년에는 도봉산 망월사 용성(龍城) 스님 문하에서 정진했다. 이후 20여 년간 오대산,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등에서 정진했다. 1969년 4월 17일 선암사에서 세수 80, 법랍 55세로 원적에 들었다. 〈선문촬요〉, 〈선관책진〉, 〈선문염송〉 등의 원전을 현토 주석한 저술을 남겼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9 ~ 1/15

순위	도서명	저 자	출판사
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만덕, 만현	현지궁현지사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커스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개정증보판)	김재웅	용화
5	깨달음	법륜	정토
6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	정목	공감
7	법륜스님의 금강경 강의	법륜	정토
8	진리의 화원	덕현	법화
9	성자와 범부가 함께 읽는 금강경	김원수	공경원
10	기도	법륜	정토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태중보살 아가를 위한 엄마의 기도문

불교태교기도문
송암지원 엮음 | 도피안사 펴냄 | 1만2천원



"태중보살 우리아가야, 나 엄마야! / 우리 아가를 뱃속에 품고 있는 나 엄마란다. / 태중보살 나의 아가야, / 엄마의 이 목소리를 알아듣겠니? /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있니? / 엄마의 마음이 가슴에 와 닿니? / 엄마의 기도가 귀에 들리니?"

'태중보살인 아가에게 들려주는 엄마의 기도'다. 불교적인 태교는 어떤 것일까. 송암 지원 스님이 소개하는 불교적인 태교다.

태교가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미국 피츠버그대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인간의 지능지수를 결정하는 유전자의 역할 비율이 48%이고, 태내의 환경이 52%를 차지한다고 한다.

조선시대 〈태교신기〉에서도 "태교의 열 달은 스승 교육 10년보다 낫다."고 했다. 태아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나 사건은 출생 후 건강, 기질, 성품, 지능, 정서 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태교는 훌륭한 아기를 낳아 양육하는 일뿐 아니라 한 가정과 사회는 물론 국가와 인류의 밝은 장래를 위해서도 큰 교육 과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기에 임신부는 태교를 임신 기간 동안 기도와 수행을 통해 훌륭한 아기 탄생은 물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자질과 덕목을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따라서 임신부와 그 가족은 소중한 아기맞이 준비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하지만 태교는 쉬운 일이면서 대단히 어려운 숙제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아기의 탄생을 위해 부모는 계획 임신과 더불어 건강한 몸, 균형 갖춘 영양, 올바른 마음가짐과 성실한 생활 태도, 그리고 항상 편안하고 안정된 정서를 유지하는 것 등이 매우 중요하다. 즉 임신부가 태교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 몸가짐을 잘하는 수행이 필요한데, '수행'이라고 하면 바로 불교와 직결되고, 불교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수행 방법을 축적해 오고 있다. 태교와 그 방법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이 관심을 두었던 송암 스님이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태교 기도문을 엮어냈다.

책은 '임신부의 일송(日誦)', '임신부의 일과(日課)', '임신부의 마음자세 10가지', '임신부의 생활지혜 8가지' 등 임신부를 위한 '지침'과 제1장 '기도편', 제2장 '서원편'으로 되어 있다.

"나모라 다나다라 야야 나막알약 바로기제 새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하사다바야 마하가로 니가야옴 살바 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제1장 기도편에는 '예불',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 '신묘장구대다라니' 등 불자들에겐 이미 익숙한 경전구와 기도문들이 실려 있고, "바른 방향으로 돌이킬 훈련을 하자. 이윽고 미와 건강과 행복이 찾아온다. 일순간이라도 불쾌한 표정을 짓지 말자. 불안한 표정을 짓지 말자. 항상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을 믿자. 감사하자. 어둠은 아침을 예고한다. 구름은 이윽고 사라진다." 제2장 서원편에는 '육조대사의 법보단경 반야품', '보현행자의 서원', '광덕 스님의 마하반야바라밀다 수행법' 등 임신부가 태중보살을 위해 가슴에 간직해야 할 차분한 가르침들이 들어 있다. 좋은 태교를 원하는 모든 임신부와 그 가족을 위한 태교 지침서다.

박재완 기자

"왜 난 항상 시간이 부족할까?"

제2의 시간
스티브 테일러 지음 | 정나리아 옮김 | 용오름 | 값 13,000원



20대에 20km, 30대에는 30km, 40대에는 40km, 50대에는 50km로 인생의 시간이 지나간다는 말이 있다.

시간의 물리적 흐름은 언제나 일정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며 시간이 빠르게 흐른다는 느낌은 강해진다. 삶에 있어서 모두에게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유독 나에게는 항상 시간은 부족한 것만 같은 것이 사실이다. 이뿐만 아니다. 시간의 흐름은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느껴지기도 한다.

〈제2의 시간〉은 시간 심리분석서다. 책에서 저자는 시간의 심리를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명한다.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빨리 흐른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몰입을 하면 시간은 빨리 흐른다. △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간은 천천히 흐른다. △의식하는 정신이 사라지면 시간은 천천히 흐르거나 아예 멈춘다.

저자는 시간이 물리적인 부분보다 심리적인 부분에서 속도가 결정된다고 말한다. 가령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은 일정 기간의 시간이 전체 인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다. 50세 어른의 1년과 10살 아이의 1년은 각각의 인생에 있어 1/50, 1/10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만큼 상대적인 시간의 크기가 커진다는 것이다.

하지만시간의 흐름이 달리 느껴지는 이유를 밝히려는 것이 이 책의 의도는 아니다. 저자는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법'을 강조한다.

저자는 시간을 풍족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해답을 시간을 인식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시간은 우리의 인식에 따라 천천히 흐를 수도 있고 아예 초월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는 삶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밝힌 다섯가지 시간의 법칙 중 우리의 삶에서 요긴한 것으로 두번째 법칙(새로운 경험)과 다섯번째 법칙(자아 초월)의 실천을 권한다. 이 두가지 방법은 현재의 상황에 익숙해져 시간이 무감각해질 때 새로운 환경과 경험을 찾고 논리적이고 실용적인 사고가 필요할 때만 자아를 찾는 방법이다.

그중에서도 자아를 벗어던지라는 것은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로 제시된다. 휴식을 취하기 전 '팽팽한 자아'는 언제나 미래를 걱정하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흘러가도록 재촉하는 감각적 촉매제로 작용한다는 얘기다. 저자는 이미 지나간 과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대신 현재에 충실한 것도 우리가 시간의 주인이 되는 방법이라고 강조한다.

시간을 활용하는 해답이 마인드풀니스이기에 책의 말미에는 명상의 비중이 크다. 저자와 논지를 함께하는 다양한 학자들의 논문과 저작을 인용하고 있지만 비교적 쉽게 읽히는 것이 특징이다.

노덕현 기자



충청도 절터에 분별 여읜 원융 정신 흐르네



나와 같다고 옳고, 다르면 그른 것인가

이지누 지음
알마 펴냄
2만2천원

전라남도의 절터는 아담하고 소박하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렇다면 충청도 절터는 어떨까? 책 제목을 보면 단박에 짐작할 수 있다. '나와 같다고 옳고, 다르면 그른 것인가'다. 선의 기풍이 물씬 풍기는 경구 같다. 맞다. 실제로 선어록에 나와 있는 말이다. 이는 낭혜화상(801~888)이 한 말이다. 보령 성주사터에 주석한 이 스님은 선종과 교종을 두루 아우르는 당대의 선지식이었다. 북종선 계열인 능가선부터 시작해, 화엄도량인 부석사에 가서 머물고, 당나라로 건너가 남종선 계열일 마조선까지 섭렵했다. 즉 보수라고 할 수 있는 화엄사상의 교종과 진보적 성향을 가진 선종의 여러 갈래를 넘나든 것이다. 더구나 낭혜화상은 불문에 들어서기 전에는 유가의 경전을 읽기까지 했으니, "진주를 얻고 불을 피웠으면 조개와 부싯돌은 버릴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근본적인 수행 태도였다.

이러한 원융 정신은 비단 성주사터뿐만이 아니라 충청도 절터 전반에 흐른다. 이는 한반도에서 충청도가 차지하는 입지 조건 덕분이다. 당시 충청도는 한반도 남쪽과 북쪽을 잇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였다. 당시의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는 강줄기를 타고 여러 불교 종파들이 충청도에 속속 모여들었고, 그곳에서 서로 대립하는 동시에 공존했다.

더구나 고려 당시에는 교종을 통치사상으로 내세운 중앙정부가 지방의 선종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충청도 지역에 화엄사찰들을 여럿 세우기도 했으니, 그 만남과 통합 과정은 더욱 치열할 수밖에 없었다. 죽산-충주 국도변에 산재한 고려 전기 양식의 거대한 석불입상들이 고려 중앙정부(교종)와 호족세력들(선종)의 과시적 합작품이라면, 고려 양식과 통일신라 양식이 조화롭게 녹아 있는 서산 보원사터의 탁월한 5층석탑은 그 통합의 예술적 극치다.

특히 보원사터는 고려 제 4대왕인 광종의

충청도 폐사지 교통요지인 강에 위치
여러종파들 절 짓고 서로 공존
보원사탑…고려 · 통일신라 양식 조화

영향이 직접 미친 절집중 폐사로 남은 두 곳 중 하나다. 보원사는 화엄사찰이다. 얼핏보면 위치한 곳이 산골인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에는 보원사터 산중으로 길이 많이 생겨나 수덕사나 개심사 쪽으로 오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그것이 새로 닦은 길이 아니다. 예로부터 오가던 길이지만 그동안 사용하지 않아 묻혔던 길을 다시 찾아낸 것이다.

사람은 서로 다른 생각과 마주칠 때 대립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겸손해진다. 그리고 새로운 생각과 기존 생각을 모순 없이 통합해 더욱 완전한 모습에 이르고자 한다. 이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너와 나의 분별이 없는 경지, 곧 깨달음의 경지다.



보물 제104호인 보원사터 5층석탑

충청도 절터들에는 이와 같은 사상과 통찰이 면면히 깔려 있다. 이들 절터의 흔적을 찬찬히 더듬어봄으로써 불교의 역사와 문화 및 사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오늘날 한국의 이념 대립 현상에 대한 시사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의 주요 축인 사진은 절터 현장을 매우 사실적으로 전달한다. 멋이나 장식, 기교 등을 배제하고 담백하게 현장을 담았다. 이는 디지털 기술로 사진을 예쁘게 보정하는 경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실제 그대로를 찍어도 얼마든지 품격 있는 사진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는 한컷 한컷이 그 자체로 메시지가 되는 사진을 수십 번의 답사를 통해 얻어냈다. 그야말로 '발로 찍은' 다큐멘터리 사진의 진수다. 자연의 햇빛을 통해 담아낸 절터 현장의 색감과 질감은 독자의 시각과 촉각을 즐겁게 한다.

다른 한편으로 글에서는 청각과 후각이 특히 두드러진다. 이를테면 저자는 제천 월광사터에서 "마른 낙엽 위로 또다른 낙엽이 떨어져서 서로 부딪는 소리"에 주목하며, 그 "가을 햇살처럼 투명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탐미적인 청각의 향연 뒤에는 이를 관음 또는 관청사상과 연결시키며 감성의 깊이를 그윽하게 더한다. 또한 당진 안국사터에서는 "잎들 마르면서 나는 향기가 새벽의 눅진한 공기에 묻혀서 하늘로 떠오르지 못하고 절터에 가득 차 있었다"며 후각적 즐거움에 흠뻑 젖는다. 이곳에서 역시 안국사터의 매향 및 미륵사상을 고려해 "돌미륵이 하생한 것을 기뻐하며 온 산의 나무들이 자신의 몸을 흔들어 스스로가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향기를 내뿜는 것만 같았다"며 감성과 지성이 어우러진 표현을 일궈낸다.

이처럼 저자는 책 곳곳에서 화려한 감각의 향연을 펼친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탐미적 경향은 타락이나 파괴로 흐르지 않고, 찬탄이나 경건함으로 이어진다. 그것이야말로 절터의 풍경이 오늘날의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움의 정체라고 저자는 말하는 듯하다.

저자 이지누씨는 "충청도 폐사지들중 한강 유역에 존재한 사찰은 월광사, 사자빈신사, 미륵대원사, 청룡사, 김생사이며 바닷가에 위치한 사찰은 성주사와 안국사다. 그리고 산중 교통 요지의 사찰은 숭선사와 보원사로 구분할 수 있다"며 "이처럼 충청도의 폐사지들은 주로 사통팔달의 교통요지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일 기자**

"비우고 놓고 낮추세요. 그래도 큰일나지 않습니다."

그대는 그대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는가

선묵혜자 지음 | 아침단청 펴냄 | 1만4천원





가야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거나 자신이 가는 길이 맞는지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108산사순례를 이끌고 있는 선묵혜자 스님이 인생 잠언집을 펴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를 움켜쥐고 놓지 않으려는 욕심 때문이고, 하루하루가 불안한 것은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는 습관 때문이라는 혜안이 담겨 있다. 비우고, 놓고, 낮추지 않으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강렬한 깨달음과 인연의 소중함에 대해 잔잔한 감동을 남긴다.

이 책에는 상처받은 이들을 위해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조언이자 위로가 담겨져 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이 아프다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마음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잃어버려 아픈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자신도 모른 채 두 손에 무언가를 꽉 움켜쥐고 있어 그것을 지키려니 손도 아프고, 정신도 피폐해진다는게 혜자 스님의 생각이다.

선묵혜자 스님은 그런이들에게 반문한다. "무엇을 그리 꽉 움켜쥐고 있느냐?"고. 그것은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다. 선묵혜자 스님은 이제 비우고 놓아서 편안해지라고 말한다. 비우고 놓아도 절대 큰 일나지 않는다고 용기를 준다.

선묵혜자 스님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이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지식이 없이도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움켜쥐는 대신 놓아보십시오. 채우는 대신 비워보십시오. 남보다 나를 낮은 자리에 두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라고 말한다.

이 책에는 교회와 성당을 다니던 할머니와 어머니를 두었고, 절이라고는 초등학교 때 소풍가서 처음 보았다는 스님이 어린 나이에 불가와 연을 맺게 된 사연이 담겨 있다. 또 열다섯 살 무렵 찬 물에 빨래 하던 스님이 안쓰러워 빨래를 대신 해주신 아주머니가 나중에 알고 보니 육영수 여사였다는 추억담도 눈길을 끈다. 또한 스님이 회주가 되어 9년 여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108산사순례기도회 도반들과의 소중한 인연들도 소개돼 있다. **김주일 기자**

현실적 예화 가득한 마음수행 지침서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지음 | 용화 펴냄 |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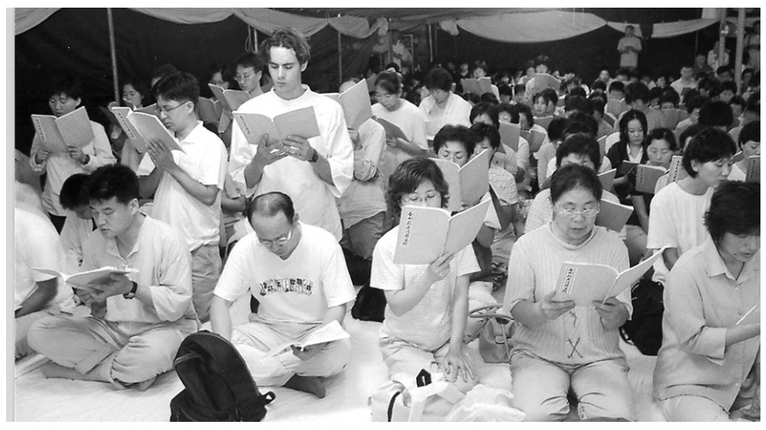


1989년 첫 발간 후 불교 출판계의 스테디셀러로 마음 닦는 이들에게 수행지침서가 된 이 책이 24년만에 개정증보판을 발간했다. 이 책에는 저자의 최근 법문들이 수록돼 있으며, 법문중 나오는 불교용어도 쉽게 책 말미에 풀이해 놓았다.

이 책에 담긴 법문들은 구체적이고 현실 지향적이다. 가령 '자기를 주장하는 마음이 강할때는 지옥이다' 편에 보면 저자는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 앞에서 열등감을 심하게 느끼고 얼굴이 붉어진다. 그들을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배울 마음을 내고 먼저 공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앞에선 누구나 평등하다고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질 일도 창피할 일도 없다"고 행동지침을 자세히 일러준다.

또한 사업 경영, 자녀 교육, 직장 생활, 적절한 배우자를 찾는 일, 경제적 안정, 그리고 원만한 인간 관계 등과 관련된 일상사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책은 그동안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330개의 주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법문들은 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번쯤 고민해 보는 현실적 문제들이어서 머리맡에 두고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꺼내보며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구성했다. 이 책이 꾸준히 사랑받는 큰 이유다.



금강경 독송회 회원들이 함께 모여 〈금강경〉을 독송하고 있다.

특히 업의 작용에 대한 폭넓은 설명과 함께 어떤 특정한 행동이 그 과보로 다음 생에 어떤 몸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는 일화들에서는 많은 정신적 감화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록에 실린 '생활속의 가르침'과 '나라사랑 실천' 등 두 편의 글은 김재웅 법사의 제자들이 정리한 글로 저자의 가르침과 나라사랑 정신이 깃들여져 있다.

마음공부를 주로 하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신행단체중 하나인 금강경독송회는 1973년 설립됐다. 현재 문화관광부에 '(사)청우불교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국내외에 15개 지부를 두고 있다. 본부는 포항 금강정사다

독송회는 메주 · 된장 · 참기름를 생산하고 농사는 물론, 옷가게 운영 등을 통해 모든 것을 자급자족한다. 이들은 절약을 생활화해 매년 1천만 원 이상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15년째 기부하고 있으며 미국 각 지부는 김치와 만두를 만들어 판 수익금을 행사비용에 보태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강경독송회는 금강경 50여 만 권과 문화관련 책자 70만 권을 출판하고 각종 행사를 펼치며 한국문화알리기에도 팔을 걷어 부쳤다.

금강경독송회가 한국 알리기를 시작한 동기는 김재웅 법사가 미국 법회때마다 재미교포들이 인종 차별과 폭력에 주눅들어서 사는 것을 보고난 후 부터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뛰어난 문화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는 8종의 책자 68만9천900권을 인쇄해 배포하기 시작했다.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은 한국어, 영어, 독어, 불어, 중국어, 이탈리아어 6개 언어로 제작했고, 또한 원효대사도 영어로 제작했다. 이 책들은 서울에 주재하는 80개의 각국 대사관 등에 보시됐다. 국제행사와 학술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인사들에게도 전달되고 있다. 2010년 10월 경주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와 11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때 이 책들이 국빈을 위한 공식 선물로 채택돼 총 3천권이 보내졌다.

2005년 책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시작된 한국 알리기 프로젝트는 2008년부터 영상을 보여주는 행사로 확대됐다. 석굴암, 사리함, 대장경, 한글 등 세계 정상의 문화재 영상 9종과, IT, 조선, 건설 영상 등 현대물 6종까지 총 15종의 영상을 한국어, 영어, 독어, 불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일어 7개 언어로 제작해 행사 때 상영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미국, 유럽, 그리고 국내에서 외국인들을 상대로 총 1천300 회의 상영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김주일 기자**

성지관음회에서 직접 스님들께만 알려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신도확보 및 불사에
큰 도움이 될 수있는 새롭고 유익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스님들만 필요하신 방법이며,
스님들만 사찰에서 시행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신도들에게 바로 적용하시면 큰 반응을
얻을 수 있으며……
이 시대에 맞는 새롭고 대단히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 주십시요.
안내책자를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최신판"
띠별(十二支神像型)삼재풀이용봉
호신진언【옴치림】


돼지띠삼재해당자


토끼띠삼재해당자

양띠삼재해당자

급사관 급백재 여사구 률병설 령영삼 사구재 바소팔 하멸난
성명 주소 年 月 日 時生
최신판 띠별(十二支神像型)삼재풀이는 저작권등록이 된 제품이므로 본사의 승인없이 무단복제나 모방할 경우 법적, 경제적 배상을 당하게 됩니다!
청담아트월드 社 www.cdsa.co.kr
TEL (031)912- 7114 희망보시가격 550원
스마트폰 클릭

※ 속지 6장식 들어있음!
2013년(계사년)부터 들어오는 삼재해당자(돼지, 토끼, 양띠) 들께서는 본인의 띠와 같은 봉투에 속옷하나 넣고, 이수에 따라동전을 넣고 스님들이나 법사, 보살님들에게 전달한 후 삼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됩니다!

◆청담아트월드 社 www.cdsa.co.kr
주문전화 : 031)912-7114

◆90부 이상 우송!
(일반 신도분들은 개별적으로 근처 불교 만물상에서 구입하시오!)
계좌번호 : 638701-01-163513 (국민은행) 예금주 : 청담사

김윤경승복
since 1980
김윤경 승복 · 우리옷
www.kyksb.co.kr
◎ 전통의 아름다움과 현대의 기능성이 잘 조화를 이룬 우리 옷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신행단체복, 템플스테이 수련복, 소품 일체 등
◎ 공장 직영 도소매, 다양한 주문생산 가능
언제나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금까지 고객님들께 신뢰를 지키며 많은 사랑을 받아왔듯이, 앞으로도 스님들과 불자님들의 수행과 신행생활에 어울리는 좋은 옷을 제작 · 보급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대표 김윤경(무등심) 합장





주요품목 : 승복, 법복, 생활한복, 전통복 일체, 신행단체 단체복, 수련복, 소품 일체
※ 승복일체, 법복, 좌복, 기타 주문제작 받습니다 (공장직영 도소매)
내 일같이 일할 성실한 분
승복 관련 기술자 모집 ○○명
상담전화 011-9949-4444

서울본점 및 공장 : 서울 중랑구 망우동 563-16 이안빌딩
중랑패션지원센터 801호, 903호 / 전화 02)495-7779
제 주 점 : 제주 제주시 이도2동 416-2 / 전화 064)724-7999
입금계좌 : 농협 178424-56-036570 국민은행 057-21-0932-817 (예금주 김윤경)
E-mail : kyksb58@naver.com

선현사 부설
제1기 용천불교대학
작법반 학인 모집

선현사 부설 용천불교대학에서
작법반을 수강하실 학인을 모집합니다.

◐ 강의내용 : 요잡바라, 천수바라, 나비춤 (3개월 과정)
◐ 개 강 일 : 2013년 2월 5일
◐ 교육시간 : 매주 月요일 오후 2시~5시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본원 구비), 반명함판 사진 1매
◐ 수 강 료 : 3개월 30만원
◐ 연 락 처 : 043)211-4782. 011-9844-1800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선현사 의식 교육원

선 현 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수곡2동 654번지



삼국유사 인문학 유행(遊行)

희명이 「도천수대비가」를 지은 까닭은?

눈먼 어린 아들 눈뜨게 한 발원의 노래

1. 어머니와 아이

한 남자를 사이에 둔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미묘할 수밖에 없다. 가장 가까운 친구의 관계일 수도 있고 때로는 제일 미묘한 애증의 관계일 수도 있다. 부권이 상실되거나 경제가 침체된 불황의 시대에 아들은 아버지를 그리워 하지만, 딸은 위기의 터널을 슬기롭게 지나가는 어머니를 재발견 하게 된다. 아들과 딸에 대한 차별 의식이 적은 갓난 아이 때의 모성애는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점차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성인 아들을 대할 때와 동성인 딸을 대할 때의 느낌이 미묘하게 다를 것이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기가 되면 친구 관계에 상응하는 딸이 되거나 애증 관계가 형성되는 딸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어머니는 자신이 애지중지 뱃속에서 열 달을 키워서 낳은 아이가 인체의 한 기능이 갑자기 마비될 때 참혹감을 느끼게 된다. 이를테면 아이가 갑자기 눈이 멀게 되거나 귀가 멀게 되거나 또는 말을 못하게 되거나 걷지 못하게 되면 어머니의 안타까움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이다. 이때 우리는 불교의 삼세윤회관이나 인과응보설을 상기하게 된다. 반면 이전 생의 삶의 방식이 이후 생의 삶의 방식과 단절되지 않고 연속된다는 삼세윤회와 인과응보의 원리는 순간순간의 삶의 방식을 질적으로 승화시켜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어제의 과거는 흘러가 버려서 내 기억(記憶) 속에 남아있고, 내일의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서 내 예지(叡智)에 의해 파악되지만, 현재는 지금 이 순간 내 인식(認識) 속에서 엄연하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삼국유사』「탑상」의 '분황사 천수대비 맹아득안' 조목은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이 아이의 눈을 뜨게 했다는 기록을 싣고 있다. 지극히 짧은 조목 속에는 노래를 매개로 어머니의 발원(發願)과 천수대비관음의 가피(加被)가 잘 묘사되어 있다. 신라인들은 향가(鄕歌)를 오랫동안 불러왔듯이 이 조목 속의 희명(希明) 역시 간절한 기원을 노래에 담아 부르고 있다. 이 노래는 찬사(讚詞)-기도(祈禱)-주사(呪詞)의 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주가(呪歌)적 기능을 가진 향가가 지닌 보편적 형식이기도 하다.

경덕왕 때에 한기리(漢岐里)의 여인 희명의 아이가 난 지 5년 만에 갑자기 눈이 멀었다. 하루는 그 어미가 아이를 안고 분황사 좌전(左殿) 북쪽 벽에 그려진 천수대비(千手大悲) 관세음보살 앞에 나아가 '아이를 위하여 노래를 지어' 부르며 빌었더니 눈이 떠졌다.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무릎 꿇고/ 두 손바닥 모아/ 천수관음(千手觀音) 앞에/ 축원 올리오니/ 천의 손과 천의 눈을 가졌으니/ 하나 내놓아 하나 덜기를/ 둘 다 없는 저에게/ 하나만 주어 고쳐 주시옵소서/ 아아! 저에게 그리해 주시면/ 자비심 얼마나 크시오니까." (양주동 역) 이 「도천수대비(관음)가」를 현대어로 풀어보면 이렇다. "무릎을 낮추며/ 두 손바닥 모아,/ 천수관음(千手觀音) 앞에/ 기구(祈求)의 말씀 두노라/ 천(千)개의 손엣 천(千)개의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덜어,/ 두 눈 감은 나니/ 하나를 숨겨 주소서 하고 매달리누나./ 아아, 나라고 알아 주실진댄/ 어디에 쓸 자비(慈悲)라고 큰고." (김완진 역) 번역자마도 조금씩의 출입이 있으나 대체적으로 내용은 서로 통하고 있다.

2. 지극하면 통한다

종교의 세계는 이성의 세계를 뛰어넘는다. 종교는 현실의 경계를 넘어서고 현실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어야 이성의 현실을 해결할 힘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종교에서 발휘되는 영험과 기적 현상은 지극함과 가피력으로 이어진다. 하지만 그 지극함과 가피력을 언어와 논리로는 온전히 해명하기 어렵다. 우리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만을 존재한다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희명, 아들 눈멀자 노래 지어
분황사 관음보살 영험 보여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것보다 오히려 비가시적이고 비물리적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다. 빙산의 일각처럼 보이는 표층세계(의식세계)와 달리 보이지 않는 심층세계(무의식세계)가 더 깊고 넓기 때문이다.

분황사는 선덕왕 3년(634)에 낙성된 신라의 대표적 사찰이다. 이웃한 황룡사와 미탄사와 함께 신라의 반월성 가까운 곳에 나란히 자리한 국가 대찰이다.

이곳은 원효대사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절이다. 원효가 입적하자 그의 아들이 설총은 그 유해를 갈아서 생전의 모습과 같이 소상으로 빚어 분황사에 모시고 아침 저녁으로 모시고 예를 올렸다고 전한다. 어느 날 설총이 옆에서 절을 하자 소상이 홀연히 돌아보았다 한다.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1281)할 때까지 돌아 본 소상이 그대로 있었다고 전한다. 이 절에는 7층이었던 모전(模塼) 석탑이 현재 3층만 남아있으며, 당나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한 호국룡이 살았다는 삼룡변어정(三龍變魚井)이라는 우물이 있다. 또 이곳에는 날아가던 새도 속아서 앉으려 했다는 신라의 화가 솔거가 그린 관음보살상 벽화가 있었다. 나아가 이 절은 광덕(廣德)과 엄장(嚴莊)이 이곳에 머물며 쟁관법(錚觀法) 수행을 했다고 전하는 곳이다. 그리고 분황사의 사비(寺婢)로 있던 광덕의 처는 관음보살 십구(十九) 응신(應身)의 하나였다고 전한다.



경주 분황사의 관음보살상

천수대비관음(千手大悲觀音)은 관세음보살의 다른 이름이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로써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는 불교의 대표적인 보살이다. 이 보살은 아승기겁 이전에 이미 성불한 정법명(왕)여래(正法明王如來) 즉 관음여래로 알려져 있다. 서방정토에서는 관세음보살을 무량수불(無量壽佛)이라고도 한다. 나아가 관음과 미타는 한 몸이면서 두 부처님이라고도 일컫는다. 대자대비를 서원으로 하여 중생의 근기에 따라 33가지 몸으로 화현하여 중생을 구제한다. 한 해를 마무리 할 때 서울 보신각 종을 서른 세 번 치는 것은 바로 이 관음보살의 33응신이 널리 퍼져 중생을 구제하기를 염원하기 때문이다. 이 보살은 아미타불의 왼쪽 자리에 머물며[補處] 중생을 구제하지만 일손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관세음보살이 되기를 발원하는 천수행자(千手行者)는 관음보살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의상의 「백화도량발원문」에는 적고 있다.

『법화경』「관세음보살품」에서는 "관세음보살의 명호(名號)를 일심(一心)으로 지극히 부르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케 할 것이다"고 설한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을 비는 대상으로서의 관음보살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관음보살을 불러내어 우리가 대상으로 부르는 관음보살을 도와주라는 것이다. 때문에 바깥에 있는 불보살님께 '무엇을 해 주십시오'라는 청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보살님을 불러내어 '무엇을 하겠습니다'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즉 내 안에 있는 지혜와 자비를 불러내어 그것을 문수와 관음과 같은 보살로 인격화하여 스스로 발원하고 서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문수보살이 되고 관음보살이 되는 것이다.

『법화경』「관세음보살보문품」 즉 『천수경』의 '관음신행'(觀音信行)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 대상을 통해서 주체를 불러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상과 주체의 분기는 사라지고 보살행만이 행해지게 된다. 희명은 천수관음과 같은 모성애로 지극하고 간절하게 천수대비관음을 불러내어 아이의 눈을 뜨게 했던 것이다.

3. 「도천수대비가」의 해석

희명의 아이를 눈뜨게 한 이야기는 같은 「탑상」편의 '민장사' 조목에서 나온다. 우금리(禹金里)의 가난한 여인 보개(寶開)에게는 배를 타고 장사를 다니던 장춘(長春)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장춘이 장사꾼을 따라 바다로 떠난 지 오래도록 소식이 없었다. 그 어머니가 민장사 관음보살상 앞에 나아가 7일을 정성껏 기도하였더니 장춘이 갑자기 돌아왔다. 그동안 일에 대해 물으니 장춘이 말하였다. "바다에서 돌풍을 만나 배가 부서져 동행했던 사람들이 모두 죽고 자신만 판자 한 쪽을 타고 오나라 해변에 닿았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저를 데려다 밭을 갈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낯선 스님이 마치 고향에서 온 듯이 위로하며 저를 데리고 같이 갔습니다. 그는 깊은 개울을 만나자 저의 겨드랑이를 끼고 뛰어

〈탑상〉편에는 난파된 아들 돌아와
모성애와 관음보살 가피 맞닿아

건넜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중에 고향 말소리와 울음소리가 들리기에 자세히 보니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포시(哺時, 오후 3시~5시)에 오나라를 떠났는데 여기 도착한 것은 겨우 술시(戌時, 오후 7시~9시)였습니다." 경덕왕은 이 소식을 듣고 절에 밭을 시주하고 재물과 폐물을 받쳤다고 한다.

다시 「도천수대비가」를 돌아가 보자. 분황사 동쪽 인근에 있는 한기리에 희명(希明)이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예로부터 한기리는 신라 6촌 중의 하나인 금산(金山)의 가리촌(加利村)에 해당된다. 그 시조가 명활산(明活山)에서 내려왔다고 한다. 신라 왕경(王京)이 6부로 개편될 때는 한기부(漢岐部)로 바뀌었고, 방리제도(坊里制度)가 시행되자 한기리로 불렸으며, 고려 때는 가덕부(加德部)가 개명되었다. 『삼국유사』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한기리는 신라 귀족의 호화주택인 35 금입택(金入宅) 가운데 하나인 한기택(漢岐宅, 法流寺 남쪽)이 있던 곳이다. 또 일산 급한의 종이 네 쌍둥이를 낳은 곳이다. 뿐만 아니라 나이 스물 안팎의 처녀가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남의 집에 고용살이로 곡식 30석을 받아 주인집에 맡겨 두고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은 효종랑(孝宗郎)이 벼 100석을 보낸 곳도 한기리이다.

이렇게 본다면 희명은 한기리에 사는 양인 계층의 부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희명에게는 한 아이가 있었다. 아들인지 딸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당시의 여러 맥락을 보면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아이가 나이 다섯 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눈이 멀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를 안고 분황사 좌전 북벽에 그려진 천수대비관음 앞에 나아가 '아이로 하여금 노래를 짓게 하고'[令兒作歌] 기도하였더니[禱之] 마침내 눈을 떴다.

여기서 '령아작가'(令兒作歌)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과연 다섯 살난 아이가 노래를 지을 수 있을까? 서동은 「서동요」를 지은 뒤 서라벌의 아이들에게 마를 주면서 꾀어서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어머니 희명 역시 자신이 지은 노래를 아이에게 따라 부르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 노래는 궁극적으로는 아이의 노래가 되게 하였다.

이것은 찬(讚詞)과 기도(祈禱)와 주사(呪詞)로 이루어진 「도천수대비가」를 통해서 이해해 볼 수 있다. 즉 "무릎을 꿇으며/ 두 손바닥 모아 괴면서/ 천수관음 앞에/ 축원의 말씀을 두노라."라는 찬사(讚詞)와 "천 개의 손엣 천 개의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덜어/ 두 눈 감은 나니/ 하나를 숨겨 주소서 매달리누나"라는 기도(祈禱), 그리고 "아아, 나라고 알아 주실진댄/ 어디에 쓸 자비라서 크시옵니까"라는 주사(呪詞)의 구조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관음보살은 자비의 화신으로 등장한다. 고통을 받는 사람이 지극 정성 발원하여 간절히 기도하면 그 고통을 다 들어준다는 보살이다. 아이에 대한 지극한 모성애를 지닌 희명과 보개(寶開) 그리고 의상의 제자가 된 진정(眞定)법사의 어머니나 불전 앞에서 한순간에 평소 그리던 여인과의 사랑에 빠졌던 조신(調信)을 깨어나 참회하게 한 보살은 모두 관음보살이거나 관음보살의 화신이었다. 중생에 대한 가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정법명왕여래 즉 관음여래였다. 그 모습과 정신은 아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 했던 신라 어머니들의 지극한 모성애로 이어졌고 지금도 한국 어머니들의 모성애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참고문헌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가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가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이도흠,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푸른역사, 200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2005; 2007).



고영섭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현대불교신문 · 미얀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얀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얀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얀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얀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얀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얀마 극빈촌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얀마연방정부 추대 미얀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밝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얀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얀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얀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립 불사에 지원 가능합니다.

- 신뿌 출가의식 지원
신뿌는 미얀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험 행사이며 미얀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뿌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따야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은 미얀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얀마 문화원을 통해 미얀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 의 : 미얀마문화원 상영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격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얀마문화원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6×4.6) 4만원, 1Box (9.2×4.6) 8만원, 상단 Box 12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옛날 소를 먹이는 사람이 자기 소는 버리고 남의 소를 세어 자기의 소유로 생각했다. 그래서 버려 둔 자기 소는 모진 짐승에게 해를 당하거나 숲 속에 잃어버려 그 수가 날로 줄어들었지만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 공부하는 사람이 스스로 법을 따르지 않고 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한다면, 마치 저 소 먹이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는 줄 알라. 스스로 자기를 바루지 못하고 어떻게 능히 남을 바룰 수 있겠는가."

– 출요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역학계 최초!

40년 지도경험 총정리
물상 비법전수
숨어있는 조상영가의 비밀전수
(수강즉시 상담가능, 책임지도)
– 사주, 궁합, 작명, 이사, 택일
– 영가지도, 퇴마, 빙의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동양철학 특별할인 판매

동양철학 - 서화당인생풀이 Ver 2.2
(인장성명학과 네오헬스 CD 제공)
동양철학CD, 만세력 2045년까지 구성
생년, 월, 일, 시만 알면 *인생풀이가 척척*
인생총운, 가족운세, 애정운, 건강운 등
총44만원을 *50%할인 후* -> 22만원
www.사주천하.com
익일특급배송 010-8888-4684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 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빙의(신병)출장 퇴마해 드립니다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발명특허 출원내용 : 뒤 틀인 척추, 골반, 고관절 각도, 다리길이 불균형을 바르게 하는 운동기법 디스크, 협착증, 좌골신경통,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위 증, 척추측만증, OX다리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운동법
배울 분, 받을 분 한번 오시면 해결가능
혜경선사 011-829-7582

찬찬히 잘 읽어 보세요

오래된 위장병. 대장질병. 심장병. 당뇨병. 간질. 화병. 우울증.무기력, 부부문제. 정신질환. 피가 탁해서 생긴 신장병. 신내림 병. 임신이 어려워 고생하는 불임증. 강박증. 성기능 장애 불면증. 비만. 강박장애. 암투병 등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환자
문제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메모하고, 연락하세요.
Medicine Buddha MindOne (마인드원)
032) 434-5990
010-8730-569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함 월 선 원 (참선수행)

바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참나를 찾는 수행공간
생활속 수행을 원하시는
모든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052)243-4900

약꿀 판매

스님이 일년에 한번 채밀,
벌통에서 자연 숙성
약으로 드실 분
염불선원 만리산 태자사
054)859-5580

서 류 대 행

전통사찰 등록
문화재 등록
법인 종교법인 등록
법인 아닌 법인 등록
010-9476-9001
성산개발

동영상 역학 강의

용신, 실전사주. 고급 - 일진내정법
(명반법, 낙화법), 육효, 기문둔갑,
성명학, 저렴한 수강료.
단기간에 쉽고 확실하게 배울 수 있음
범 천 명 리 강 의 실
02)389-6597
www.beumchun.com

양 도 공 고

(법원 등기된 종무법인임)
법인불교단체 양도
법인종단 양도
불교법인 양도
011-412-8040 법광

전수생 모집

사주 명리학, 천고비전 육임학
기초에서 실기까지
육임은 백법까지
성심껏 지도해 드립니다.
031)642-6011
011-729-6011

한글본 대장경 구합니다.

031)386-1569

염불CD판매

〈 우리말 예불1집 〉
한문예불을 우리말로 변역하여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선용스님의 우리말 예불
〈정토선음악염불〉
극락세계 염불방법을 통해 쉽게 염불삼매를
성취하는 선용스님의 수행용 염불
구입처 : 전국불교용품점
010-8108-0715

아직도 법당에 보살들을 세우시렵니까? 이제 직접 스님들께서 천도의식을 진행하십시오

한국무용 배우실 분
살풀이, 승무, 극락무, 지전무 등등
스님에 한하여 수강해 드립니다
(부산 보성암)
보성스님 010-8510-0108

누진세 없는 전기시설로 바꿔드립니다

여권사진4장, 직인1장, 임차인건물주사본1, 자세한 이력서(취미,종교,직업기입), 주민등록등본(1개월내발급), 동잠비 100만원
주택종교시설, 불교신자, 생활포교
070-8849-3011

황토, 상황氣, 참숯, 참솔잎, 뜸, 훈증, 좌훈

침대 누워서 허리뜸,
배에는 전단뜸, 앉아서 좌훈뜸,
편안히 무릎뜸, 상황버섯
48시간 달인 물로 황토 반죽
직접 수작업 허리 관절 혈액순환
여성질환 잃어버린 건강 꼭 찾아
장수하세요.
www.wellgang.co.kr
운봉사 011-573-4438

출가자 및 초보부전 (비구니) 모집

학력과 나이에 관계없음
3년 공부 후
소임부여
010-6429-5076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김해)
011-9514-372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40대 전후)
010-4800-0882
1899-4747

천년고찰 고성 운흥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나이제한 없음
055)835-8656

백발 백중 정확한 비방술을 출판하였다

*일반서점에는 공급하지 않습니다
● 정가 25만원
농협 : 352-0284-3938-73 하영옥
010-4735-3232

심 와 기 도

● 神과 疏通하는 기도가 심와기도며
이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에게 일러드립니다.
☎ 032)664-0048 / 011-741-0867

점성(占)비법 전수자 모집

1. 吉凶 영가찾기 2. 이름작명 (한자速成학습법) 3. 풍수
* 스님 특별강좌 * 타로교육
◆ 역 술 상 담 법 ◆
● 기 초 반 : 4주 완성 (선착순 8명) / 교재비 포함 5만원.
● 고 급 반 : 24주 완성
● 점성영업법 : 6주 완성 (선착순 3명)
● 특전 : 사단법인 한국역술협회, 사단법인 한국역리학회 상담자격증 취득됩니다.
전화 02)977-1389 (수시상담 가능)

종무소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강남)
40대 전후, 컴퓨터 사용 가능하신 분.
010-8943-415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 문경 쌍룡사)
054)541-6753

불교노인병원 한의사 구합니다

(경남, 60세 이상)
010-5579-040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234-2198
010-8721-2198

무형문화재 범음범패

(사) 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본산
제9호 영산재 연수원(바라 작법) 3개월 과정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제9호 천수바라 오공양작법무 사물 불교의식
특전 1) 본교(졸업)우수한 자는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추천
2) 부산시 문화재행사 출전 실무
3) 다게 • 운심게 작법반
사찰행사 전문 (점안대법회, 산신, 수륙대재, 천도(49)재)
부전스님 사찰 연결드림 총무스님 010-5511-7000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 이제는 신(神)의 세계를 바로 알고
자신의 죽음 이후 사후세계를 준비해야 한다!!!
● 사람 몸 안에 사람을 지배하고
아프게 하는 존재인 악신이 있다!!!
● 신 내림을 통해 악한 신을 받을 것이 아니라
성신의 도로 싸워야 한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사 주 운 세

10초 내 맞추면 수강 (여자) 신청하시고
상담은 통장 입금 상담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통달
010-5498-5067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출퇴근 가능자)
(대구 개원사)
010-2828-0664

신심이 돈독하신 법당 보살님과 행자를 모십니다 종무소 여직원 구합니다

근무지 : 순천시내
출퇴근 및 숙식가능
010-4608-5945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동대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호주, 이스라엘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직강!
– 목, 금요일 오전반, 화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의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神내림 받아야 할 운명은 없다



모든 조상신, 동자, 장군신 등을
처리하고 산소, 집터, 제도, 전생, 천도,
빙의퇴마, 우울증, 神내림 해결
055)623-2202. 010-5159-5778
TV다수출연 (대구 남구 대명동)
네이버 블러그 : 한마음 세성제 世成齊

불사용(佛事用) 달마도 보급안내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청암 친필 달마도를
정성껏 저렴하게 그려 드립니다.
보급처 051)202-8770. 010-2953-8770
부산청암달마원
* 달마도 전문 표구사 직영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제행 지음 / 북갤러리출판
값 13,000원 (전국서점판매)
전화주문 031-842-8023
011-772-4606
농협 552-01-047918(대한불교비룡정사)
내용 (1)마음의 치유 (2)빙의퇴마
(3)무당 (4)사주팔자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1-544-9777
051)721-6444



사라져 가는 팔공산 범음 범패 염불소리를 살리고자 (동현)소승이 교육원을 개원하고 제 1기 수강생 을 모집합니다

교육현황

초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6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3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초발심자경문, 사미율법, 바루공양법, 요령목탁사용법, 천수경, 반야심경, 새벽도량석염불, 팔공산소리새벽종성염불, 각단예불, 각축원편,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식

중급 의식 염불과정		
일반	12개월	(주1회 2시간)
속성	6개월	(주1회 3시간)

▷과 목 : 시련, 삼신이운, 104위신중작법, 시다림, 49재천도의식, 다비편, 방생편, 각종고사, 각점안식염불, 구병시식, 생전예수재의문

특수 작법	
6개월 과정	(주1회 2시간)
* 작법은 (일반) : 속성이 따로 없음	

▷ 복청게, 사다라니바라, 천수바라, 사물타법 도량게(나비춤), 오공양작법, 화청

모집인원
● 35명 (선착순) ※ 개강 이후 1기 졸업시까지는 중간에 수강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모집기간
2012년 12월 1일 – 2013년 2월 28일까지 마감
※ 신청하실분은 본원에 직접 나오셔서 접수하시고 교육일정 시간표를 꼭 받아가십시요.
그리고 수강신청 접수하시고자 본원에 오실때는 필히 명함판 사진 2매를 가지고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첫수강일
2013년 1월 22일 오후 3시 (초급반 일반부)
※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교육원 원장스님과 직접 상담하여 주십시요.

▶ 교육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851-2666 / H·P 010-3424-0108

대구불교의식 범음 범패 교육원 원장 동현 합장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서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 재 분량) 요청에 의해 보내드립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나무차 소개」 방영
■ 2010년 10월 24일 일요일 – 오전 7시 20분 MBC TV "고향이 좋다」「마가목」 효능방영

한방문헌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상담문의 전화번호 : 031)773-7838 참나선원 대진스님
※ 수행선원이나 강원스님께 대중공양하실 불자님 연락바랍니다 ※
· 제 조 원 : 구암식품 · 식품제조업 : 대구 북 제00619호
· 온라인통장(농협) : 227027-51-090791 · 예 금 주 : 남궁성균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 절 염 · 통 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소식

당 뇨 · 고 혈 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 ~ 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제집중 !!!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 대리점 모집 중

불 자 정 보

▷ 마 감 : 매주 월 ~ 수요일.
▷ 문 의 : 02) 2004-8215 / FAX 02)737-0696 / e-mail : jabi82@naver.com
▷ 가 격 : 기본규격 50,000 / 가로 7cm 70,000 / 가로 10cm 100,000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사람은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없다.
무엇이건 빼앗아 사는 사람, 작은것을 빼앗고 큰 것을 바라는 사람,
상대방의 힘이 클 때만 찾아오는 사람, 자신에게 이익되는 일만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은 결코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없다.
– 아함경 –

사 찰 안 내

삼보도량은
스님들의 도량입니다.

- 위치 : 서울
- 법당 : 40
- 요사 : 60
- 대지 : 230평
- 산신각 기도처
- 가액 : 20억

- 위치 : 금산
- 법당 : 20평
- 요사 : 40층
- 총 : 560평
- 가액 : 1억8천
- 최고 보시면OK

- 위치 : 서울
- 인법당 : 25평
- 가액 : 1억 3천

- 전세. 월세 급구
연락 주세요.

※서울 경기 근교 포교당 전세암자 급히 구합니다.
법률, 세무, 무료, 상담. 매매, 전, 월세, 경매, 분양 등 상담환영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찾고있는분 많음, 매물 접수 합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북
- 법당 : 23평
- 요사 : 80평
- 부지 : 19,000
- 가액 : 9억

- 위치 : 경기포천
- 법당 : 18평
- 요사 : 43평
- 부지 : 430평
- 가액 : 4억

- 위치 : 전남
- 법당 : 20(목조)
- 요사 : 100평
- 부지 : 1300평
- 가액 : 3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절

- 총 대지: 약 2.700
- 법당 약 50평, 요사채 40평, 산신각
- 바다전망 최고, 사찰 뒤편 산
- 텃밭 300평
- 가액: 6억 8천만원

대구 금오산 자락

- 총부지 : 870평
- 법당 30평, 요사채 및 산신각
- 계곡 물 철철, 산세 최고
- 양도가액: 3억 5천만원

부산 사찰 전문
연산공인중개소

※ 부산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다량확보
직011)560-8522,051)863-6622

<다음카페 : 이박사 공인중개사>

♣ 사찰안내는 사찰부동산전문 이박사에게 ♣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매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방문접수.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당, 사찰부지 매매,임대 전문중개사

직통 : 010-7347-1010 <이박사(이규철)드림>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 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010-8980-4789 (사찰전문 공인중개사)

사 찰 터 안 내

- 위치 : 고성군 동해면 내산리
- 평수 : 150평 법당1층,2층 총 60평
- 요사채 3동 : 27평, 창고: 10평
- 전망 전국 최고 명당으로 바닷가를 접하고 있음
- 불교학당이나 종단 강원 적합
- 진주-창원-통영 30분거리
- 가액 : 9억7천만원(절충가능)

010-8948-7948

도심포교토굴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내
- 평수 75평, 단독
- 전망 좋음
- 총가액 250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 시설비 1500만원(협의가능)

광 양 토 굴

- 위치 : 전라남도 광양읍
- 평수 100평
- 법당, 요사채 4개
- 총가액: 2000만원
- 보증금 무/년 100만원
- 모두 몸만 오시면 됩니다
- 시설완비

010-5439-3005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신도시 내
- 6층 건물 중 3층
- 실평수 118평(분양 190평)
- 가액 : 4억(융자 1억 포함)
시설비 3천만원(조절가능)

010-6328-39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 시내IC10분거리
- 대지 : 500평. 등기필
- 주변 산세좋음
- 대웅전, 요사채, 황토방
- 몸만 오시면 됨
- 가액 : 1억 8천만원

054)337-3687
017-517-3687

도심속의 사찰

- 위치 : 부산시 청학2동
- 평수 : 57평
- 완벽한 시설로써 비구니 스님 적격임
- 1층 : 요사채(도시가스 시설)
- 2층 : 법당과 스님방
- 가액: 2억9천만원(수정부분)

010-3732-5237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시
- 평수 : 38평 2층 건물중
- 1층: 공양간 및 방 3칸, 2층 법당
- 도시가스 완비, 전철과 시장 1~2분거리, 시설비 없음
- 가액: 1억 8천 5백만원(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010-3578-499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문수산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3층, 옥상이용 가능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시설 일체 완벽

011-217-929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구미시 원평 2동
- 중앙시장 입구
- 평수 20평정도
- 방2, 법당
- 전세 1천만원, 월 40만원

010-2418-6222

도심포교원안내

- 위치: 경주시 중앙시장입구
- 4층건물 3층
- 80평. 시설완벽
-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도보 5분
- 소임으로 급양도
- 1000-35-1300

010-5214-7872

사 찰 안 내

- 위치: 울산 경관 좋은 사찰
- 대지 약 1천평
- 대웅전 60평
- 요사채, 지장전, 나한전, 삼성각
- 깨끗한 계곡물과 암반이
- 아주 멋진 곳임
- 가액: 8억 8천만원

010-5346-4138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 3층 약 50평
- 모든 시설 완비
- 몸만 오시면 됩니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51)506-4038

포 교 원 안 내

- 부산시 영도구 남항동 2가 큰대로변
- 3층중 2층 38평
- 보증금 500만원 월세 35만원
- 시설비 답사후 결정 (2000만원)
- 불, 아미타, 약사, 관음, 지장
- 후불탱화, 신중, 칠성, 산신, 관음, 지장

010-4880-1533

토 굴 안 내

- 위치 : 대구시 남구
- 한옥 독채 대지 약 80평(월세)
- 방 6개, 화장실 2개, 욕실, 거실, 법당
- 아파트식 올 수리
- 보증금 1천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3500만원 (절충가능)

010-4056-5677

사 찰 안 내

- 위치: 용인시 묘현면 에버랜드 근처
- 대지 100평, 건물 45평, 화장실2, 방3
- 법당, 삼존불, 산신각, 소불, 지장 등 16나한, 주차장완비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4000만원 (절충가능)

010-4732-4849

포교원안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연산1동 4층건물 중 3층 전체
- 평수 : 100평, 방4개, 화장실, 남 · 여 스님용 공양실 등
- 아미타4자, 관음, 지장, 순금개금, 삼존불 및 법당, 신중탱화, 산신각
- 에어컨80평, 용등3대, 온풍기80평 외 시설완비
- 보증금 4천만원 / 월 85만원
- 시설비 8,000만원

010-4719-5388

사 찰 터 안 내

- 위치: 경북 경주시 산내면
- 소재지에서 5분거리
- 문복산 자락 명당절터, 총 4만평 (임야 3만8천8백, 농지1천2백평)
- 개울물이 철철흐르는 산허리 명당절터
- 전기배설시설은 마을에서 200미터 거리임
- 가액:2억2천만원

010-4856-2626

사 찰 안 내

- 충북 단양군 대강면 남천리 31번지
- 건평23평 대지100평외 과수원밭 1,500평(6년생사과나무 250주있음)
- 아주예쁘게지어놓은 황토집이며 법당
- 효험있는 천연노천불(약사여래불)있음
- 물좋고,공기좋고 전망좋은 단양온천진입로
- 가액:3억(마음에있는분 가격조절)

010-5380-8265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시 북구 대현동
- 4층건물중 4층(총65평)
- 법당(25평), 방,화장실, 거실,공양간(옥상사용가능)
- 삼존불,영단, 탱화(산신,신중,용왕)
- 보증금 1천만원 월50만원
- 시설비 1천5백만원

010-2542-2227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구 칠성시장 사거리
- 3층건물중3층 총88평
- 법당60평,석가모니불,문수,지장, 관세음,보현보살
- 신중,산신,영가단, 시설은 최상급(즉시법회가능)
- 방2, 친견실, 공양간,화장실별도
- 5만평사찰불사 인연으로 급히양도코저함
- 가액: 보증금1천 월90만원 (시설비별도절충)

010-4912-3373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함안군 칠서면
- 건물30평,법당,요사채
- 삼존불,각단탱화
- 아득한동네 뒤편야산
- 가액: 2천5백만원(시설비포함)

010-8797-1442

포교원안내

- 위치: 대구 수성구 요지
- 지하철 입구 바로 2층
- 약 30평 • 시설완벽
- 보증금 1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천만원(절충)
- 포교, 상담, 교육 최적지

010-9690-8275

포교원(급)안내

- 위치: 강북구 수유동
- 큰 대로변 상가 3층
- 평수 30평, 등 200개, 인등 200개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60만원
- 시설비 1500만원
- 답사 후 절충가능
- 시설일체 완벽

010-2126-2526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1동 275-79
- 평수: 30평
- 보증금 : 일천만원, 월 25만원
- 시설비 천오백만원
- 아미타, 약사, 천수관음, 지장보살 종까지 일체 있는 그대로 양도함

011-590-5758

농 가 주 택

경북 영양 농가 보일러
불 때는 건물 18평 대지
77평 등기 확실차
진입 농촌에 살고 싶은 분
가액: 1,900만원 반값 급양도

010-8899-8899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산사
- 부지 : 220평
- 법당 : 60평, 목조
- 요사 : 50평
- 양도 : 18억3천만원

- 위치 : 경기
- 부지 : 220평
- 법당 : 35평
- 요사 : 50평
- 양도 : 6억2천

※ 40년 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운영 구하는 사찰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02)723-4082
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氣가 있는 월출산 명당터
- 부지 1600평
- 건물 : 법당, 요사채, 문간채
- 산신각, 화장실, 공양간, 창고, 주차장
- 가액: 3억 (답사후 조정가능)
- 주지스님 지병으로 급 안내

010-3640-1494

포교원이 꼭 있어야 할 곳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헌화리
- 평수 : 108평, 3층 상가 건물 3층
- 아파트 및 상가가 밀집되어있고 초, 중, 고 학교가 주변에 다 있음. 포교하기가 정말 좋습니다.
- 주변이 아주 조용하고 깨끗합니다
- 아파트 만여세대와 인구 7만이 거주하고 있음
- 포교원이 꼭 있어야 할 곳입니다

011-9254-2353 원호

수련원이 꼭 있어야 할 곳

- 위치: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 평수 : 106평, 3층 상가건물 3층
- 21세기 서해안시대 (안중)삼성반도체
- 국제자유무역도시 평택 국제 항구도시 국가포승공단 배후 도시입니다. 요지임
- 심신이 엄청나게 피곤하여 각종질병 성인병 스트레스 고질병이 난무하는 이때 몸과 마음이 꼭 필요로 하는 수련원으로 활용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011-9254-2353 원호

포교원(급)안내

- 경북 칠곡군 양목면 복성리
- 역전 앞 위치 상권 좋음
- 평수 : 45평 2층
- 보증금 +시설비 2천만원 월 10만원, 방사 2
- 몸만 오시면 됨, 즉시법회 가능
- 급한 사정으로 급양도함

054)972-4442
010-6325-2089

365 좋은인연

사찰대출안내

32년의 역사와 자산770억원을 자랑하는 형산새마을금고는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불교은행**입니다.

새로운 **불사**나 **사찰매매**와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시거나 **사찰이라는 이유만으로 아직도 비싼 이자**를 물고 계신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전화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것 입니다.

형산새마을금고의 사찰대출은 이런점이 좋습니다~

1. 1억원 대출시 월이자가 60만원으로 저렴합니다 !
2. 위약금없이 형편에 따라 조금씩 갚으실 수 있습니다 !
3. 대출기간은 5년이며 만기시 연기가 가능합니다 !
4. 단체명의사찰과 종단 소속사찰도 대출가능합니다 !
5. 강원도 부터 제주도 까지 전국 어디든 가능합니다 !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365 친절상담
상무 이 강 욱
☎ 010-9842-4200
과장 김 상 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 찰 화 재 보 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탈 종 공 고

- 사 찰 명 : 거암 수불사
- 주 지 : 청련 (이연근)
- 신도회장 : 법성 (권기일)
-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진성프라자 8층

위 사찰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3일

한국불교법륜종 총무원장 법하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

마크 네포 (미국 철학자 · 시인)

"내려놓으면 걸림없는 삶으로 다시 태어나"

매 순간의 죽음

호흡은 모험의 기본 단위이자, 우리를 진실한 삶으로 인도하는 내적 용기의 근본이다. 숨을 쉴 때마다 우리는 열고 받아들이고 놔버리는 훈련을 한다. 바로 코 밑에 스승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불안할 때는 호흡에 유념하면 된다.

우리는 툭하면 삶의 방식을 바꾸리라 다짐한다. 하지만 새로운 상황들이 닥치면 여전히 낡은 행동양식에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두려움이나 불안에 사로잡히면 반사적으로 집착하거나 속도를 높이거나 뒤로 물러난다.

집착이 생긴다면, 내려놓을 순간이 되었다는 의미다. 급하게 속도를 높여야 할 것만 같다면,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미다. 도망치고픈 충동이 인다면, 자신과 직면할 기회가 왔다는 의미다. 이럴 때 명상을 하면서 깊이 호흡하면, 점점 강해지는 불안에 재동을 걸어 마음의 균형을 잡고 다른 방향으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불안의 외적인 순간들이 아니라 진리의 내적인 순간들이다. 물론 사건이 일어나면 피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붙잡아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과 진리, 신, 변화와 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알던 것들을 너무도 꽉 부여잡고 있다. 스스로에게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말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 점이다.

마음속의 모든 은밀한 짐들, 실패와 잘못에 대한 기억과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모든 후회와 기대를 내려놓으면 과거의 사고방식은 죽음을 맞이한다.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걸림없는 삶으로 인해 순수한 영혼으로 다시 태어난다.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고 싶다는 생각만 해도 기가 질려버릴 때가 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25년 혹은 50년간 쌓아온 벽을 어떻게 허물어뜨리지? 천천히 숨을 쉬면서 하나씩 제거해보자.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것들을 호흡하는 순간순간에 내려놓는 것이다. 자유롭게 놔버리고 자신을 믿으면, 짐을 자처했던 바로 그 존재가 우리를 인도해줄 것이다.

감정 청소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흔히 느낌으로 길을 더듬어나가기보다 생각으로 해결하려 든다. 그 편이 더 쉽기 때문이다. 우울한 감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사랑하는 사람의 화나 슬픔을 풀어주려면 무엇을 없애거나 고쳐줘야 할까?

돌이켜보면 나도 단순히 느끼고 넘어가도 될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 내 감정을 분석하곤 했다. 물론 잘못된 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사실 치유와 발전을 위해 반드시 느끼고 넘어가야 할 슬픔과 좌절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다.

이것은 모두 지극히 인간적인 일이다. 고통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베인 자리나 상처 난 부분을 구체적으로 끄집어낼 수 없을 때는 더욱 그렇다. 우리의 가슴도 마찬가지다. 드러내거나 꿰맬 부분이 안 보여도 온갖 곳이 영향을 받는다.

우리는 분석하고 전략을 세우고 마음을 다잡는 데만 정신을 쏟는다. 그러면 물론 다시는 똑같은 식으로 상처를 입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상처에 공기를 쐬어주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가슴에 상처를 입었을 때는 혐오감이나 자기연민에 빠지지 말고 그냥 한마디 내뱉으면 된다. "아야!"

슬픔의 유산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많은 부모 탓에 부모의 슬픔까지 떠안고 자란다. 흔히 형제자매보다 더 여리거나 예민한 아이가 누구도 떠안고 싶어하지 않을 문제의 해결사로 선택된다. 참 요상한 운명이다. 나도 그런 아이였다. 나는 너무 예민하고 감성적이며 몽상적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다. 삶의 불가피한 고난들이 우리 가족을 덮치면서 나는 무감각이라는 가족의 짐을 떠안게 됐다. 감성적인 능력을 인정받거나 평가받지도 못한 채 가족의 슬픔을 내 예민한 가슴으로 감당해내야만 했다.

덕분에 나는 누군가와 고통을 함께하는 것과 고통을 견뎌내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깨달았다. 고통에 빠진 사람들은 감당하고 싶지 않은 감정들을 떨쳐내는 수단으로 사랑하는 이의 관심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폭풍우 치는 동안 전류가 땅속으로 스며들 듯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흘려보내려 한다. 타인들에게 자신을 잡아달라고 용감하게 부탁하지도 못하고, 그들이 슬픔이나 고통을 받아주기만을 바란다.

어른으로서 나는 진정 나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어느 감정이 내 것이고 물려받은 것인지 혼란스럽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들은 타인들의 정서 상태에 책임감을 느낀다.

감정을 구별해내는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미묘한 일이다. 자기 안에 머물 수 없을 때 우리는 의존하려 든다.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다스리거나 보살펴주기 전에는 결코 마음의 평화를 느끼지 못한다. 연민의 마음이 우러나서 그런 것은 아니다. 슬픔을 떠안은 자에게는 이것이 불안의 짐을 내려놓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다른 식으로 반발하면 타인들은 물론이고 스스로에게도 무감각해지고 고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인들의 감정이나 우리가 느껴야 할 중요한 감정들을 차단하지 말고 가슴에 적절한 물꼬를 터줘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훈련을 통해 타인들의 슬픔과 고통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의 심장 조직은 강하면서도 가볍다.

"내려놔. 흘려보내. 세상이 너를 인도할 거야." 하고 속삭이는 바람 소리를 들을 만큼 강하고도 가볍다.

탐욕

우리는 흔히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하거나,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욱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한다. 이로 인해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고통을 당한다.

무언가 부족하고 나만 소외됐다는 느낌에 전부를 원하는 것은 일종의 탐욕이다. 하지만 인간인 이상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 이 모든 긴장에서 지칠 줄 모르는 갈망과 삶의 열정이 일어나지만, 결코 충족되지 않는다. 이런 사고방식에 갇히면, 아무리 여행을 자주 하고, 넘치게 사랑을 하고, 많은 성공을 거둬도 부족하기만 하다.



탐욕은 모든 것에 허기 드러내
명상 · 호흡으로 마음균형 잡자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
반드시 넘어야 하는 삶의 문턱

그렇다고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탐구나 미지로의 모험을 그만두라는 말은 아니다. 나는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한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결핍감의 씨앗이 남아 있으면 어떻게든 보상받기 위해 한쪽 눈은 내가 가진 것에, 다른 쪽 눈은 내게 없는 것에 고정하고 삶을 질주하듯 살아가게 된다는 점이다.

탐욕은 돈에 국한된 문제만은 아니다. 탐욕은 모든 것에 허기를 드러낸다. 스스로 뒤처졌거나 부족하다고 믿으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원하게 된다. 우리에게 없는 것이 고통을 치료하거나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주고, 우리가 맛보지 못한 그것이 생기를 불어넣어줄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실 모두에게 사랑받고픈 허기를 채워주는 것은 가슴에 새긴 한 가지 경험이다.

삶이 내게 바라는 것

사람들처럼 나도 본래의 자기를 숨기지 말라는 요구에 끊임없이 부딪힌다. 완전한 내가 돼야만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에 거듭 놓이고 마는 것이다.

오랜 친구와의 불균형한 관계를 청산할 때나 연인의 말에 귀기울이지 못하는 조급함을 인정할 때, 동료를 향한 질투심을 인정할 때, 주차공간을 새치기하는 이방인의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마주할 때 나는 깨닫는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그 순간에 존재해야 함을. 나의 완전한 본성을 억누르지 말아야 함을. 그렇지 않으면 삶이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리라는 것을.

온전히 나 자신으로 존재하면 충만감이나 완전하다는 느낌이 찾아온다. 어떤 것도 숨기지 않고 진정한 자신으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이기도 하다. 이 문턱을 넘지 않으면 삶은 발전하지 못한다. 이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삶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만다.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자신의 거짓들을 드러내야만 신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무리 미묘한 것이라도 모두 공개해야만 진정으로 존재할 수 있다.

억누를수록 우울은 커진다

내면의 것을 끄집어내고 표현할수록 더욱 생기 있는 존재가 된다.

삶의 고통을 표현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가 걸어가는 길 사이의 장애물은 줄어든다. 하지만 억누르고 움츠러들수록 우리는 점점 작아진다. 우리의 가슴과 일상의 경험들 사이에 무언가를 틀어막으면 막을수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직접적으로 삶을 느낄 수 있다. 표현하지 못하는 삶은 굳은살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리기 때문이다.

굳은살은 손질할 수는 있어도 완전하게 제거하기는 힘들다. 이로 인해 삶의 경험에서 따뜻함과 절절함이 사라지면, 우리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못된 결론을 내린다. 눈에 안개 같은 혼탁한 막이 드리워진 사람들에게 세상은 더욱 흐릿하게 보일 뿐이다. 사실은 그들의 눈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도 말이다. 표현하지 못한 것들이 가슴을 덮어버리면 가슴은 생기를 잃고 만다. 이것도 모르고 갈수록 세상이 재미없다고 느낀 적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스스로 자초한 문제들을 포함한 이러저러한 이유로 가족이나 집단 속에 있을 때는 언제나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 근원적인 이유는 자기밖에 모르는 어머니가 무서워서 어떻게든 그녀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나는 오랫동안 상처나 거부감을 표현하지 못했다. 이런 감정이 쌓이고 쌓여 굳은살처럼 가슴 가장 깊은 곳을 에워쌌다.

예나 지금이나 나는 언제나 개방적이고 정서적으로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누구도 나의 핵심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어머니 때문에 생긴 문제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러다 드디어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세상이 퇴색되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깊은 감정의 색채들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런 사실을 한 문장으로 이토록 차분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만 봐도, 이런 자각을 매일의 의식 속으로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더뎠는지 잘 알 것이다. 하지만 내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느낌을, 내가 보이지 않는 존재 같다는 느낌을 인정하고 표현하기 시작하자, 내 안에서 서서히 이런 자각이 일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건, 우리의 진정성은 겉으로 표현된 부분은 물론이고 억눌려진 부분과도 연관돼 있다. 화초는 뿌리가 튼튼해야 꽃을 피울 수 있다.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다. 우리 안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가 어떻게든 땅을 비집고 올라와 외부 세계에 싹을 틔워야 비로소 그 아름다움이 드러난다. 표면과 심층, 꽃과 뿌리, 겉으로 드러난 것과 안으로 숨긴 것 사이의 미묘하고도 역설적인 땅. 진정 자신의 삶을 살게 될지 아닐지를 끊임없이 결정짓는 것은 이 약간의 땅이다.

이 글은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흐름출판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두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래야 역학입니다 –

15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이신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혜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5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외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고액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겐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안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5년만에 10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대부분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인터넷으로 검증해보세요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을 입력하셔서 무료동영상 강좌보기를 클릭하여 DVD 동영상 1 • 2부를 시청하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를 신청하세요
- 교육기간 : 누구나 2개월 완성 (국내외 제자 1000여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60일 완성) / 풍수지리(양택,음택) 포함 (90일 완성)
- 두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유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두달 공부하여 혜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
개인지도 받으실 분 숙식하시며 쾌적하게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안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요.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50만원, 할부가격은 17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9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40만원)
◆ 계좌번호 : 농협 351-0001-3753-03 (예금주 : 대한불교일월종 추명사)

강의 및 감정요일
대구 : 월, 화, 수
서울 : 목, 금, 토

사단 대 한 불 교 법인 사주명리 연구학회 추명사 백운 성수, 도영 합장

대구광역시 동구 중대동 450번지 전화 053)255-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추명사 서울포교원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68-24 (지하철 5호선 화곡역 7번출구) 휴대폰 010-9217-2237

악행 넘치면 큰재앙 오고 천지 다시 시작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4)

세 가지 큰 재앙

천지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를 1겁이라 한다. 겁이 다하여 세상이 무너지려 할 때 화재(火災)가 일어나게 되는데, 모든 인간들이 정(正)을 버리고 사(邪)를 좇아 열 가지 악행만을 다투어 행한다.

하늘은 오랫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 씨를 뿌려도 나지 않고, 물이란 물은 모두 마르며, 바다 밑으로 들어간 바람이 해를 수미산으로 옮긴다. (〈잡아비담심론〉에서는 "겁이 소멸되는 때에 일곱 개의 해가 있는데, 유건타산에 머무르다가 거기로부터 나온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해 하나가 쪼개져서 일곱 개의 해가 되었다."고 했으며, 또 말하기를 "아비지옥으로부터 중생의 업력 때문에 나온다."고 했다.)

해가 하나가 나올 때에는 온갖 풀과 나무가 일시에 시들어 떨어진다. 해가 둘이 나올 때에는 백 유순으로부터 7백 유순에 이르는 4대해(大海)의 바닷물이 저절로 마른다. 해가 셋이 나올 때에는 천 유순에서 7천 유순에 이르는 4대해의 바닷물이 차츰차츰 말라간다. 해가 넷이 나올 때에는 4대해의 깊이가 천 유순이 된다. 해가 다섯이 나올 때에는 4대해에 남아 있던 7백 유순의 바닷물이 다 마르게 된다. 해가 여섯이 나올 때에는 이 땅의 두께 6만 8천 유순에서 모두 연기가 솟고, 수미산으로부터 삼천대천 국토와 여덟의 지옥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불에 타 없어진다. 인간들은 모두 죽어 수미산에 의지하고, 다섯 하늘과 삼십삼천, 염천이며 타화자재천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은 목숨을 마치게 되고, 궁전들은 텅 비며, 온갖 것이 무상해서 오래 머물 수 없다. 해가 일곱이 나올 때에는 대지와 수미산이 점점 허물어져서 백 유순까지 영원히 남는 것이 없고, 금·은·동·철의 종류는 모두 다 녹아 흘러 바짝 마르게 되며, 산은 다 텅 비게 되고, 모든 보배는 갑자기 터져버려 무너져 내리고, 연기와 불꽃이 진동하여 범천에까지 이르며, 온갖 나쁜 길과 아수라를 모두 없애 버린다.

죄가 끝나고 복이 다가온 이는 모두 제15천 이상에 모이며, 14천 이하는 모두 검은 재가 된다.

이 때, 새로 난 천자는 저마다 와서 "재앙이 여기까지는 미치지 않으니 두려워 마십시오."라고 위로한다.

인간들은 죽으면 광음천(光音天 색계의 스물 셋 하늘 중의 하나)에 나며, 생각(念)으로써 밥을 삼고 광명은 절로 비추며 신족으로 날아다닌다. 혹은 다른 국토에 나기도 하고, 지옥에 나기도 하는데 지옥의 죄가 다하면 또 천상에 나며, 죄가 아직 다하지 않았다면 다시 다른 장소로 옮겨 나는데, 그곳은 해와 달과 별도 없고 낮과 밤도 없는, 어둠뿐인 곳이다. 이를 화겁의 불의 재앙(火劫火災)이라 한다.

인연과 과보가 여기까지 이르러 파괴되었다가 겁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불은 마침내 저절로 꺼진다. 바로 큰 구름이 일어나 점차로 큰비를 퍼붓되, 빗방울은 마치 수레바퀴의 굴대만 하다. 이때 삼천대천국토는 물로 그 속이 가득 차서 범천까지 이른다. (〈잡아비담심론〉에서는 "수재로 무너지는 것은 제2선(禪)까지이고, 제3선부터는 물을 따라 뜨거운 잿물 비가 내린다."고 했다. 또 말하기를 "수륜(水輪)이 나온다."고 했다.)이를 수겁의 물의 재앙(水劫水災)이라 한다.

다시 네 가지 바람이 물을 지탱하여 흩어지지 않게 하는데, 첫째가 주(住)이고, 둘째가 조(助)이며, 셋째가 부동(不動)이고, 넷째가 견(堅)이다. 수천억



삽화 · 강병호

만 년을 지나서 물 위의 거품이 천(千)의 제 14천궁과 여러 가지 보배로 변화되고, 물이 점차로 줄어들며 거센 바람에 불려서 차례로 천하의 모든 하늘과 일월 궁전으로 변화하며, 다음에는 천의 수미산이 되고, 차례로 천의 사천과 땅과 산, 하천, 성곽 및 못이 되기에 이르는데, 이때에 마침내 물이 맑고 깨끗해진다.

처음에는 천궁이 많은 보배로 이루어져 광명이 가장 훌륭했다가 차츰 덜해지고 점차 흐려져서 모든 하늘 궁전과 칠보의 광명이 점차로 낮아지고 떨어진다. 땅이 드러나려 할 때에 물과 모래의 흐름이 급하여 아래로 밀어닥치다가 드디어 하천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드는데, 바다의 깊이는 8만4천 유순이요, 그 너비는 그지없다.

수미산은 바다에 있는데, 바다 위로 나온 것이 또 8만 4천 유순이다. 물맛은 짜고 쓴데, 검초에 이루어지는 때에 저절로 구름이 일어 광음천까지 피어올라 두루 비를 퍼부어 천궁을 닦아내고 만물을 씻어낸 더러운 물이 흘러 바다로 유입되어 바닷물은 짜고 쓴 물이 되었으며, 또 어느 큰 신선이 주문을 걸어 짜고 쓰게 하여 사람들이 마시지 못하게 했으며, 또 여러 종류의 중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 안에 오물을 버리고 배설을 하여 물이 짜고 쓰게 되었는데, 이를 풍겁의 바람 재앙(風劫風災)이라 한다. (잡아비담심론)에서는 "붕괴로 괴멸되는 곳은 제3선까지이며, 백억 사천하가 일시에 함께 무너진다."고 했다.) 이 세 가지를 대겁(大劫)이라 한다.

〈경률이상(동국대역경원)〉에서 발췌 구성=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④



건강한 몸으로 살때와 아픈 몸으로 살때

그림자가 나를 따르듯 삶과 죽음이 언제나 동반하고 있다.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살아 갈 때와 생각지 못했던 사고나 병고를 만났을 때의 세상은 너무도 다른 경험을 얻게 된다.

나는 그동안 건강한 편으로 잘 지나왔었다, 그러나 갑작스런 교통사고를 만나게 되었다 신문이나 TV에서 뉴스로 보던 그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란 걸 알게 되고 뜻하지 않은 수술과 입원을 하게 되니 모든 일들이 멈추어버렸다. 그냥 환자가 된 것이다.

그러나 내가 평소에 늘 부처님 품속에 살았던 그 삶이 예외일 순 없었다. 날마다 아침이 밝아올 때면 세수하고 양치하고 반듯이 누운 자세로 병실의 낡은 천정을 바라보며 소림사의 원만 부처님을 모시고 벽에는 '부처 佛' 액자를 하나 걸었다.

마음으로 천수경 법화경요품 금강경 화엄경약찬게 능엄신주 등등 하고 싶은 대로 읽고 마음껏 기도를 한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식사를 한다. 매일 소문을 듣고 문병오는 많은 이웃들을 만나며 늘 죄송하고 황송하고 미안함이 은혜로 늘어나면서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아픈 몸 되니
삶과 죽음 늘 함께 있음 알게 돼
따뜻한 이웃의 은혜에 감사
'방생하는 삶 살아야겠다' 발원
업은 스스로 만들고 받는 것

감히 함부로 살 수 없는 나의 존재를 생각 해 보았다. 어찌 이런 큰 은혜를! 멈출 수 없는 은혜들을 들추며 모두를 향한 기도를 한다.

그리고 이 땅 내 나라에 감사하고, 내 부모 있어 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정법을 알게 해 준 큰 스승들께 감사하고, 먼저 깨달은 도반 만날 수 있었음에 감사한다. 이처럼 많고 많은 은혜를 어찌 다 나열할 수 있을까.

몸이 자유로웠던 지난날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지금에야 또 다른 나를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나를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의 옷차림으로 그날 그날의 날씨도 알고 각기 다른 취향을 보게 된다. 다들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들이다.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은 환자복 두벌만 필요 할 뿐, 잘 입어야 할 이유도 좋은 신을 신어야 할 이유도 또 화장을 해야 할 일조차도 없는 그야말로 수행인이 된 것 같다.

깊은 산 토굴에서 수행 하는 스님들이 두벌의 누더기와 발우 한 벌이면 족하다고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나도 감히 수행 중이라고 하면 맞는 말일까. 일찍이 나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또 기억난다. 손가락을 다쳐 피가 났을 때, "불효한 녀석! 부모가 물려준 귀한 몸에 피를 흘리다니 머리카락 하나도 함부로 버리지 말아야 하겠거늘 피를 흘리다니. 스스로 몸을 잘 보살펴 부모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야 하거늘 하물며 몸에 칼을 대랴."

이렇게 당부 하셨는데 지금 나는 큰 불효를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업이란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받는 것, 내가 격어야 할 운명 앞에 그나마 다행 한 일이 아닌가. 그날의 상황에서 신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가 해야 할 숙제가 너무도 많아 살아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순간순간 삶과 죽음이 늘 함께 있기에 언제나 명심해야 함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고 매 순간 순간을 돌아보아 허물없이 살며 부지런히 정진하여 눈 뜨고 볼 수 없는 세계를 눈 감고도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함을 절실히 느꼈다.

오늘도 "나는 누구일까?" 거울을 보면서 "당신! 더 잘 살아야 하는 거야 알지~ 당신은 당신답게, 세상 은혜 미루지 말고 진실한 삶, 그대로 모든 사람들께 실망 없는 기쁨이 되고 빛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해." 이렇게 다짐하며 나를 격려하기도 한다. 우리 소림사 도반 모두에게 잔잔한 솔바람의 향기 나누며 올해도 무사히 행복 나누는 아름다운 만남이 되길 빈다. "너무도 많은 응원에 힘입어 더 따뜻한 모습으로 이 도량을 함께 채우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이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나의 습관 길들이기

나에겐 어떤 습관이 있을까? 나의 일상에서 나쁜 버릇이 있다면 그것은 결국은 나의 업으로 쌓여 나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리라.

내가 손님인 것과 주인인 것은 다른 것. 내가 주인일 때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또 불이 꺼진 후에도 내 집의 물건이 있는 곳이나 화장실을 찾아갈 수 있지만 손님은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조차 알 수가 없다. 그것은 내가 두고 보아온 그 자체가 내 기억에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습이 된 것이다.

그뿐일까. 평소의 망상이 마음을 덮어 맑은 마음을 볼 수 없으니 자주 그릇된 망상을 벗어 줄 때 그 마음이 깨끗함을 가지게 되리니 나는 나의 습관을 잘 길 들여야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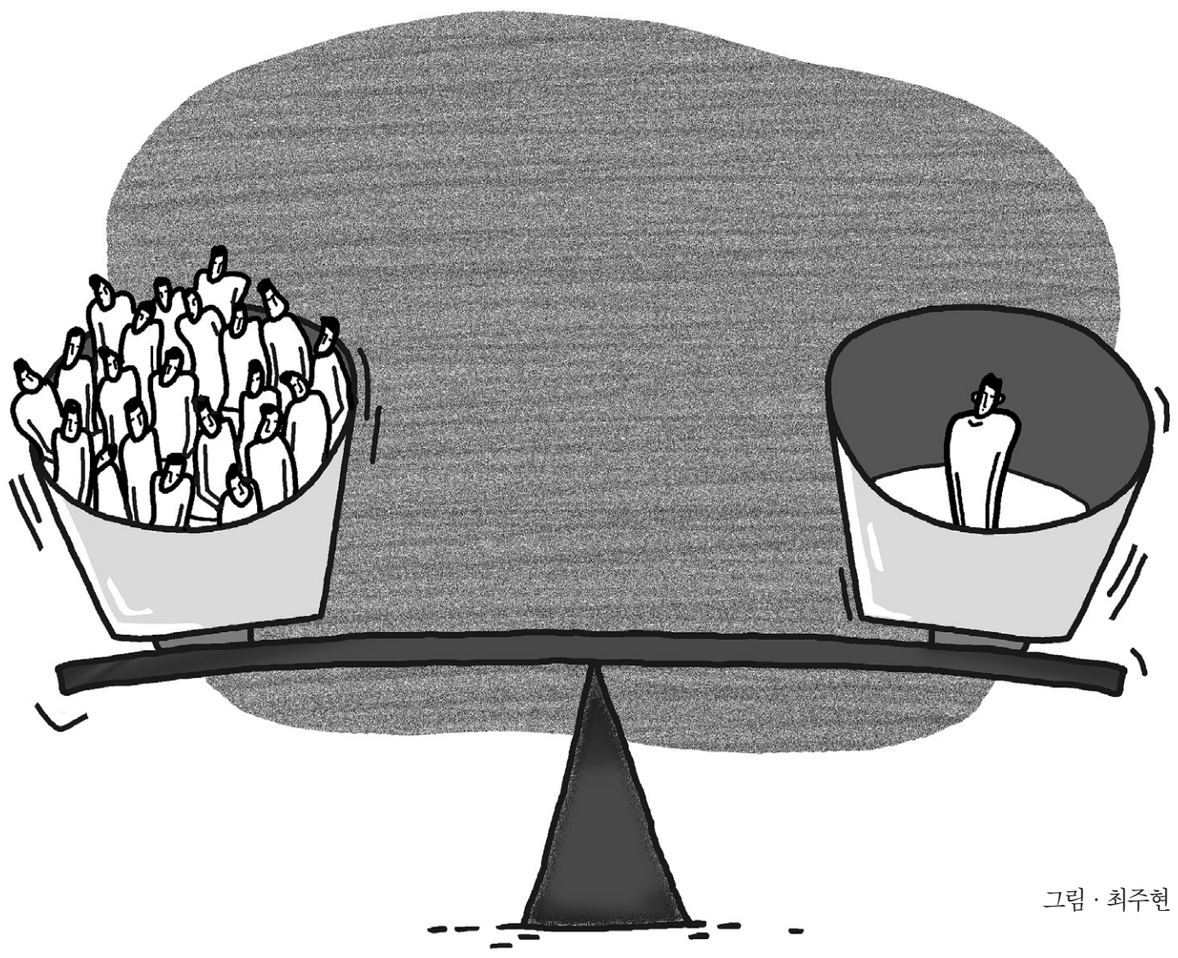
매 순간 죽고 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삶을 돌아보니 나 아닌 내가 되어 살아 온 날들이 너무나 많았다.

어제 일을 오늘 약속대로 하듯이 금생의 내 모든 삶이 습이 아닌 업으로 다가온다고 생각해 보니 지금 이 순간에도 진실을 기둥삼아 오직 바른 생각 바른 진리를 이해하고 가까이 하는 원력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 품속에 살도록 나를 방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부산 연꽃모임회장



너와 더불어 모든 일체를 다 바로 쉬어라


그림 · 최주현

마음 도리 알고 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문) 한동안 환희심에 차서 공부한 적도 있었는데 몸에 병이 생기고 고통이 커지면서 공부도 뒷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마음 도리는 알고 가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정신 차리게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참 위급하고 모든 게 그냥 급급하고 아주 죽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죠. 세상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갈 것도 없노라고요. 옮겨 놓을 뿐이지 어디 갈 게 있으며 어디 올 게 있는가. 본래 근본 그 불성 자체의 성주는 그대로 있건만 몸뚱이가 떨어져서 지수화풍으로서 다 흩어진다는 거. 그러나 그것도 매장할 때 얘기지 지금은 화장하니깐 뭐 지수화풍으로 흩어지고 말고도 할 것도 없어요. 지금은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 뜻은 다 같죠.

그러니 이 몸뚱이가 살 양으로 애쓰면 죽어지고 죽으려고 한다면 살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려고 살려고 하지도 말고 그저 '죽이는 것도 너, 살리는 것도 너. 만든 것이 너기 때문에 부숴 놓는 것도 너, 아프게 하는 것도 너, 고장난 것도 너니까, 네가 한 거니깐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탁 맡겨 버리세요, 그냥. 맡겨 버리면 다 알아서 할 건데 맡겨 놓질 않기 때문에 그놈의 걸 안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아, 공장에 취직을 해서 갔는데 맡겨 주지 않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믿고 맡겨 줘야 일을 하지, 잘못하든 잘하든. 그래서 한 번 잘못한 건 병가지상사라고 이것이 한 번 잘못했다 하면 그건 능력이 늘어가지고선 '아, 요럭하면 잘못하지 않는 거로구나.' 하고 한번 이렇게 돌려보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모든 일체를 쉬어라, 놔라, 맡겨라, 물러서지 마라. 그리고 감사해라. 모든 것은, 너의 몸뚱이는 네 주인의 시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 시자가 주인에 의해서 움죽거릴 뿐이지 너는 쉬어야 된다. 너와 더불어 모든 일체를 다 바로 쉬어라 하는 거죠. 그것은 종 문서를 놓지 않고는 절대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스님께서, 내가 그때에 스무 살도 못 될 때예요. "스님, 얼마만큼 가면은 죽습니까? 죽으려고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아요." 하니까, 내 몸뚱이가 죽는 줄 알고 말입니다. 이 안에서 죽어라, 죽어라, 자꾸 '죽어라' 그러거든요. 이거 몸뚱이가 아주 죽어 버리라는 줄 알고 그냥 차 속에도 들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안 죽어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스님, 얼마만치 가면 죽습니까?" 하니까 눈을 뜨고 푹 자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푹 자야만이 죽느니라." 그러거든요.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눈을 뜨고 푹 자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하나하나 움죽거리고 이러는 것도, 즉 말하자면 전자자동기에 의해서 이게 그대로 돌아가는 거죠. 내 마음에 의해서 스위치만 눌렀다 하면은 그냥 자동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한마디로 규정을 지었지 않습니까. 한 점의 마음에 있는 거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고 남 달린 코도 달렸고 남 달린 눈도 달렸고 귀도 달렸고 이 오관을 통해서 엽렵하고 똑똑하게들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서 한 칼을 뽑았다면 그냥 낄 수는 없지요.

애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문) 요즘은 애 하나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서 결혼하고서도 애를 안 낳으려고 했는데 실수로 임신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도 지울 수는 없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은 인연을 만나 잘 키워보고 싶습니다. 지금 임신 3개월입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우리가 임신을 한다 하면 정자와 난자가 5억이나, 한번에 5억이나 들끓게 됩니다. 그건 왜 5억이라고 말을 했을까요. 삼천도 지금 의학적으로는 그냥 우수하게 되는데 왜 5억이라고 말을 했는가. 한 생명이 생긴다면, 물질이 생긴다면 그 물질 속에 몇 마리나, 그 생명이 얼마나 많기에 한 몸이 생기겠습니까. 아직 점령을 안 했다 하더라도 생명이 하나 생겼다 하면 벌써 구조는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한 마리가 딱 임신이 됐을 때는 그 여러 마리가 한 마리로 전부 귀합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생명은 하나니까 거기로 다 해서 하나가 돼 버리는 거죠. 하나가 돼 버리니까 나머지는 물로 그냥, 즉 말하자면 없어지고 마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다 죽고 없어지고 한 마리만 된다 이러는데, 천만에요. 만약에 개수로 따진다면, 3천 마리라면 3천 마리가 한 마리가 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가고 옴이 없이 그렇게 무궁무진하다는 그 뜻을 모르고는 본부 맛을 못 봅니다. 그런데다가 애가 들어설 때에도, 들어서서 삼 개월이 된다면, 삼 개월 되기 전만 하더라도 엄마와 자식과 탯줄에 의해서 들고 나고 들고 나고, 주고 받고 주고 받는단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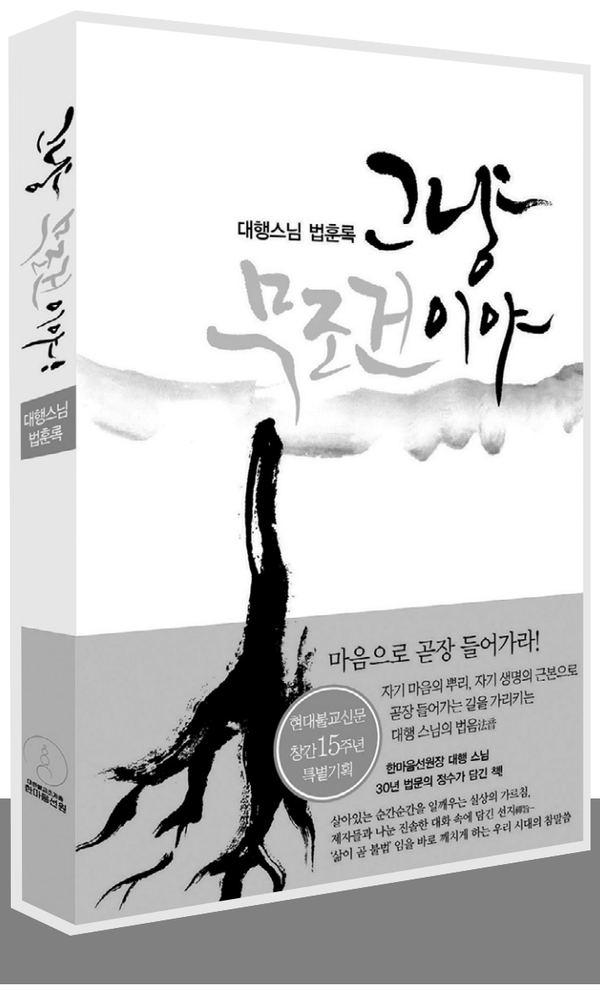
어떤 사람은 이런 예가 있었죠. 임신을 하자마자 남편이 고만 교도소에 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그 애를 낳을 때까지 그 교도소를 다녔답니다. 거길 다니면서 본 거라곤 그거밖에 본 게 없는 거죠. 열 달 내내. 만 아홉 달 만기가 되도록 그것밖에 본 게 없는 겁니다. 허구장창 나서면은, 사식 가져 다니고 허구장창 옷 가져 다니고, 온통 그것 걱정이라. 그랬는데 그 아이를 낳았는데 꼭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러나 몸뚱이가 아무리 다녀도 마음이 그렇게 말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것을, 그놈의 거를 그렇게 보고 그렇게만 생각하고 모든 게 그렇게 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냥 들어간 거죠. 그 영향이 어디 가겠어요? 물질의 영향도 보급이 되지만 바로 마음의 영향도 보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부질없는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만신 집이나 뭐, 그 만신 집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만신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고 그런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국민학교를 다녔으면 중학교 갈 줄 알고 고등학교 갈 줄 알고 대학 갈 줄 알고 대학원 갈 줄 알아야지, 그리고 사회에도 나설 줄 알아야지 인간이 아닐까요? 그와 마찬가지로 좀 더 우리가 알 양으로 노력을 해 봤더라면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 영향이 어디에 미치느냐 하면 바로 애한테로 다 미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도 유전을 받아 가지고 무당 어머니에 무당이 또 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유전이죠.

또 그것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소소하게 우리 살아나가는 데도 그 영향이 애들한테 얼마나 미치느냐는 거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먹는 대로 영향을, 의학적으로는 먹는 대로 영향이 애한테 간다. 약을 먹으면 약이 영향이 가고, 이런 것만 알았지, 그 보이지 않는 참 기묘한 그 뜻이 전달이 되는 거는 도대체 모르거든요. 인연에 따라서 만나서 내가 임신을 했다면 거기에 영향을, 자기의 영향대로 거기에 미치게 되죠. 그러니 내가 작으면은 그 아이도 작지 어떡하겠습니까. 영향을 자꾸 받았으니까.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www.hyunbulshop.com

눈을 뜨고 푹 자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 29면에서 계속

팥 심은 데 팥 나느니라.'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난하고 쪼들리고 배우지 못하고, 어떠한 영향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음이야 가난해서 되겠습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다면은 모든 일이 전체 가난하지 않아요. 하다못해 죽을 한 그릇 먹어도 허허 웃으면서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하고 아마 하늘을 보고 웃을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지금 우리가 손바닥만한 데 지금 오물쪼물 모여서 살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네 가정 내 가정 찾고 온통 야단들을 하십니까. 이 지구 한 덩어릴 딱 따져놓고 본대도, 그 손바닥만도 못한 놈의 거를 가지고 온통 야단들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될 노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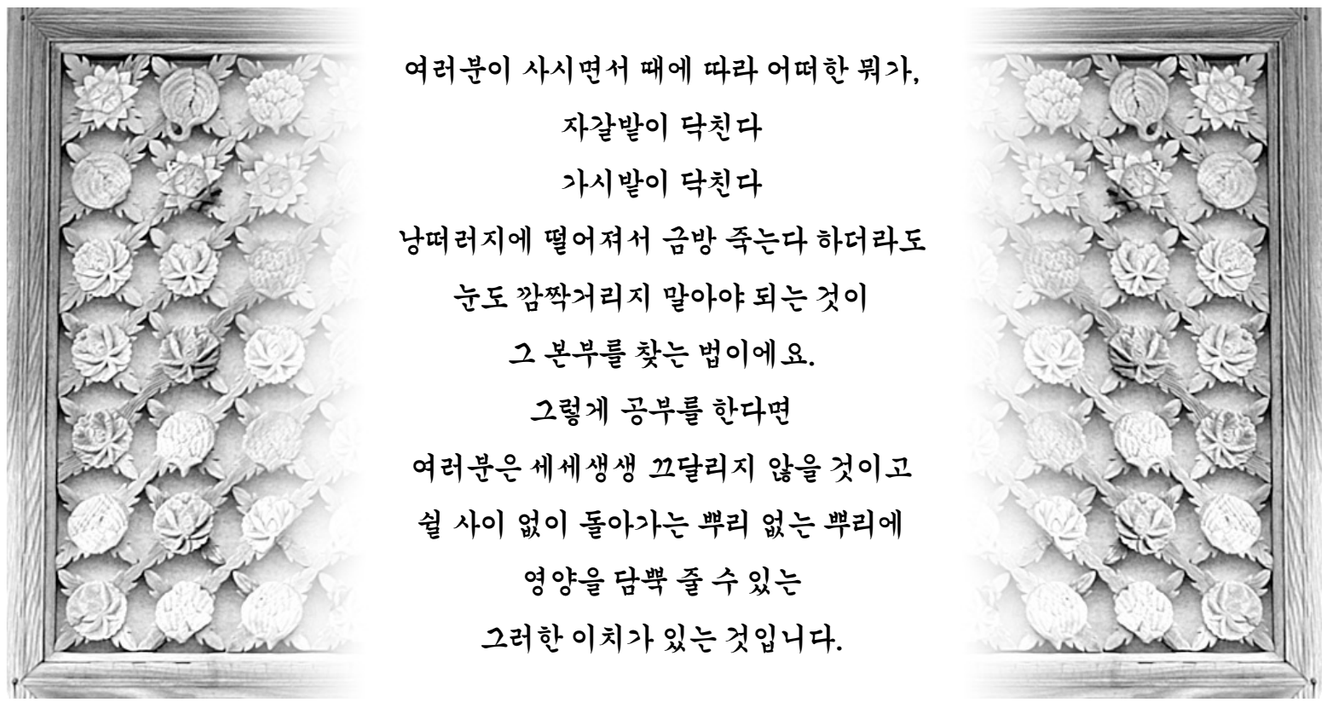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애들이 배 속에서 받는 영향은 너무도 큽니다. 그런데다가 사회 상식이라든가 교양이라든가 이런 건 또 낳아서 받는단 말입니다. 낳아 가지고도 받아요, 그놈의 걸. 애 보는 데 뭐, 별 욕 다 하고 별 싸움 다 하고, 그저 나가고 들어오고. 벌어먹는 것도 중하지마는 벌어먹는 것도 본부에다 연방 전달을 해 가면서, 상응하면서 한다면, 만약에 부부 벌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애들은 천상 착해요. 본부가 항상 지키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아들처럼 내버리고, 이것은 뭐 먹을 거나 주고 그저 조금 저거 하면 돈이나 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아, 외롭고 '야, 집에 들어가 봤자야 뭐 그것도 없는데, 친구한테나 가야지.' 이럭하다 보면은 망가지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걸 꼭 아셔야 합니다. '나는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이러니까 남편이라도 생각해 주겠지.' 천만에요. 자기의 욕구가 제대로 되지 않을 땐 아무리 정성을 다해서 살려고 앨 써도 그것은 아랑곳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어느 가정에서든지 자기가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손이 안 닿을 때에 일하는 건 괜찮아요. 와서 가깝게 닿을 때는 언제나 내가 항상 사랑을 주는 어머니가 돼야 됩니다. 동생이 돼 주고 딸이 돼 주고 때에 따라서는 할머니도 돼 줄 수 있어야 그 가정이 풍부하고 그 본부의 근본을 따라서 오직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 이겁니다. 또 남자는 언제나 아버지로서 아버지의 행을 다 하면서 또 결국은 아버지도 됐다가 친구도 됐다가, 또는 동생도 됐다가 아들도 될 수 있어야 그 집안이 화목하고 재미있는 집안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노인네들 말씀하실 때 이런 게 있지요. "너는 끄트머리도 먹지 말고 머리도 먹지 말고 중간만 먹어라. 중간만 먹어라. 네모반듯한 걸 먹어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 물건을 반듯하게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유래로 아주 '반듯하게 먹어라.' 이러거든요. 그거라도 반듯하게 먹으면, '내가 요거 반듯하게 먹으니까 애 마음도 반듯하게 되겠지.' 하는 마음이라도 먹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죠, 모르는 사람들한테. 물건이야 끝을 먹든 머리를 먹든 중간을 먹든 그건 상관없어요. 마음 주동만 똑바로 선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사시면서 때에 따라 어떠한 뭐가, 자갈밭이 닥친다, 가시밭이 닥친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본부를 찾는 법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을 것이고, 또 자녀들한테도 바로 그 영양이 비 내리듯 주어질 거예요. 이것은 물질로



여러분이 사시면서 때에 따라 어떠한 뭐가,
자갈밭이 닥친다
가시밭이 닥친다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금방 죽는다 하더라도
눈도 깜짝거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 본부를 찾는 법이에요.
그렇게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은 세세생생 끄달리지 않을 것이고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뿌리 없는 뿌리에
영양을 담뿍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치가 있는 것입니다.

영양을 섭취를 시키는 게 아니라 뿌리 없는 뿌리에 기둥 없는 기둥이 멈춰서, 멈춰서 꽂힌 게 아니라 쉴 사이 없이 돌아가는 그 뿌리 없는 뿌리에 영양을 담뿍 항상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을 한다면 당연히 착이 생기는데…

문)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당연히 착이 생기게 마련이 아닌지요. 그런데 스님께서는 착을 다 떼라 하시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 왜 집착을 두지 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항상 자식을 낳았다 하더라도 그 자식에 착을 두지 마라, 또는 형제에 착을 두지 마라, 부부에 착을 두지 마라 하는 것은 이미 본래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무 사랑하기에 진짜 사랑을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짜로 사랑한다는데 물질을 보고 사랑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은 때에 따라서 가정에서 벌이를 못해 온다거나 또 부인이라면 아파서 드러누웠다거나 어떠한 문제가 일어서 아주 발에 턱턱 채일 정도가 된다면 점차적으로 불쌍하고 안됐다는 생각은 그지없지만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어서, 그저 고생하지 말고 죽었으면…'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말로 벌이를 못하고 내내 몇 년간 놀아 보십시오. '저거는 아이구, 그냥….'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 애정이라든가 이런 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진짜 사랑을 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도, 눈물이 아니라 피가 흐르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뭔 줄 아십니까. 그래서 자비라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진짜 사랑을 알려면은 내가 같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한 번 죽기 어려워라 했더니 두 번 죽기 어렵다 하는 것이 같이 들기 어렵다는 얘깁니다. 상대를 두고 나를 두고 항상 이렇게 되니까.

물론 물질로써 상대는 상대대로 있지요. 하지만 그 상대와 더불어 일부러 둘이 아니라고 생각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하고 인연이 돼서 아는 사람이나 친척간이나 자식지간이나 부모자식,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는 거죠. 같이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질을 가지고, 같이 돌아가는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물질을 가지고서 거기에 연연해서 사랑한다느니 또는 거기에서 연연해서 잊지 못하고 '너는 이렇게 이렇게 돼야 할 텐데….' 아니, 그쪽 사람은 생각지도 않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생각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쌍방이 다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죠. "야! 형제가 단 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는 까닭에 그 물질의 착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 냉정하게, 어떠한 부처는 그렇게 얘길 했답니다. "언제 형제가 있었던가. 너의 형제는 벌써 이미 죽었고 너의 형제는 없느니라." 하고요. 그런데 그걸 한번 뒤집어 생각하면 그건 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뿐만이 아닙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참 내가 억겁 소릴 잘 하지마는 그 모습을 바꿔서 바꿔서 이날까지 점차 바꿔 나왔습니다. 바꿔 나오는 동안에 난 이걸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모습을 바꿔서 갔다 놓으면은 그 집 식군 줄 알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가면은 저 집 식군 줄 안다 이겁니다. 전자에 살던 인연은 아예 까맣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는 바로 봐서는 그렇게 뒤섞이다 보니까 내 형제가 아닌 것이 없고, 내 부모가 아닌 것이 없고, 내 자식이 아닌 것이 없고, 전체 이것은 내 남편 내 부인 아닌 것이 없어요. 이렇게 사랑이 깊고 깊은 줄은 정말 미처 몰랐다는 생각이 예전에 덜컥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막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짜 사랑만 알고 진짜 사랑은 몰라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항상 얘기하는 것은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물건 아닌 진짜는 바로 한마음 한 줄에 꿰여 있는데 왜 바깥의 모습에다, 물질에다 착을 두느냐 이겁니다. 물질을 보고 착을 둔다면 절대로 그것은 같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둘이 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공부하고 싶은데 절에 다니기가 힘들어요

문)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공부하고 싶지만 돈벌이도 해야 하고 집안 살림도 돌봐야 되는 처지라 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답) 우리가 지금 벌이해서 밥 먹고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또 문제가 아닌데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살아야 공부를 하지 내 몸뚱이가 죽으면은 그 공부를 못하거든요. 이런 공부 할 수 있는 한도량에 한마음으로서 이렇게 만나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시대를 좇아서 딱 만나기가. 그러니 그 믿음이 진실해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믿지 않으면서 입장만 해놓고는 그냥 일한다고 바쁘다고 안 오다가 무슨 일만 생기면은 그때는 그냥 딴소리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집안에서 살림하는 사람들이 살림하는 데에 모든 게 살림 따로 있고 그 믿는 마음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렸습니다. 어렵고 가난하고 부자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소꿉장난을 하는데 해가 지면은 모두들 그걸 다 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소꿉장난을 좋은 거를 갖다 놓고 하든 언짢은 걸 갖다 놓고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깨진 뚜가리를 갖다 놓고 소꿉장난을 하든 좋은 그릇을 갖다 놓고 소꿉장난을 하든 하등 상관이 없어요. 외려 깨진 뚜가리에다가 놓고선 오손도손 싸움 안 하고 그냥 먹는 걸 보면 좋구요, 좋은 그릇에 놓고도 그냥 싸우고 팽개치고 모두 이런 거 보면은 정말 뚜가리 생활보다 그게 외려 참 살기가 고통스럽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군요.

이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우리가 그냥 한 철 살다가 죽으면은 다시금 그 영혼이, 이 마음공부를 못한 사람들은 영혼이 그냥 눈도 보이질 않고 귀도 띄질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나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아무 데나 그저, 뱀이 사는 데나 까치가 사는 데나 짐승이 사는 데나 토끼가 사는 데나, 아무 데나 자기가 닥치는 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공부 한 사람들은 뜻을 알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 줄 다 알게 됩니다. 그러니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간다 이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는 우리가 절에 다녀서 무슨 뭐를 어쩌겠느니, 뭐 잘되느니 못되느니 이거를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훨훨 벗어나야만이 이 내 한 몸 벗어나는 데 수천수만 명이 벗어난다 이겁니다. 수천수만 명이 벗어나게 되면 그 수천수만 명이 또 벗어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합류화시키는데 목적을 두란 말입니다. 어떠한 일이라도 주인공에다 합류화시키는 거, 그거를 목적을 삼는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그냥 다시금 깨상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진실한 믿음을 갖고 바로 생활하는 그 속에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제11기생 학인모집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연구보존회에서는 신라의소리 영남범패의식을 6개월과정으로 탁마할 학인스님을 모집하여 개강하고져 합니다.
아 래
❖ 자 격 : 삭발염의한 스님 (일반불자 제외)
❖ 개강일 : 2013년 2월 28일 (음력 1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
❖ 매주 월·목요일 오후 3시부터 강의합니다 (주 2회)
❖ 장 소 :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 186번지 화 장 사(진영포교당)
❖ 과 목 : 卍 초급반 – 예경의식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각단예불 등)
卍 중급반 – 사시불공, 49재및 천도재의식. 관음시식, 사물다루는법
卍 상급반 – 바라 및 착복무(오공양 작법). 사물다루는 법
❖ 강 사 : 묘산, 수암 (011-488-7060)
(내전강의는 본회의 학장이신 한파스님께서 직접 강의를 합니다.)
※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 055)343-2267~8700
(사단법인) 영남범음범패 연구보존회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수정기공
특강안내
신지식인 대한민국 정부인정 660
2012년 신지식인 최우수상 수상

교 재 : 75,000원 특가 68,000원
정기강의시작 : 매월 첫째 일요일 오후 1시 30분~6시
장 소 : 수원시 성균관대학역 주변
모집인원 : 매회 8명이내
연 락 처 : 010-3463-7806
홈페이지 : soojung99.pe.kr
수정기공 창시자 김문기 원장 직강
온라인번호 : 농협 207176-51-204175

불자 세상보기

삶의 주인공 되면 행복 지수 높아져



선업 스님
불교상담심리전문가
봄 행복치유센터장

각 개인의 주관적 심리상태인 행복은 측정이 가능한 것일까?

행복= P+(5 X E)+(3 X H)

영국의 심리학자 캐럴 로스웰과 인생상담사 피트 코언은 그에 대한 답을 위의 간단한 방정식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행복의 조건으로 P(personal(인격): 인생관 적응력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 E(existence(존재): 건강 돈 인간관계 등 생존조건), H(higher order(고차원 상태): 자존감 유머) 등을 꼽고 있다.

또한 유엔 〈세계행복보고서〉 작성을 총괄한 제프리 삭스 컬럼비아대 교수는 "심리학, 의학, 경제학, 사회학 등의 결과를 토대로 행복의 지표화가 가능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행복 지수인 '국민 삶의 질(BLI · Better Life Initiative)'에서는 행복의 조건으로 주거환경, 소득, 삶의 만족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평가 항목을 행복의 요소로 꼽고 있다.

이런 행복감 측정에 대한 다양한 시도 중에 최근 발표된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의 SQ(자아행복)지수는 마음 · 건강 · 대인관계 · 직장생활 등 4가지 영역을 행복의 측정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행복의 요소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욕구의 만족 정도, 인간관계 등에 대처하는 능력, 수많은 대상들과 맺는 관계에서의 대처방식, 질병을 일으키는 신체적 통증과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 등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행복 측정에 대한 시도를 통해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우리의 현주소를 돌아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행복지수는 148개국 중 97위, 국민 삶의 질 순위는 OECD 국가 중 32위 그리고 '평온한 자아를 가진 행복한 상태'(A타입)라는 응답자가 고작 4.7% 라는 발표는 전 세계적으로 자살율과 이혼율 1, 2위를 다투는 세태를 반영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다양한 경전에서 찾을 수 있다. 〈파멸경〉에 보면 불행의 25가지 조건이 나오고 〈행복경〉에서는 행복의 조건 38가지 항목이 등장하고 있다. 행복지수를 떨어뜨리는 조건과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행복은 불행의

불행조건 제거하는 것도 방법
'더불어 사는 삶' 고난 극복

조건들을 제거하고 행복의 조건들을 계발하고 유지하는 노력으로 성취 가능하다고 한다.

예를 들어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우울 증세를 겪으면서 자기 자신, 자신의 미래, 주변 환경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3가지 사고방식을 지니게 되는데 이런 관점을 바꾸어 주면 되는 것이다.

'나는 열등하고 무능하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았다.' 는 부정적인 생각을 지닌 사람은 "나는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 행복하다"라고 자기 자존감과 효능감을 확대하는 자비관을 통해 생각을 변화시킨다. '나의 미래는 비관적이고 암담하다', '앞으로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나의 심리적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등의 사고방식은 선수행을 통해 지금 이곳에서 나를 바로 보게 하여 가치관을 대치시킨다.

'내가 처한 상황은 너무 열악하고 이 세상은 살아가기에 너무 힘들다', '주변 사람이 없다' 라는 생각은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연기적 사고에 기반한 사회안전망 구축운동' 으로 해소시키는 것이다.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잘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한다. 자신이 행과 불행의 선택권을 가진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란 확신을 가지고 몸과 마음, 사람과 사람,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소통시키는 노력을 하다보면 행복지수는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사부대중 칼럼

장기 기증은 최고의 '자비 나눔'



김경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신장내과

올해 신년 벽두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불교계 유일 장기 기증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자의 누적 인원이 3만 명을 넘겼다는 소식이다. 정확하게는 32,814명이다.

장기기증은 갑작스런 사고나 뇌질환으로 인해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뇌사 판정을 받았을 때, 말기 장기부전 환자에게 이식하여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일이다. 장기기증희망등록은 뇌사 시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희망등록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민간홍보대사 신청이다.

지난해는 우리나라에서 죽음의 순간 타인에게 새로운 삶을 베풀고 떠난 뇌사자가 409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에 입적하신 불화장 석정 스님과 불교문화재 전문가 범하 스님도 자신의 시신을 아낌없이 기증했다. 그래서 석정 스님은 영결식 자체가 없었고, 범하 스님은 다비 없는 영결식이 진행됐다. 두 분 모두 불교문화 발전에 한 축을 담당한 거장들에 걸맞은 아름다운 회향이었다.

김수환 추기경부터 석정, 범하 스님까지 종교인들의 마지막 가는 길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지만, 현실은 장밋빛으로 보여지지 않고 있다. 국내 장기이식 대기자수는 2012년 11월말 기준으로 22,427명. 이들은 기증자를 기다리며 매일 매일 마음을 졸이며 살아가고 있다.

필자의 전공인 신장 내과의 경우를 보자. 세계 최초로 신장 이식을 성공한 이는 하버즈 의대 부속 브리감 앤 위민 병원의 성형외과 전문의 머레이 박사와 신장 내과 전문의 메릴 박사의 팀이다. 이들은 거부 반응을 극복하기 위해 일란성 쌍생아 간에 신장 이식을 시도함으로서 거부 반응이 없거나 이를 치료하면 장기 이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실현했다. 이 공로로 훗날 머레이 박사는 임상 의사로는 드물게 노벨의학상을 받게 된다.

이후 많은 연구자들과 의사들의 연구와 노력으로 이제 신장 이식은 신장 기능이 거의 없는 만성 신부전 환자의 가장 좋은 치료법이자 적절한 신장 공여자가 있으면 당연히 시행해야 하는 보편적 치료법이 됐다.

실제로 신장 이식은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 등의 신 대체 요법을 받고 있는 환자들은 누구나 받기 원하는 치료법이나 공여자의 부족은 걸림돌로 남아 있다.

사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장기 기증을 원하는 뇌사자나 순수한 동기의 생체 신 공여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로 가족 간에 신장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에 비하면 아직도 뇌사자 장기 이식은 미비한 수준이다. 그나마 한국 장기 기증원(KODA, Korea Organ Donation Agency)이 출범한 이래 뇌사자 장기 이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석정 · 범하 스님 법구 기증 귀감
외국 비해 미비…인식 확산돼야

또한 성공적인 신장 이식을 위해서는 신장 이식 수술이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경험이 많고 수술을 잘하는 외과 및 비뇨기과, 마취과 의사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이식 전 환자 및 신장 공여자의 검사와 수술 후 거부 반응 예방을 위한 이식 내과의가 부터 방사선과 및 임상 병리과의 지원과, 수술 후 케어를 위한 간호사 등이 참여해야 한다.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식 팀이 구성돼 그 구성원 간에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 조직력이 필요한 치료법이다. 마치 단체 경기에서 팀 워크가 경기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다.

동국대 일산병원에서도 2007년 신장 이식을 성공한 이래 여러 환자가 신장 이식을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는 기쁨을 얻다. 특히 2012년 3월에는 개원 이래 최초의 뇌사자 장기 이식을 위한 다장기 적출이 시행됐다. 본 병원 신경외과에서 뇌사 판정을 받은 장기 기증자가 간 및 2개의 신장을 기증해 3명의 장기 기능 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생명을 나눠 준 것이다.

〈법구경〉에서는 '널리 들어 기억하고 도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도는 반드시 얻기 어려울 것이다. 뜻을 지켜 도를 받들면 그 도는 반드시 클 것이다' 라고 설하고 있다. 동체대비의 자비사상은 생각하고 사랑하기만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실제로 실천할 때 그 의미가 있다. 나의 육신으로 남을 살릴 수 있는 장기 기증은 보시 중 최고의 보시이다.

한국에서도 생명 나눔의 정신이 더 확산돼 뇌사자 장기 이식이나 순수한 동기의 생체 신장 이식이 증가하길 바란다. 이를 통해 고통받는 만성 신부전 환자들에게 신장 이식의 기회가 더 늘어나길 기원한다.

社說

우수학술지 정책 변화 필요하다

학술지 지원 정책에 대한 인문학계의 반발이 거세다. 여기에 지난해 말 조사 완료된 교육과학기술부의 국내 학술지 선호도 조사는 여기에 기름을 부었다.

최근 교과부 학술진흥정책 자문위원회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66개의 학술지가 한국학자들이 선호하는 학술지로 꼽혔다. 이중 인문학 관련 학술지는 3곳에 불과했으며, 종교 관련 학술지는 한국기독교학회의 〈한국기독교신학논총〉이 유일하다.

하지만 조사의 신뢰도는 형편없다. 조사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에 등재된 연구자 16만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응답자 수는 12%에 그쳤다. 여기에 회원 1만 명 이상의 대형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가 대다수 선정됐다. 이는 정부의 우수학술지 평가가 대형 학술단체의 학술지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교수들의 논문의 질을 높여 세계적 학술지를 육성한다고 했지만, 그 방식에는 제고의 여지가 많다. 애초에 인기투표로 우수 학술지를 선별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다. 선호도를 놓고 학술지를 평가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연구자가 적은 인문학이나 불교학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사학과 학계 내부 변화도 필요하다. 현재 교수가 1년에 요구받는 논문 편수는 동국대의 경우 3.5편 가량이다. 여기에 학부와 대학원 수업을 하고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해야 한다. 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그 인프라는 전혀 변화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학문의 성과는 선호도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무늬(人文)' 를 연구하는 인문학은 장기적 안목의 시간이 요구되는 것들이 많다. 그 유구한 시간 속에서 한 가닥의 진의를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학술의 진흥은 경쟁과 규제가 아닌 자율과 다양성에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비구니 군승에 거는 기대

부족한 군승 충원을 위해 조계종 군종교구가 2014년 비구니 군승 파송을 추진한다. 2012년 전국비구니회와 비구니 군승파송 협의를 마친 군종교구는 비구니회로부터 추천 받은 1~2명의 비구니 군승 후보에 대한 예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종교구 측은 "복장, 두발 등 법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교구에도 3~4명의 신청자가 접수돼 비구니회로 넘긴 상황"이라고 밝혀 이제 군에서 비구니 스님들을 볼 날이 가까워 졌음을 시사했다. 비구니 군승은 1년간의 예비군승교육을 거쳐 파송된다.

이번 조계종의 비구니 군승 파송은 1968년 첫 군승 파송 이후 반세기 반에 처음 이뤄진 역사적인 일이라는 점에서 기대와 의의가 크다. 몇 년째 군승 정원도 못채우며, 특히 군 내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현 상황에서 비구니 파송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군법당 수는 400여개에 달하지만 군승은 예비요원을 합쳐서 대략 14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래서 군법당 인근 스님들이나 포교사들이 법회지원을 나간다. 군종교구측에 따르면 비구니 스님 8명이 활동중인데 군장병들에게 호응이 높은편이라고 한다.

어머니같은 모성애와 보살심으로 경직된 군 생활에 지친 장병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준다는 점이 그 이유로 분석된다. 특히 심리상담과 같은 여성 특유의 부드러움이 필요한 곳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일 것이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비구니 군승 파송은 양적인 군승 충원뿐 아니라 질적인 군포교의 변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다. 특히 천주교나 개신교의 경우 군 내에는 여성 종교인이 없는 상태라 비구니 군승이 파송되면 우리나라 종교계 최초의 여성 진출이라는 금자탑을 쌓게 된다. 물론 해결해야 될 과제도 남아 있다. 불교계가 내건 조건은 35세 미만의 대졸출신자인데 조건에 맞는 비구니 스님을 찾기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부 산 지 사 : 070-7697-5202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사 람 찾 음



■ 성 명 : 이 용 일
■ 나 이 : 39세

어머니가 위독 하여,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 특 징 -

서울 말씨에, 대화시 약간 말을 더듬으며,
안경을 착용하고 키는 1m80cm 정도 큰 편임.

"찾아주시는 분께는 후사금으로
일금 20,000,000원(이천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아버지 연락처 : 011-227-5275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www.yangjikukak.com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만행스님의 항복기심



대유학당에서 중국 만행스님의 책을 번역해서 출간하자, 만행스님의 수행과정, 그리고 일반인들도 수행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문의해오는 독자분이 많았다. 그래서 만행스님과 필담을 하고 부족한 것은 동화사 사정을 잘 아는 지연보살에게 물어서 지면을 만들었다.

- 동화사를 굳이 동화선사라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동화사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수련중심 사찰' 입니다. 부처님을 모시는 것은 신도가 하는 것이고, 스님들은 수련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사실 필자가 중국의 사찰을 돌며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스님과 대화하는 신도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점이다. 신도들은 사찰에 와서 자기가 믿고 존경하는 부처님 보살님 나한님 들께 차례로 향을 살라 바치고는 돌아갈 뿐, 스님과 불법에 대해서 또는 인생에 대해서 대화하고 상담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어쩌면 일종의 관광지로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동화사는 부처가 되려는 사람이 모여서 부처님공부를 하는 곳이니 동화사에 선자를 더 붙여서 동화선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 양정당과 자재당의 수련이 많이 다릅니까?

양정당은 말 그대로 바른 마음, 바른 몸을 기르는 곳입니다. 또 그 수행방법이 쉬우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양정당은 앉는 자리도 반원탁식으로 중앙을 향해 앉게 되었고, 뒤쪽으로 갈수록 차츰차츰 높아져서 누구나 서로 잘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저녁 7시에 모여서 수련을 하는데, 한 시간 반은 정공을 수련하고 나머지 반시간은 설법을 하거나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면서 서로 격려를 합니다.

30분 동안의 밀주를 금강송식으로 발해서 정신이 집중되고 호흡이 일정해지면 육근의 감각기관을 닫고, 의식을 미간에 집중하여, 생명의 빛을 정수리에 모으는 참선을 시작합니다. 나와 우주가 일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수리로 올린 의식이 정수리 밖으로 연꽃처럼 피어오른다고 생각하면, 우주 만물과 융합하여 일체가 되고,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삼신(법신, 보신, 화신)이 드러나게 됩니다.



양정당에서 수련하기 위해 모여 앉는 사부대중

- 아! 그래서 양정당 수련에 참석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군요. 일반인들은 양정당 수련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또 법 높은 스님들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으니 그것도 좋고요. 그런데 아까 대웅전 뒤에서 여러 사람이 춤을 추듯 하는 체조도 좋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기공수행방법을 가감해서 정수만 모아놓은 연화생동공법입니다. 정공을 잘 하려면 신체가 건강해야 하는데, 연화생동공을 하면 모든 것이 원만해집니다.

매일 다섯 시가 되면 대웅전 뒤에서 연화생동공을 수련하는데, 스님들은 물론이고 동화사에 봉사하시는 신도분들, 그리고 동화사를 방문한 그 어떤 사람들도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연화생동공을 하면 『항복기심』에서 말한대로, 몸의 기맥이 잘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공을 하면서 생기는 가슴 답답증이나 배가 더부룩해지는 증세 등등 각종 질병을 해소시켜주고, 더욱 정신을 집중해서 수련을 할 수 있게 되지요. 또 남성은 성욕을 독맥으로 올려서 수련의 힘으로 돌릴 수 있고, 여성도 생리통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차츰 생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 참선을 할 때 주로 무엇을 생각하나요?

불법의 수행은 모두 각조를 떠나지 않는데, 각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조는 돌이켜 비추어 보면서 자신의 마음을 항복시키는 것입니다. 생활 속의 모든 일들을 선수행의 대상으로 삼고, 일체를 상대할 때에는 그냥 그대로 볼 뿐, 분별하지 말며, 기억하지 말며, 유에도 머물지 않고, 공에도 떨어지지 말며, 성심성의로 침착하고 여유있게, 단순하며 이완한 상태에서 각조를 유지하여, 당하로 돌아가면 그것이 바로 참선공부입니다. 꼭 앉아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연화생동공을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울력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생각을 하면 욕심내게 되어있고, 욕심을 내다보면 평정심이 흐트러집니다. 어떤 마음을 먹어야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욕망은 일종의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지요. 다만 우주의 에너지는 같은 성질끼리 서로 끌어당기게 되어있기 때문에, 선한 생각을 일으키면 선한 에너지를 불러 모으게 되고, 악한 생각을 일으키면 악한 에너지를 불러 모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불도 욕심에 달려있고, 지옥도 욕심이 원인이 되는 것이니, 욕심은 성불의 근본이면서 또한 윤회의 원인이 됩니다. 선한 욕심을 낼 것인지 악한 욕심을 낼 것인지는 전적으로 각자의 의지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행스님의 말씀은 막힘이 없다. 물어보기가 바쁘게 곧바로 답을 하신다. 이미 7년을 장좌불와의 폐관을 마친 선지식의 지혜가 온몸으로 느껴진다. 동화사 홈피에 들어가면 대유학당에서 번역해서 발간한 『마음의 달』 1,2와 『항복기심』을 무료로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만행스님이 부처가 되고자 수련한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자세히 나와 있다.



만행스님의 저서
▸마음의 달 1,2 / ▸항복기심
구입처 대유학당 (02)2249-5630

깨달음에 들기 위한 방편이야기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



무아선원장 혜원 스님

2011년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을 출간하여 화제가 된 혜원스님(무아선원장)은 경, 율, 논을 의지하여 몸소 수행한 결과를 『금강삼매경』대장경 원문을 해석하여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로 증득한 내용을 서술하여 출간 하였다.

〈생각다스리는 수행론〉을 통하여 1년 동안 무아선원에서 마음공부를 한 불자들은 우울증이 사라졌고, 가족관계가 부드러워졌으며,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지는 등 참선하면 무심에 들어간다고 체험담을 밝혔다. "1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배운 대로 생활 속에서 실천 하는 모습을 보고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혜원스님은 불자들이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보고 수행방법을 전하는데 있어 더욱 활기찬 의욕이 생겼다고 한다.

만물을 통하여 고뇌와 느낀 고통을 회통(回通)하고, 무상(無相) 무생(無生)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닦을 수 있도록 서술

이번 출간한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는 만물이 무상(無相)이나 우리들 눈에는 모든 것이 유상(有相)으로 보여 지기에 갖가지를 자기 기준과 생각으로 법을 세우니, 삼세(과거, 현재, 미래)를 거쳐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게 되고, 또한 만물이 무생(無生)이나 우리들은 모든 것이 유생(有生)으로 작용하여 신,구,의로 가지 가지 습관적 종자를 만들게 되고, 그 과보로 현생에 행동함이 부자연스럽고 더욱 고뇌하여 생각에 빠지니, 우울증 정신장애로 괴로움과 고통이 따르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저자인 혜원스님은 만물을 통하여 고뇌와 느낀 고통을 회통(回通)하고, 무상(無相) 무생(無生)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닦을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고 하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금강삼매경은 대승을 통틀어 거두므로 '섭대승경'이라 하고, 무량한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무량의종'이라 하며, 선정으로 지혜를 증득하여 깨뜨릴 수 없는 견고한 번뇌를 타파하니 '금강삼매'라 한다. 매우 청정한 이가 이경을 지니며, 이 경을 지니는 이는 다섯 가지 복(福)이 있다고 하셨다. 첫째 중생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둘째 몸은 갑자기 요절하지 않고, 셋째 사사로운 논리도 잘 답하고, 넷째 즐겁게 중생을 제도하며, 다섯째 능히 성스런 도(道)에 들어간다는 것이며 '내가 부촉하는 바는 오직 이 경전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혜원스님은 수행자가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를 의지하여 수행하여도, 위의 다섯 가지 복대로 안된 다면 논리는 이해하고 알았으나, 과거생애 이런 저런 기준을 세운 법들이 아직 정화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므로, 이루어 질 때까지 초발심으로 정진하기를 당부 하셨다.

"어떤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면 초조하고 불안한 감정이 일어날 때, 불보살님에게 자식이 잘되도록 비는 기도를 올린다면, 성취되어도 나중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서원함이 생깁니다. 경계로부터 느껴지는 감정은 과거에 습관적으로 만든 본인 것인데, 참회하여 닦지 않고 자식을 위하여 비는 기도를 하였기에 무엇을 했다는 상(相)이 쌓이게 되어, 미래에 자식에게 바라는 보상심리가 작용하여 서원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감정을 닦지 않는다면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혜원스님은〈생각다스리는 수행론〉에서는 빌고, 무엇을 했다는 상(相)이 나중에 서원함이 생기지 않도록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무심(無心)에 들어가도록 지도하고, 여기에 머물러 육도(六度) 중생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미세번뇌 닦아서 보살경지에 이르게 하는 수행을 〈금강삼매경 수행이야기〉에서 논하는 요지인 것이다.



무아선원 (031)721-2148~9



한 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율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 80mm →
↑ 75mm ↓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성맞춤!

종 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		



판매처 : 현불샵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